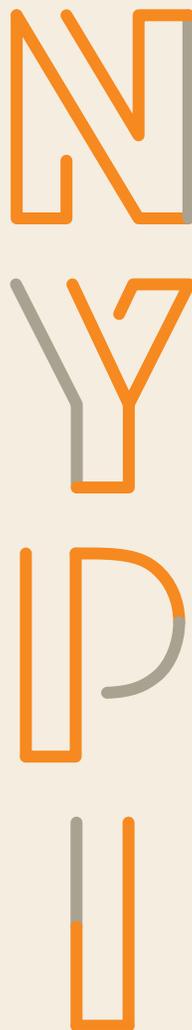


연구보고 20-R03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오해섭 문호영





---

연구보고 20-R03

---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저 자 오해섭, 문호영

연구진 연구책임자\_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문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조원\_지슬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 국문초록

금년도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의 목적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 및 변화 트렌드를 분석하여, 현안 이슈들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와 학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①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을 조사하기 위한 측정문항의 개발과 선정, ②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 추출법을 통해 6,000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 실시, ③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포럼 등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등이다.

연구 방법은 국내외 문헌 고찰, 설문조사, 콜로키움, 정책포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이며,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긍정적 관점의 청소년정책 개발 및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 2) Z세대 실물경제 이해 및 온라인 소비자교육 시스템을 강화한다.
- 3)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단'을 운영한다.
- 4) 지역사회 세대통합(브릿지) 및 가족 친밀도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5) 'Z세대 청소년의 결혼과 및 자녀출산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 6) Z세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일학습병행제'를 확대 실시한다.
- 7) 'Z세대 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 교육' 시스템을 강화한다.
- 8) 미래세대를 위한 '스마트 시민청소년센터'를 설립-운영한다.
- 9) 읍면 단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기획단'을 구성-운영한다.



## 연구요약

### 1.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영역별 가치관을 조사하고, 기 가치관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청소년들의 가치관 변화 트렌드를 분석하고자 함. 또한 청소년의 가치관 영역 중에서 시의성이 높고 미래사회 청소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가치관에 대한 현안 이슈들을 파악하고자 함.
-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확산에 대비한 지원 방안과 지역사회 및 학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2. 연구 방법

- **(문헌고찰)**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관련 국내외 문헌과 연구보고서 고찰을 통해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의 분석 틀 구성 및 조사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밀레니얼 세대(M)와 Z세대에 대한 특징 비교 및 국내외 청소년가치관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음.
-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을 통해 6,000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본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음(202007-HR-고유-013).

- **(콜로키움 및 정책포럼)** 금년도 연구과 관련하여 기관 차원에서 실시하는 2020년 제31차 직원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전문가 초빙 콜로키움 개최하였으며, 또한 본 연구원의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의 일환으로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학자, 현장전문가,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였음.

### 3. 주요결과

#### 1) 청소년의 가치관과 Z세대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 및 소비특성 분석

-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관련 국내외 문헌과 연구보고서 고찰을 통해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의 필요성과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의 체계도를 구성하였음. 또한 청소년의 가치체계 및 세대 구분에 대한 논의와 Z세대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였음.
- 국내외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최근 국내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Z세대의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미디어 이용 및 소비 성향 등을 제시하였음. 또한 국외 자료 중 2015 카산드라보고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발간한 Z세대 관련 연구 동향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Z세대 행동 패턴을 제시하였음.

## 2) 청소년 가치관 조사

-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관련 통계자료를 비교하여 변화 추이를 확인하였음.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청소년들은 인생에서 가족, 건강, 동성친구, 일, 여가, 돈 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으며, 종교, 이웃 등은 덜 중요하다고 인식함. 특히, 종교와 이웃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은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물건 구입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디자인을 가장 우선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응답률은 이전 대비 감소하였고, 품질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은 증가하는 등의 변화를 보임.
-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과거에 비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와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의 응답률은 감소한 반면, ‘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의 응답률은 눈에 띄게 증가함.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과 장래에 희망하는 자녀수는 이전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청소년들의 가치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이외에 결혼 후 부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률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이혼, 미혼모, 동성애에 대한 수용도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청소년의 65.7%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34.4%는 그렇지 않다고 반응함. 그리고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대학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자신의 적성’과 ‘경제적 수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이어서 ‘자신의 능력’ 등의 순으로 응답함. 이전과 비교해보면, 경제적 수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률은 증가한 반면,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률은 감소하는 등의 변화를 보임.

-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의 88.1%는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11.9%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온라인 청소년활동에 대해서는 64.1%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를 보면, 청소년들의 45.5%가 우리 사회를 공정 사회로, 72.6%가 인권 존중 사회로 생각했으며, 이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응답자의 76.7%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기회와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함. 한편, 부모님, 친구, 학교 선생님을 믿을 수 있다는 긍정 응답률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던 반면, 정치인, 이웃, 언론, 인터넷 정보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이 가운데 이웃을 믿을 수 있다는 긍정 응답률은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앞서 살펴본 이웃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긍정 응답률도 이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웃을 믿을 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과거보다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대답함. 그리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도가 향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3) 청소년 가치관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 금년도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원의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안’에 관한 발표 중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트렌드와 Z세대의 특성, 새로운 가치관 세대에 부응하는 사회·정책적 대응 전략, 향후 청소년 업무 추진 방향’ 등에 관한 핵심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음.

### 4) 결론 및 정책과제 발굴

- 금년도 정책 영역별 추진과제는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콜로키움 및 청소년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에 근거하여 구성하였으며, 정책영역은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 설문지 구성을 토대로 인생관, 가족·결혼관/진로·직업관, 사회·국가관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9개의 세부추진과제를 발굴하였음.

- 1) 긍정적 관점의 청소년정책 개발 및 제도적 기반 조성
- 2) Z세대 실물경제 이해 및 온라인 소비자 교육 시스템 강화
- 3)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단’ 운영
- 4) 지역사회 세대통합(브릿지) 및 가족 친밀도 증진 프로그램 확대
- 5) Z세대 청소년의 결혼관 및 자녀출산 인식 전환 프로젝트
- 6) Z세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일학습병행제’ 확대 실시
- 7) ‘Z세대 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 교육’ 시스템 강화
- 8) 미래세대를 위한 ‘스마트 시민청소년센터’ 설립·운영
- 9) 읍·면 단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기획단’ 구성 및 운영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2. 연구내용 ..... 5
- 3. 연구방법 ..... 8

## II. 청소년의 가치관과 Z세대에 관한 연구동향

- 1. 청소년의 가치체계 및 세대 구분에 관한 논의 ..... 15
- 2. 국내외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 22

## III.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

- 1. 조사개요 ..... 37
- 2. 조사대상 ..... 38
- 3. 조사도구 ..... 39
- 4. 분석방법 ..... 58
- 5. 표본설계 ..... 59
- 6. 조사결과 ..... 79
- 7. 소결 ..... 184

<b>IV.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적 대응방안</b>	
1.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Z세대의 핵심 트렌드 분석 · 195	
2. 새로운 가치관 세대에 부응하는 사회·정책적 대응전략 · 198	
3. 소결 .....	207
<b>V. 결론 및 정책 제언</b>	
1. 연구 요약 및 결론 .....	211
2.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절차 .....	216
3. 향후 청소년 정책 추진 및 가치관 연구의 방향 .....	227
<b>참고문헌 .....</b>	<b>229</b>
<b>부록(설문지) .....</b>	<b>241</b>

## 표 목차

표 I-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계획	10
표 II-1 청소년 세대 개념의 변천과정	18
표 II-2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간의 비교	20
표 II-3 캐나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간 비교(Canada, 2019)	21
표 III-1 조사개요	37
표 III-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8
표 III-3 조사영역 및 조사문항 초안	41
표 III-4 조사문항 수정안: 전문가 조사	47
표 III-5 조사문항 수정안: 실행계획서·중간보고서 심의	52
표 III-6 조사영역 및 조사문항	56
표 III-7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중 한국의 조사 개요	58
표 III-8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60
표 III-9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61
표 III-10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62
표 III-11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63
표 III-12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64
표 III-1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65
표 III-14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68
표 III-15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69
표 III-16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70
표 III-17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71
표 III-18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72
표 III-19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한다(2020년)	80
표 III-20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한다(2020년)	82
표 III-21 나의 미래는 밝다(2020년)	83
표 III-22 가족 중요도(2020년)	86

표 III-23 동성친구 중요도(2020년)	87
표 III-24 이성친구 중요도(2020년)	89
표 III-25 이웃 중요도(2020년)	90
표 III-26 여가 중요도(2020년)	92
표 III-27 일(직업) 중요도(2020년)	93
표 III-28 건강 중요도(2020년)	95
표 III-29 종교 중요도(2020년)	96
표 III-30 학력 중요도(2020년)	98
표 III-31 명예 중요도(2020년)	99
표 III-32 돈 중요도(2020년)	100
표 III-33 물건 구입 시 고려사항(2020년)	102
표 III-34 나는 가족과의 생활에 만족한다(2020년)	104
표 III-35 결혼을 한 후 부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고 싶다(2020년)	105
표 III-36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2020년)	107
표 III-37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2020년)	108
표 III-38 부모 부양 주체(2020년)	110
표 III-39 결혼에 대한 인식(2020년)	111
표 III-40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2020년)	113
표 III-41 희망 자녀 수(2020년)	114
표 III-42 이혼 수용도(2020년)	117
표 III-43 미혼모 수용도(2020년)	119
표 III-44 입양 수용도(2020년)	120
표 III-45 동성애 수용도(2020년)	122
표 III-46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2020년)	124
표 III-47 미래의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에 가야한다 (2020년)	126
표 III-48 진로나 직업은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2020년)	127
표 III-49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0년)	129
표 III-50 직업 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2020년)	131
표 III-51 나는 현재 학교생활에 만족한다(2020년)	132
표 III-52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2020년)	134
표 III-53 친구를 사귄 때 가장 중요한 것(2020년)	136

표 III-54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견해(2020년) .....	137
표 III-55 온라인 청소년활동에 대한 견해(2020년) .....	138
표 III-56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2020년) .....	140
표 III-57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2020년) .....	141
표 III-58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2020년) .....	142
표 III-59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이다(2020년) .....	143
표 III-60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지원 (2020년) .....	144
표 III-61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2020년) .....	146
표 III-62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2020년) .....	148
표 III-63 나는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2020년) .....	149
표 III-64 길거리에서 위험 시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임에 관한 견해 (2020년) .....	151
표 III-65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조에 관한 견해 (2020년) .....	152
표 III-66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2020년) .....	154
표 III-67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2020년) .....	155
표 III-68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권리 희생에 관한 견해 (2020년) .....	156
표 III-69 부모님(보호자) 신뢰도(2020년) .....	159
표 III-70 친구 신뢰도(2020년) .....	161
표 III-71 학교 선생님 신뢰도(2020년) .....	162
표 III-72 이웃 신뢰도(2020년) .....	164
표 III-73 언론 신뢰도(2020년) .....	165
표 III-74 정치인 신뢰도(2020년) .....	166
표 III-75 공무원 신뢰도(2020년) .....	167
표 III-76 인터넷 정보 신뢰도(2020년) .....	168
표 III-77 AI(인공지능) 신뢰도(2020년) .....	168
표 III-78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2020년) .....	170
표 III-79 정치에 대한 관심도(2020년) .....	171
표 III-80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2020년) ·	173
표 III-81 투표 연령의 적절성(2020년) .....	174

표 Ⅲ-82 장기기증 수용도(2020년) .....	176
표 Ⅲ-83 안락사 수용도(2020년) .....	177
표 Ⅲ-84 환경보존의 중요성(2020년) .....	178
표 Ⅲ-85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2020년) .....	180
표 Ⅲ-86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 (2020년) .....	181
표 Ⅲ-87 다문화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견해(2020년) .....	183
표 Ⅲ-88 인생관 주요결과(2008년, 2020년) .....	185
표 Ⅲ-89 가족 및 결혼관 주요결과(2008년, 2020년) .....	186
표 Ⅲ-90 진로 및 직업관 주요결과(2008년, 2020년) .....	187
표 Ⅲ-91 학교 및 친구관 주요결과(2008년, 2020년) .....	188
표 Ⅲ-92 사회 및 국가관 주요결과(2008년, 2020년) .....	189
표 Ⅲ-93 다문화의식 주요결과(2008년, 2020년) .....	191
표 V-1 청소년 가치관 조사 주요결과(2008년, 2020년) .....	214
표 V-2 Z세대 10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에 부응하는 사회·정책적 추진 과제 .....	217

## 그림 목차

그림 I-1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분석 틀 .....	7
그림 I-2 연구추진 단계 .....	11
그림 II-1 대한민국세대구분 .....	24
그림 II-2 Z세대의 행동의 근원: 진리에 대한 탐색 .....	31
그림 III-1 설문지 개발절차 .....	39
그림 III-2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한다(2008년, 2020년) .....	79
그림 III-3 행복감(2008년, 2020년) .....	81
그림 III-4 나의 미래는 밝다(2008년, 2020년) .....	83
그림 III-5 인생에서 중요한 것(2008년, 2020년): 긍정 응답률 .....	84
그림 III-6 가족 중요도(2008년, 2020년) .....	85
그림 III-7 동성친구 중요도(2008년, 2020년) .....	87
그림 III-8 이성친구 중요도(2008년, 2020년) .....	88
그림 III-9 이웃 중요도(2008년, 2020년) .....	90
그림 III-10 여가 중요도(2008년, 2020년) .....	91
그림 III-11 일 중요도(2008년, 2020년) .....	93
그림 III-12 건강 중요도(2008년, 2020년) .....	94
그림 III-13 종교 중요도(2008년, 2020년) .....	96
그림 III-14 학력 중요도(2008년, 2020년) .....	97
그림 III-15 돈 중요도(2008년, 2020년) .....	100
그림 III-16 물건 구입 시 고려사항(2020년) .....	101
그림 III-17 나는 가족과의 생활에 만족한다(2008년, 2020년) .....	103
그림 III-18 결혼을 한 후 부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고 싶다 (2008년, 2020년) .....	105
그림 III-19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2020년) .....	106
그림 III-20 부모 부양 주체(2020년) .....	109
그림 III-21 결혼에 대한 인식(2008년, 2020년) .....	110
그림 III-22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2020년) .....	112

그림 Ⅲ-23 희망 자녀 수(2008년, 2020년) .....	114
그림 Ⅲ-24 부모님의 비용 부담(2020년) .....	115
그림 Ⅲ-25 이혼 수용도(2008년, 2020년) .....	117
그림 Ⅲ-26 미혼모 수용도(2008년, 2020년) .....	118
그림 Ⅲ-27 입양 수용도(2008년, 2020년) .....	119
그림 Ⅲ-28 동성애 수용도(2008년, 2020년) .....	121
그림 Ⅲ-29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2008년, 2020년) .....	123
그림 Ⅲ-30 미래의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에 가야한다 (2008년, 2020년) .....	125
그림 Ⅲ-31 진로 및 직업 선택의 주도성(2008년, 2020년) .....	127
그림 Ⅲ-32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8년, 2020년) .....	128
그림 Ⅲ-33 직업 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2008년, 2020년).....	130
그림 Ⅲ-34 학교에 대한 견해(2008년, 2020년) .....	133
그림 Ⅲ-35 친구를 사귄 때 가장 중요한 것(2020년) .....	135
그림 Ⅲ-36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공정(2008년, 2020년) .....	139
그림 Ⅲ-37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2008년, 2020년) .....	141
그림 Ⅲ-38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2008년, 2020년) .....	146
그림 Ⅲ-39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2008년, 2020년) .....	147
그림 Ⅲ-40 남북통일의 필요성(2008년, 2020년) .....	149
그림 Ⅲ-41 길거리에서 위험 시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임에 관한 견해 (2008년, 2020년) .....	150
그림 Ⅲ-42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조에 관한 견해 (2008년, 2020년) .....	151
그림 Ⅲ-43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2008년, 2020년) .....	153
그림 Ⅲ-44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2008년, 2020년) .....	155
그림 Ⅲ-45 9가지 대상에 대한 신뢰(2008년, 2020년): 긍정 응답률 .....	157
그림 Ⅲ-46 부모님 신뢰도(2008년, 2020년) .....	158
그림 Ⅲ-47 친구 신뢰도(2008년, 2020년) .....	160
그림 Ⅲ-48 학교 선생님 신뢰도(2008년, 2020년) .....	161
그림 Ⅲ-49 이웃 신뢰도(2008년, 2020년) .....	163

그림 Ⅲ-50 언론 신뢰도(2008년, 2020년) .....	165
그림 Ⅲ-51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2008년, 2020년) .....	169
그림 Ⅲ-52 정치에 대한 관심도(2008년, 2020년) .....	171
그림 Ⅲ-53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 (2008년, 2020년) .....	172
그림 Ⅲ-54 투표 연령의 적절성(2020년) .....	173
그림 Ⅲ-55 장기기증 수용도(2008년, 2020년) .....	175
그림 Ⅲ-56 안락사 수용도(2008년, 2020년) .....	177
그림 Ⅲ-57 다문화 사회의 국가 발전에 관한 견해(2008년, 2020년)	179
그림 Ⅲ-58 다문화 청소년 친구에 관한 견해(2008년, 2020년) .....	181
그림 Ⅲ-59 다문화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견해(2008년, 2020년) ..	182
그림 V-1 정책과제 발굴 절차 .....	216



#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각자가 어떤 자아 혹은 인격을 형성하면서 생애 전 과정을 구성하고 지속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이것은 다른 동물에 비해 인간에게만 주어진 고유하고 독자적인 측면이다. 인간은 매 순간마다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인생을 실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매슬로우(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중 최상위에 위치한 자아실현은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인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미래사회는 직업 및 정보 선택의 다양화, 인공지능기술의 확대, 인간관계의 다변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개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간에 대한 가치관 연구가 사회변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과정이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밀레니얼 세대(1980-1995: 신세대, X/Y세대) 이후 Z세대(1996-2010: N/R세대)로 명명할 수 있는 현재의 10-20대 청소년들이 행복을 느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방식은 이전 세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청소년과 청년들로 대표되는 밀레니얼 세대는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 등으로 인해 현실 정치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밀레니얼 세대가 SNS라는 플랫폼을 활발하게 구축하고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와 정치에 관

심을 갖고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하였다(오해섭, 문호영, 염유식, 2019).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포스트 밀레니얼 세대(Z세대) 또한 정보를 손쉽게 정확하게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과 미디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국내외 문화를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익숙해진 문화적 감수성과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성장환경 속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전 세대가 주로 학교에서 배운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는 데 비해, Z세대는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한 호불호가 뚜렷한 삶의 태도와 소비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그 어느 세대보다 ‘자신’에게 가장 솔직하고 확고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표현하는 세대로 명명되고 있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 23).

다른 한편으로, 10-20대 청소년들이 처한 국내외 상황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급속한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일자리 감소와 미래 삶에 대한 불안감은 높은 실정이다. 반면, 이들의 가치관과 생활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생애주기적인 차원에서 일자리, 주택, 결혼, 출산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그에 따른 맞춤형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영역별 가치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 변화와 연관성이 높은 변인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가치관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사회와 문화 변동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가치관 영역 중에서 시의성이 높고 미래사회 청소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관에 대한 현안 이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온-오프라인상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과 지역사회 및 학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적 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는 먼저 인간의 가치관에 대한 개념정의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연구 주제에 따른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의 접근 방식으로써 시계열적 자료 축적과 주요 가치관들에 대한 분야별 특성 고찰 등을 병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을 조사하기 위한 측정문항의 개발과 선정을 위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질문지를 활용해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을 통해 6,000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1)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측정문항 개발 및 선정

관련 선행연구들을 폭넓게 고찰하여 조사영역 및 조사문항을 구성하였다. 특히, 기존의 가치관연구를 토대로 연구진에서 1차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후 학계와 청소년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항별 적합성 평가와 실행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조사전문기관으로부터 문항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 2)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설문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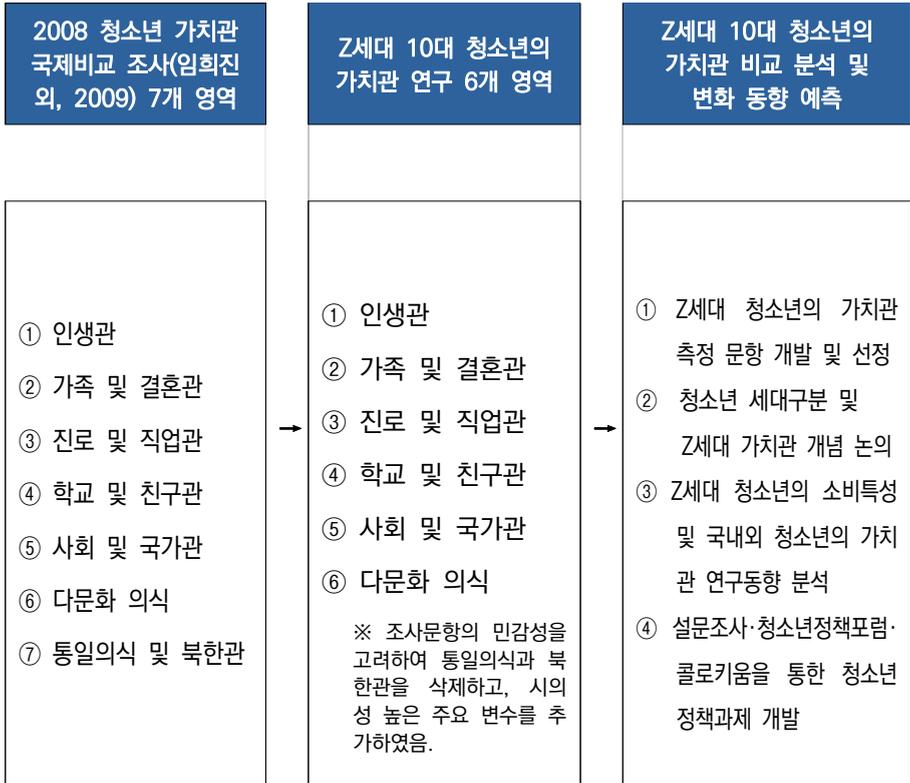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생관, 가족 및 결혼관, 진로 및 직업관, 학교 및 친구관, 사회 및 국가관, 다문화의식에 관한 항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국의 중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을 통해 6,000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여 진행하였으며, 분석에는 최종 5,740명의 설문결과가 활용되었다. 본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202007-HR-고유-013).

### 3) 청소년 및 Z세대 가치관 논의를 위한 콜로키움과 정책 포럼 실시

금년도 연구와 관련하여 실행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한 ‘Z세대의 용어 및 개념 정립에 대한 학술적 측면의 논의와 필요성’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기관 차원에서 2020년 제31차 직원역량강화 콜로키움 ‘Z세대의 SNS마켓에서의 소비사회와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주제로 전문가 초빙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또한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학자, 현장전문가,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은 Z세대의 개념 정의와 특징, Z세대 청소년의 소비생활 특성과 가치관, 국내외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동향,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적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체계도**



**청소년의 가치관에 변화 분석과 증거기반  
청소년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 방향 제시**

**그림 1-1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분석 틀**

### 3. 연구방법

#### 1) 청소년 가치관 관련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관련 국내외 문헌과 연구보고서 고찰을 통해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의 필요성과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의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M)와 Z세대에 대한 특징 비교와 정책적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금년도 연구의 방향과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에 관한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특히, 조사도구 초안은 학계전문가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항별 적합도 평가를 실시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실행계획서 및 중간 보고서 심의 시 원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시의성이 높은 문항들에 대한 추가의 필요성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조사전문기관으로부터 문항의 이해도, 응답 로직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 2)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20년 7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하였다. 전국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층화다단계집락표집으로 6,000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후 표본설계에 따라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또는 우편조사 중 해당 학교에서 희망하는 방법으로 실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개요, 조사도구, 표본설계 등은 3장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 3) 기타 연구방법

#### (1) 전문가 자문회의

금년도 연구 설계 및 내용 구성, 지표내용, 청소년 가치관조사 설문지 개발,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정책담당자를 선정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2) 전문가 콜로키움

금년도 연구와 관련하여 기관 차원에서 2020년 제31차 직원역량강화 콜로키움 'Z세대의 SNS마켓에서의 소비사회와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주제로 전문가 초빙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콜로키움은 전문가 주제발표에 따른 참석자 질의 응답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 (3) 정책포럼

금년도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원의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의 일환으로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학자, 현장전문가,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 (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금년도 연구의 방향 설정 및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부서 담당자를 중심으로 청소년활동가와 연구진이 함께 연구 시작 단계인 3월에 1차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연구 종료 시점에서 연구결과 분석과 정책과제 개발 및 정책제언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관한 제2차 정책연구실무협의회는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였다.

표 1-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계획

횟수	주요 내용	참석대상	개최시기
1회	-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의 방향 -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 분석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진 등	3월
2회	- 청소년의 가치관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과제 개발 및 활용방안 - 지역사회와 청소년활동 간의 연계 및 지원방안	여성가족부, 지자체, 청소년 현장 전문가, 연구진 등	12월 개최불가

#### 4) 연구추진 절차



그림 1-2 연구추진 단계



## ○ — II. 청소년의 가치관과 Z세대에 관한 연구동향

- 1. 청소년의 가치체계 및 세대 구분에 관한 논의
- 2. 국내·외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 청소년의 가치관과 Z세대에 관한 연구동향

## 1. 청소년의 가치 체계 및 세대 구분에 관한 논의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각 세대가 어떤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이슈를 비롯하여 문화적 환경에서 반응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학습을 통한 사회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핵심적인 가치 요인을 중심으로 개인 혹은 집단별 유사성과 특이성을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 유아기와 학령기의 부모와 교사로부터 학습된 가치는 성인기의 직업선택, 결혼과 가족의 구성에 대한 관점, 법질서와 사회적 정의에 대한 신념, 국가관과 세계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Fischer et al, 2010; 김연숙, 2018, 민보경 외, 2019 재인용).

한국 사회에서 가치 개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와 다양한 의미를 가져왔다. 근대화 이전부터 오랫동안 우리 민족은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또한 몇 차례의 전쟁과 정치적인 이념 갈등을 경험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극심한 논쟁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민보경 외, 2019). 최근에는 국가의 성장 주도적인 경제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들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취업이라는 좁은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이고 편법적인 행태를 비판하면서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이들의 가치 체계에 대한 논의

와 개념정의는 주로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가치 체계는 주로 학교생활과 학업성적에 근거하여 분석되고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기준점을 토대로 어른들에 의해 범주화된 청소년의 가치관과 가치 체계는 청소년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구조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았다. 특히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은 초점에서 벗어나 왜곡될 소지도 있다. 가치관의 특성 중 한 가지는 맥락의존적(context-dependent)이기 때문이다. 김신영, 오성배와 이명진(2007: 9)의 주장에 의하면, “시공을 초월한 절대불변하고 보편타당한 가치관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항상 상대적이고 특정 시대와 공간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가치 체계 연구는 가급적 그들의 생각과 눈높이에서 접근해야 하며, 시대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영역과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민보경 외, 2019: 7).”

청소년은 과거와 현재의 가치에 영향을 받아 이를 전승하는 역할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중추세력이다. 그들의 공통된 가치는 기성세대의 가치와 새로운 변화를 견인하는 독특한 가치가 공존하는 동시성을 갖는다. 특히, 10대 청소년 시기는 이전 부모 세대로부터 이어 받은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10대에 형성된 가치관은 전 생애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래집단, 가정, 학교, 사회단체 등에서 그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심리요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은 어른이 된 후에도 기본적인 내재적 가치(implicit value)로 작용하면서 시대적인 환경 변화에도 쉽게 변하지 않은 특성을 지닌다(Steinburg et al. 2001; 민보경 외, 2019 재인용).

우리가 청소년의 가치관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바로 가치관과 인간행위 간의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치관의 특성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가치관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어떠한 가치관이 언제 형성되느냐의 문제는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김신영 외, 2007: 10). 인생의 전 주기에서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으로 제2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청소년기의 중요성은 이후 성인기의 사회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부분의 발달과업들이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되고 사회에 대한 규범의식에 해당되는 사회적 가치관도 주로 이 시기에 형성된다(김신영 외, 2007: 11).

최근까지 한국사회는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이나 목소리를 내는 존재로 인식하되 그보다 대부분이 학령기에 해당된다는 측면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업에 열중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이들은 “젊은 십대”의 목소리를 내는 계기를 스스로 마련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2008년 촛불집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모바일이라는 자신들만의 소통방식을 통해 집회에 참가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면서 사회와 소통하고 스스로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존재임을 드러냈다(이창호, 김종길, 이향후, 2008: 10).

이전 세대와는 달리 쌍방향 소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하는 능력을 갖춘 이들을 “web 2.0세대”(오찬호, 2009; 이창호 외, 2008 재인용)로 <표 II-1>과 같이 구분하였다. 이들의 특징은 ① 개인주의적이면서 소통을 중시하고, ② 모바일과 인터넷을 자신의 표현수단으로 삼는 ‘디지털 노마드’이며, ③ 합리적 논리와 토론이 오고가는 ‘공론장’ 중심이 아닌 이미지와 상징을 매개로 한 감수성과 정서적 요인이 중시되는 ‘심미적 토론장(오찬호, 2009; 이창호 외, 2008 재인용)’을 신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이 하나의 역사적 혹은 사회적 맥락이 환경의 변화와 자극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청소년기의 심리발달 단계와 만나 이 같은 세대적 구분과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이창호 외, 2008: 15).

표 II-1 청소년 세대 개념의 변천과정

세대	신세대	X/Y세대	N세대	R세대	2.0 세대
등장 시기	1990년대 초반	1990년대 중반	1990년대 후반	2002년 월드컵	2008년 5월 촛불시위
특징	-서태지의 등장 -개성중시	-소비 지향적 -물질주의적 -개성, 다양성, 즐거움을 중시 -참여 지향적	-인터넷, 휴대폰 등 디지털기기를 생활화 -네트워크를 중시	-강한 민족적 성향 -집단의식 -개방성	-쌍방향 소통중시 -디지털기기가 주요 표현수단

\* 출처: 이창호, 김종길, 이항우 (2008),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I -세대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P.9 재구성.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AI)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다양한 분야로의 확산에 힘입어 직업과 인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미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일과 직업의 의미를 부의 축적과 자아실현이라는 기성세대의 관념과는 달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이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키고 있다.

인류의 삶과 밀접한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관계가 다변화 되는 사회에서 개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 기준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 이유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구조와 생활환경의 커다란 영향을 받는 존재이므로 사회변화 예측과 인간의 가치관 변화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세대 구분을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사회·문화적 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각 세대의 가치관 및 행동양식의 특징 및 차이를 바탕으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집단의 관점으로 구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송주완, 2020: 292). 이 중에서 1982년부터 1994년도 기간 출생자를 의미하는 Y세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개방주의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선도계층이자 소비와 유행의 주역으로 간주되었다(정다인, 김승인, 2020).

또한 Z세대는 Y세대의 뒤를 잇는 세대로 1995년 이후부터 2010년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로 2020년을 기준으로 15세에서 25세에 해당되며,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유년시절부터 완벽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온 세대로 이전 세대에 비해 멀티태스킹에 익숙하고 다양한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이 뛰어나며, 이를 자신들의 생활과 소비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김동심, 주경희, 김주현, 2019; 송주완, 2020 재인용). Z세대는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생활과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특징으로 온라인 구매 비중이 매우 높고 구매 단계에서 SNS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한 다음 객관적으로 선택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한다(주희영, 김수영, 김영인, 2018).

이러한 특징을 가진 새로운 세대를 우리나라 관련 부처와 기관 등에서는 Z세대라는 명칭으로 “1990대 중반에 태어나 출생 시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성장한 세대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이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로 인하여 밀레니얼세대(1981년-1996년)보다 디지털 환경에 훨씬 익숙해져 있다(채희주, 이진숙, 2020)”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학내일 연구소는 ‘한국의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비교’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M세대와 Z세대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간의 차이를 요약한 내용은 <표II-2>와 같다.

이 표에서 비교한 내용을 보면, 밀레니얼 세대(1980-1995 출생) 이후 포스트밀레니얼세대(1996-2010: Z세대)로 불리는 현재의 10-20대 청소년들이 삶에서 행복을 느끼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은 이전 세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포스트 밀레니얼 세대(Z세대)는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정확

하게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과 미디어 이용, 각 분야 기술의 혁명적 진보와 다양한 글로벌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적 감수성이 풍부한 상태이다.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한 1인 자녀 가구 등 변화된 성장환경 속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각각에 대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 Z세대(1997-2010)의 청소년들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1984-1996)와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 23).

표 II-2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간의 비교

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출생시기	1984-1996	1997-2010
주요사건	정권 교체, IMF 경제위기, 인터넷-휴대폰, 2002 월드컵, 디지털 1세대	경제위기 상시화, 세월호-각자도생, 국제분쟁, 한류/뉴트로, 공유 1세대
가치관	정서적 안정, 높은 나의 만족도	포용성, 개성, 다양성
디지털기기	TV, 스마트폰, 태블릿	유튜브, 사물인터넷(IoT), 립싱크 동영상 앱 뮤지컬리
영향을 받는 사람	셀럽	유튜브 크리에이터
정보신뢰	검색엔진 활용	지인으로부터 얻는 정보
소비성향	브랜드 지명도에 따른 선호	개성 중시 맞춤형 브랜드 선호
직업관	취업 후의 자기계발 도모, 다양한 일에 도전하기 위한 샐러던트(salaryman+student), N잡러 등	
라이프 스타일 <sup>1)</sup>	YOLO(You Only Live Once, 옴로),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가능성에 도전	

\* 출처: 티타임즈 (2017).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5가지 차이.  
[https://1boon.kakao.com/ttimes/ttimes\\_1711301807\(20.03.26 인출\)](https://1boon.kakao.com/ttimes/ttimes_1711301807(20.03.26 인출))

1) X세대는 조직에서 근속연수가 오래됨에 따라 진급하면서 그에 따라 최대한 많은 경제적 자원을 축적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여겨왔음.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경제적인 성공이 우선이기보다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중시하고 자신에게 더욱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Z세대는 이전 세대가 주로 가정과 학교에서 가르쳐 준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데 비해,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한 호불호를 뚜렷하게 밝히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그 어느 세대보다 '자신'에게 가장 솔직하고 확고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진 세대로 판단된다(대학 내일20대연구소, 2018: 23).

한국의 청소년들에 대한 가치관과 비교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로 캐나다의 경우를 보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캐나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간 비교(Canada, 2019)

세대	밀레니얼	Z세대
출생시기	1980~1995	1996~2010
전세계적인 분위기	테러리즘, 소셜미디어 확산	경기불안정, 환경오염 확산
가치관	자유, 융통성	안정감, 안전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구글 검색	가족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함
쇼핑 형태	몰 쇼핑, 픽업서비스	집까지 배송서비스
기기	태블릿, 스마트 PC	스마트폰, 3D 프린팅 AR/VR
의사소통 방식	페이스북, 텍스트	페이스 톡
대학 진학	여전히 많은 수가 대학에 진학	대학 진학을 전 세대보다 저조(학교가 아니더라도 정보가 많다고 생각)

\* 출처: [https://www.visioncritical.com/blog/gen-z-versus-millennials-infographics\(20.4.4.인출\)](https://www.visioncritical.com/blog/gen-z-versus-millennials-infographics(20.4.4.인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두 세대 모두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세계적인 경기 불안정 상황을 비슷하게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치관에 대한 비교에서는 M세대가 자유와 융통성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 비해, Z세대는 안정감과 안전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다소 인상적이다. 또한 두 세대 모두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인터넷 검색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Z세대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지인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유튜브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 현상에 함의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M세대는 여전히 많은 수가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경향인 반면, Z세대는 “학교가 아니라도 다양한 채널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때, 하여 점차 대학 진학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 2. 국내·외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 1) 국내 청소년 가치관 및 Z세대에 관한 연구 동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진행된 가치관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크게 개인의 삶, 종교, 결혼, 가족, 사회·정치·경제, 국가, 윤리도덕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어 왔다. 또한 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교, 진로, 미래, 가족·부모, 친구, 사회의식, 건강 등의 내용 위주로 조사되었다.

인간의 가치관 연구는 가치관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하위 영역을 구분하는 범주에 집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프레인저(spranger, 1928)의 연구는 가치지향성을 기준으로 한 인간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핵심 내용은 인간을 가치지향적 특성에 따라 이론형, 심미형, 정치형, 종교형, 사회형, 실제형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김신영 외, 2007: 12).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한 초기 연구로는 김태길(1967)의 저서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과 홍승직(1969)의 연구 논문인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등으로,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전통적 가치와 근대성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한국 사회의 서구화가 청소년 세대들의 전통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한미라, 2011: 106; 민보경 외, 2019: 26 재인용).

청소년의 인생관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로는 이재창, 최운실, 정영애, 최경선(1983)의 ‘청소년 의식구조 및 형성 배경’ 연구, 김형립(1995)의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그리고 문용린(1987)의 ‘현대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물질주의, 요령주의, 편법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보다는 개인주의가 우선하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상철, 김영한(2003)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청소년은 즐겁게 사는 것, 1990년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2000년대는 소시민적인 삶을 추구하면서도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싶다는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비교되었다(한미라, 2011: 106-107; 민보경 외, 2019: 26 재인용).

다른 한편으로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치체계의 또 다른 트렌드는 모빌리티(mobility)이다. 이것은 이동성 혹은 유동성의 개념으로 표현되며, 공간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유행에 민감한 일종의 트렌드의 유연화(flexibility)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직업과 생활방식(life-style)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동성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가치관은 한덕용, 이경성(2003: 60)의 연구에서 “2000년 대학생 청소년들은 인정과 우애 있는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추구하는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경향은 청소년의 포래집단 지향성의 강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이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보다 ‘친구나 학우’와 의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은 1980년대 “부모를 반드시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반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오면서 부모부양은 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선택적 사고로 변화하였다. 또한 교육에 관한 가치관은 1990년에는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출세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던 반면, 2000년에는 취업과 지식 및 기술을 연마하는 현실적인 목적이 우선시 되었다. 청소년들의 사회관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서열을 중시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하여 불공정한 사회로 평가하고 있으며, 공공부분에 대한 불신감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미라, 2011: 120-121; 민보경 외, 2019: 26 재인용).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날의 세대 구분은 갈수록 세밀해지고 그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90년대 X세대를 시작으로 Y세대, N세대 등을 거쳐 Z세대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면서 소비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Z세대는 인종, 성별,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다양성을 중시하고 편견이 없는 세대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주희영, 김수영, 김영인, 2018). [그림 II-1]은 아날로그 중심인 베이비붐 세대에서 디지털 이주민 X세대, 디지털 유목민 Y세대, 1995년 이후 스마트환경에서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 Z세대로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세대 구분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Y세대)		Z세대
출생 연도	1950~1964년		1965~1979년	1980~1994년		1995년 이후
인구 비중	28.9%		24.5%	21%		15.9%
미디어 이용	아날로그 중심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유목민 		디지털 네이티브 
성향	전후 세대, 이념적		물질주의, 경쟁사회	세계화, 경험주의		현실주의, 윤리 중시

\* 출처: Contenta M (2019). Z세대가 온다! Z세대 그들은 누구일까요? <https://magazine.contenta.co/2019/08/z세대-그들은-누구일까요/> (2020.11.2.인출)

그림 II-1 대한민국세대구분

세대(Generation)를 연구하는 학자마다 세대에 대한 구분과 정의에 대한 차이는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베이비붐세대, 386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 등으로 구분지어 가정 또는 조직,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인구학적 연구동향이다(정은이, 2019). Z세대 10대 청소년의 특징과 가치관 연구가 사회, 경제, 교육,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Z세대 연구의 각 세대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다각적으로 해볼 수 있다. 세대 구분을 소비문화, 미디어 이용 등과 관련하여 구분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다인, 김승인(2020)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복합문화공간의 브랜드 경험 연구’와 채희주, 이진숙(2020)의 ‘Z세대의 SNS마켓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등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시대 소비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부응하는 시장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 채희주, 이진숙(2020)연구 결과에 따르면, Z세대의 소비자사회화 경향은 주로 인스타마켓을 이용하고 있다. 그 이유로 소비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 희소하고 독특한 스타일의 제품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경향성, 그리고 이러한 탐색과 소비 과정에서 준거집단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집단의 특성 등이라고 분석하고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인스타마켓에서 소비하는 Z세대는 친구나 부모에 대한 모방이나 강화보다는 마켓 운영자의 외모, 능력, 개성표현, 희소상품 획득의 만족감이 소비의 강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Z세대가 인스타마켓에서 보여주는 소비자사회화 경향은 일종의 여가를 즐기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인스타마켓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과정은 단순히 소비 그 자체를 넘어 여가시간을 통해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도록 일상적이고 소소한 경험을 통해 편안한 몰입과 자유로운 행복감을 느끼는 기회와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셋째, Z세대는 인스타마켓 속에서 소비자로서 마켓의 관찰자이자 실제 사회적

활동에 참여가자 되기도 하는 전반적인 과정 그 자체를 즐기는 특성이 강하다. 이들은 구경꾼 단계에서 출발하여 관찰자와 구매자의 단계를 거치면서 소비자사회화를 경험하고, 다시 이 단계가 반복되면서 소비의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학습하여 결국은 인스타마켓에 최적화된다는 것이다.

넷째, Z세대는 인스타마켓을 통한 소비자사회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뿐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도 한다는 점이다. 일부 지나치게 몰입하는 이용자들로 인하여 이들을 ‘인스타 충’으로 낙인 시키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Z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더욱 독립적이며 사적인 영역에 침해받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정지영 외, 2019; 채희주, 이진숙, 2020 재인용). 또한 성차별, 인종주의에 관대한 첫 세대이며,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소비를 통해 만들어 내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진 만큼, 자신의 정체성 또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타인의 눈이나 의견 등을 강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Z세대의 소비자사회화 현상이 부정적인 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개인의 다양성, 소비가치, 소비행동 등을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식이나 가치관을 연구하는 목적은 이들의 주된 가치지향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공통된 가치와 상이한 가치들의 전체적인 분포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추구하는 현재와 미래의 선호도와 소비트렌드 등을 분석하여 거시적인 사회·경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다. 더불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현상이나 이슈들을 설명하고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국내의 Z세대 연구 초기에는 Z세대의 특성과 관련된 주제였다면 2020년에는 Z세대를 소비주체로 보고 그들의 삶의 주체성과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금은 이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시대이다.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새로운 방식에 이미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다. 사회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집단은 인플루언서<sup>2)</sup>라고 불리는 세대이며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잇고 있는 Z세대이다. 인플루언서로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네트워킹 되어 상호작용하는 Z세대에 대한 추후 연구가 기대된다.

특히 2019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하여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기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후 진행되는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련된 연구의 주제는 사람들 간의 비대면 접촉을 우선시 하는 온라인 학습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Z세대에 관한 국외 연구 동향<sup>3)</sup>

Z세대에 대한 이론과 성격에 관한 연구의 Schwieger & Ladwig(2018)는 Z세대의 특성에 집중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Z세대를 '1996년과 2012년 사이 태어난 사람들'로 정의하였고, Z세대의 특성에 관한 여러 보고서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 (1) Deep Focus(2015)의 카산드라 보고서

2015년 카산드라 보고서는 902명의 7세에서 17세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것이다. Deep Focus 그룹은 2016년 Merriman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는

---

2) 인플루언서(영어: influencer)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을 의미하며, 특히 웹상에서의 인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물이 전달하는 정보를 기업이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있다(위키백과(2020), <https://ko.wikipedia.org/wiki/인플루언서>).

3) 이 장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안'에서 김세광 교수(고신대학교)가 발표한 내용임.

것을 밝혔으며, 2015 카산드라 보고서에서 살펴본 Z세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끈질기다. Z세대들은 실용적이다. 그들은 인생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들이 유의미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성공을 성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71%). 40%의 응답자들은 실패를 하나의 기회로 인식하고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Deep Focus, 2015).

둘째, 실력 향상에 집중한다. Z세대들은 어릴 때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다. 89%의 대상자들이 그들의 여가시간에 집중적으로 창의적이며 생산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였다. 여가시간에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대략 62% 응답자들이 기업가가 되기를 원하고 단순 취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이 가진 실용적이며 진보적인 자세 때문에 많은 이들이 비즈니스 계통(58%), 그래픽 디자인(51%), 동영상 제작(50%), 그리고 앱 개발(50%)등에서 실력을 쌓고 있다고 밝혔다(Deep Focus, 2015).

셋째, 현실적이다. Z세대들은 스토리와 콘텐츠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현실적인 주제들을 다룰 때였다. 이들이 선호하는 것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여러 SNS, 특히 유튜브를 통해 전달 받는 것을 선호한다.

## (2) JWT 보고서

Z세대는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다. 2012년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 JWT(J. Walter Thompson World Wide)는 태도와 기술에 대한 습관에 대하여 8세-12세 200명과 13-17세 200명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정밀 조사했다. 대략 90%가 인터넷에 계속 접속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대다수 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한 인터넷 접속이었고 실제적인 활동들 예를 들어, 영화관람이나 외식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JWT, 2012).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친구들과 디지털로 소통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고, 40%는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편하고 실제 생활은 불편하다고 밝혔다.

### (3) Beal 보고서

Z세대는 자발적 행동가다. Beal(2016)은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를 비교하였고 Z세대들은 “계속 업데이트 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부정적으로는 이들이 낮은 집중 시간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 측면에서는 더 훌륭한 다중 업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Z세대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학위를 받는 것 보다 빨리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았다.

### (4) Adobe 연구

2016년 ‘EDUCAUSE2016’에 기고한 연구논문에서, Adobe는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1,000명의 미국 학생들로 연령은 11세에서 17세였고 400명의 Z세대 교사들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 자료에 의해 추출된 Z세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Z세대는 기술과 창의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들의 정체성과 일면 교차하는 것으로 본다. 둘째, Z세대는 흥분해 있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하게 현실세계에는 준비되어 있지는 않다고 본다. 셋째, Z세대가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직접 행동하고 창조하는 것으로 학생 교사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이 더 창의력 개발에 집중한다. 넷째, 미래 직장에서 창의력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미래 직업에서 보면 기술을 통해 Z세대들을 구분 지을 것이다.

### (5) Northeastern 대학교 연구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는 Z세대 학생들 1,01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했다(2014). 연구결과를 통해 정리해 본 Z세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자발적 행동가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스스로 해내려고 한다. 기업이 정신을 배우려하고 자기 자신만의 대학 학습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둘째, 자발

적이며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셋째, 자신의 미래 재정에 대해 걱정한다. 예를 들면 대학 등록금과 학생 대출로 인한 빚이 있다. 넷째, 대학이 어느 정도의 전문적 실전 경험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예로 회사 인턴 경험을 들 수 있다. 다섯째, 다소 온건한 열정을 기술에 대해 가지고 있다. 특히 고등 교육에 대해서 52%의 응답자가 자신들은 사이버 학위를 기존의 학위와 동등하게 여긴다고 밝혔다. 여섯째, 사회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Schwieger & Ladwig(2018)의 연구를 통해 정리해본 Z세대의 특징은 청소년 활동 지도의 방향에 시사점을 준다. Z세대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과 창의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부분에서 청소년의 자아역량 개발에 기반을 둔 청소년 활동과 정책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2) 맥킨지의 Z세대 연구(Tracy Francis•Fernanda Hoefel, 2018)

맥킨지는 최근 BOX1824(조사기관으로 이 기관은 전문적으로 소비자 트렌드(성향/동향)를 분석함)연구소와 함께 이 새로운 세대가 보여주는 행동들과 이 세대가 어떻게 소비자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냈다. 본 연구를 통해서 Z세대들 중에서도 3개 도시에 거주하는 세대들의 특성을 도출하여 동일지역의 다세대를 대상으로 얻은 정량적인 자료, 특히 사회경제적인 계층들을 대상으로 얻은 자료와 대조해 보았다. 이를 통해 Z세대가 가진 사고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더 폭넓은 세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Z세대의 4가지 핵심 행동패턴을 도출해 내었다. 모든 패턴들은 한

가지 요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바로 진리에 대한 탐구이다. 첫째, Z세대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개인의 표현’이며 ‘순위를 정하는 것’은 배척한다. 둘째,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다양한 대의들을 찾는다. 셋째, Z세대들이 확고하게 신뢰하는 것은 대화가 가지는 효용성이며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 넷째, 이들은 결정을 내림에 있어 제도들(기관들)과 관련지어 도출하며 매우 분석적이면서도 실용적으로 행동한다. Z세대를 ‘진정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행동근원이 진리의 탐색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림 II-2]에서 보면 진리에 대한 탐색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의 양식을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림 II-2 Z세대의 행동의 근원: 진리에 대한 탐색**

진리탐색에 기반한 Z세대 행동 패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정될 수 없는 정체성”: 한 가지 방식으로 스스로를 규정지을 수 없다. Z세대의 행동요인은 진리에 대한 탐구이며 이는 개인적이기도 하고 집단적이기도 하다. Z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스로를 한 가지 정형적인 고정관념에 고착시키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실험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만들어 나가며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개인적인 독자성을 형성해 나간다.

둘째, “포용적 의사소통”: 다양한 진실(사실)들을 공감하기, 철저히 포용적이다. Z세대들은 인터넷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실제 세상에서 만나는 이들을 구분 짓지 않는다. 이들은 계속적으로 공동체들 특별히 자신들의 대의를 증진시키는 공동체들 사이를 왕래한다. 그 방법은 높은 수준의 이동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 “대화로 해결”: 대결보다는 대화로 해결한다. Z세대들은 대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견해의 차이들을 받아들인다. 특히 여러 소속된 기관들 중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의 차이점과 가족들과의 의견 차이들도 받아들인다. Z세대는 대화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높은 가치로 연결 시켜 준다고 믿고 있다. 고정관념과 상당한 수준의 실용주의를 거부한다.

넷째, “현실적이다: 모든 것들 이면의 진실을 밝힌다.” Z세대들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훨씬 더 실용적이고 분석적이다. 특히 자신들이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전 세대들은 비교적 그렇지 못했다. 65%의 Z세대들이 본 조사에서 밝힌 사실은 자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아는 것이며 그 일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Z세대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들이며 쉽게 지식들을 습득한다. 기존의 교육기관보다 온라인 학습에 더욱 익숙함을 느낀다.

Z세대의 두드러지는 점은 소비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Z세대는 개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소비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의 주도하에 소비자들은 세대들을 통틀어 열성적으로 더 개인적인 제품들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자신의 개성을 강조하는 고가의 제품을 돈을 들여 지불하고자 한다.

세계적인 전략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의 연구에서 ‘Z세대는 진정한 세대’라고 볼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였다. 무엇보다 Z세대들이 생각의 중심에 두고 있는 ‘개인의 표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3) Z세대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방안<sup>4)</sup>

지금까지 Z세대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Z세대의 특성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살펴보았다. 국내외 Z세대에 대한 연구의 분석을 통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았다.

첫째, Z세대가 가진 세대적 특성인 "디지털 네이티브(native)"로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으로 그들의 삶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 관점에서 다양한 멀티태스커이며 성취지향적인 Z세대의 행동 방식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Z세대는 실용적인 경험 학습을 선호하므로 이를 교육과정에 적용해야 한다. 이들이 의미 있는 경험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청소년활동, 교육에 적용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작업하면서 공동의 작업을 하지만 자신의 조건에 따라"(Seemiller & Grace, 2016: 207)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육환경을 구성해야 한다(Rickes, 2016).

셋째, Z세대가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적극적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Fardouly et al(2017)는 Z세대에게 있어서 스마트 폰과 소셜미디어는 단순한 기기와 플랫폼으로서가 아니라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Z세대가 주도하는 스마트 교육의 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실천을 통한 학습, 명확한 목표와 빠른 피드백, 친구 같은 교사, 청소년지도자, 영상과 스마트폰 첨단기기를 활용한 학습 : 멀티태스킹, 게임으로 배우기, 더 비판적인 사고하기이다. 특히 Z세대는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학습 과정에서 그들은 구체적인 개념의 적용을 선호하고

---

4) 이 장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안'에서 김세광 교수(고신대학교)가 발표한 내용임.

쉽게 그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Z세대는 행동으로 배우기를 선호한다. 이것은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체험활동, 경험학습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 Z세대 청소년들은 능숙하게 기술을 사용하며 항상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다. 모든 측면의 일상생활은 인터넷 정보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청소년지도와 교육에 사용해야 한다. 진로지도에 있어서도 이론적 접근이 아닌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실천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Z세대는 세계시민을 지향하고 있다. Z세대는 스스로 세계시민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다.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사고의 한계로 그들을 막아서는 안 되며 진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여섯째, 'Z세대는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중시하는 세대(Francis & Hoefel, 2018)'이다. Z세대들이 사고의 중심에 두고 있는 '개인의 표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지와 정책, 다양한 활동은 청소년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 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일곱째, Z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한다. 특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타적 삶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은 낯선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삶을 위한 요소로 접근해야 한다. 공유와 나눔에 대한 삶의 맥락으로 직업과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Z세대의 행동은 진리에 기반한 것'이다. 기성세대가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Z세대는 밝혀 낼 것이다.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고 드러내며 여러 현상들에 대하여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 Ⅲ. 청소년 가치관 조사

- 1. 조사개요
- 2. 조사대상
- 3. 조사도구
- 4. 분석방법
- 5. 표본설계
- 6. 조사결과
- 7. 소결





# 청소년 가치관 조사

##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표 III-1>과 같이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20년 7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하였다.

표 III-1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 17개 시도의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표집틀	2019 교육통계연보
표본수	6,000명
표집방법	층화다단계집락표집
조사시기	2020년 7월~9월
조사방법	·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에 대해 협조공문 및 조사 안내문 발송 · 조사에 수락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원 방문조사 또는 우편조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층화다단계집락표집으로 6,000명을 목표로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이후 표본설계에 따라 선정된 학교에 협조공문과 안내문을 발송한 후 사전 접촉하여 조사에 수락한 학교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하였다. 올해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조사<sup>5)</sup> 또는 우편조사 중 해당 학교에서 희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조사에 앞서 면접원을 선발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의 배경 및 목적, 문항별 지침, 조사 시 유의사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면접원 수칙 등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였다.

## 2. 조사대상

표본 수 6,000명을 목표로 최종 5,740명이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2>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52.1%, 여자 청소년이 47.9%로 조사되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47.8%, 고등학생이 52.2%로 확인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39.2%,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46.0%,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14.9%로 나타났다.

표 III-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5,740	100.0
성별	남자	2,989	52.1
	여자	2,751	47.9
학교급	중학교	2,746	47.8
	고등학교	2,994	52.2
지역규모	대도시	2,247	39.2
	중소도시	2,638	46.0
	읍면지역	854	14.9

\* 주: 지역은 응답자의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5) 방문조사는 감염예방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하에 안전하게 진행하였음.

### 3. 조사도구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먼저 설문지 초안은 관련 연구를 검토한 후 연구진이 작성하였으며, 전문가 조사와 본 연구의 실행계획서 심의 과정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수정 설문지는 중간보고서 심의를 거쳐 다시 수정·보완하였다<sup>6)</sup>. 그리고 조사전문기관으로부터 문항의 이해도, 문항 로직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및 승인<sup>7)</sup>을 받아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그림 I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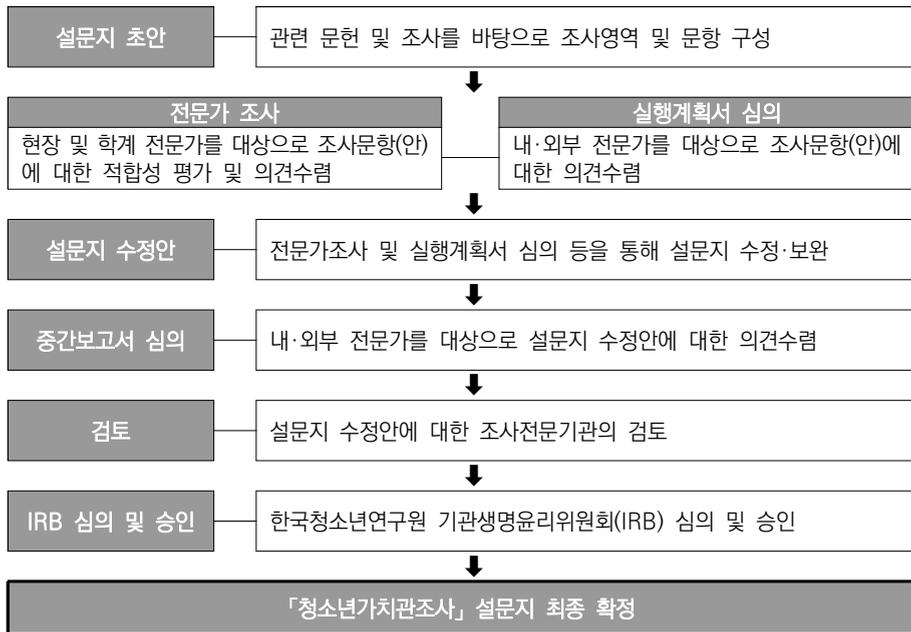


그림 III-1 설문지 개발절차

6) 실행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심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과제심의·평가 절차임.

7) 본 조사는 2020년 7월 8일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202007-HR-고유-013) 통보를 받음.

이상의 설문지 개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영역 구성 및 설문문항의 개발은 관련 조사 연구를 폭넓게 검토하여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사영역 및 설문문항의 활용성, 시의성, 비교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간의 가치관을 비교·분석하고, 가치관 추이에 따른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존 연구가 밀레니얼 세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상기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연구진은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김지연, 이경상, 2009)<sup>8)</sup>가 본 조사의 목적과 가장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조사영역 및 문항은 청소년 가치관에 대한 시계열적 비교·분석을 위해 2008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문항 검토과정에서 정책적 활용도와 시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문항 등을 삭제하였고 이로 인해 조사영역은 기존 7개에서 6개로 축소하였다. 최종 조사영역은 ‘인생관’, ‘가족 및 결혼관’, ‘진로 및 직업관’, ‘학교 및 친구관’, ‘사회 및 국가관’, ‘다문화의식’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설문문항은 조사대상자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의 문구 수정, 척도의 순서변경 및 문구수정 등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응답자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른 문항과 유사·중복되는 문항, 활용도가 낮은 문항, 시의성이 부족한 문항, 성차별적 문항, 당위적 문항 등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을 폭넓게 검토한 후 시의성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이외에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인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관계부처 합동, 2018)와 일부 조사문항 간의 관계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관련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완성된 조사영역 및 조사문항의 초안은 다음 <표 III-3>과 같다.

8) 조사기간(2008년 11월~12월) 및 조사대상자(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임희진 외, 2009)와 초등학교 입학연령(만 7세 기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의 조사대상자는 대부분 약 1990년~1995년생으로 추정됨.

표 III-3 조사영역 및 조사문항 초안

조사 영역	조사내용		변경내용	비고
	2008년(임희진 외, 2009)	2020년(안)		
인생관	나는 현재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현재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적도수정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한다	적도수정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적도수정	
	나는 현재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나는 현재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적도수정	
	나의 미래는 밝다	나의 미래는 밝다	적도수정	
	여러분은 미래의 일과 여가생활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일, 2)여가생활		삭제	타 문항과 유사
	여러분은 여가시간에 어떤 활동을 주로 합니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삭제	낮은 활용도
	여러분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가족, 2)동성친구, 3)이성친구, 4)이웃, 5)여가, 6)건강, 7)일, 8)종교, 9)학력, 10)권력, 11)돈	여러분은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가족, 2)동성친구, 3)이성친구, 4)이웃, 5)여가, 6)건강, 7)일, 8)종교, 9)학력, 10)권력, 11)돈	질문수정 적도수정	
	여러분은 믿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종교입니까?		삭제	낮은 활용도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삭제	낮은 활용도	
가족 및 결혼관	나는 가족과의 관계가 친밀하다	나는 가족과의 관계가 친밀하다	적도수정	
	나의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신다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나를 잘 이해하신다	질문/ 적도수정	
	나는 가족과의 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가족과의 생활에 만족한다	적도수정	
	부모님과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하여 대화를 자주 나눈다	부모님(보호자)과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하여 대화를 자주 나눈다	질문/ 적도수정	
	나는 형제자매와 사이좋게 지낸다		삭제	낮은 활용도/ 의의성 미흡
	형제자매보다 친구가 좋다		삭제	낮은 활용도/ 의의성 미흡
	친구보다 친척(4촌 이내)과 더 가깝게 지낸다		삭제	낮은 활용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삭제	성차별적 문항
	장남은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아야 한다		삭제	성차별적 문항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권위적이지 않고 민주적이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권위적이지 않고 민주적이다	적도수정	
	3대(조부모, 부모, 자녀)가 한 집에 함께 사는 것은 바람직하다		삭제	낮은 활용도/ 의의성 미흡
	결혼을 한 후 부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고 싶다	결혼을 한 후 부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고 싶다	적도수정	

조사 영역	조사내용		변경내용	비고
	2008년(임희진 외, 2009)	2020년(안)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가질 필요가 없다	추가	김신영 외(2007) 문항을 수정(척도수정)
	여러분은 가족과 대화할 때, 주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삭제	낮은 활용도
	여러분은 가족 중 누구와 주로 대화를 합니까?		삭제	낮은 활용도
	여러분은 평소에 가족과 얼마나 대화를 합니까?	평소에 가족과 대화를 자주 나눈다	질문/척도수정	
	여러분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삭제	낮은 활용도
		명절(설날, 추석 등)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	추가	시의성 반영
	여러분은 나이 든 부모님을 부양하는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다음 중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삭제	낮은 활용도/시의성 미흡
		부모님의 노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	통계청(2018) 문항을 수정(보기수정)
	여러분은 자녀를 기르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삭제	낮은 활용도
	결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 중에서 어느 쪽의 입장에 가깝습니까?	결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 중에서 어느 쪽의 입장에 가깝습니까?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일이다		삭제	성차별적 문항
	여자는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삭제	성차별적 문항
	여성이 결혼한 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삭제	성차별적 문항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 공동으로 가사분담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삭제	당위적 문항
	여러분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여러분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보기수정	
	장래에 희망하는 자녀 수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장래에 희망하는 자녀 수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자녀를 한 명만 가져야 한다면, 남자가 이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여자아이기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삭제	성차별적 문항
	여러분은 부모님이 어디까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고등학교 교육, 2)대학 교육, 3)대학원 교육, 4)대학연수 또는 해외유학, 5)취업준비, 6)결혼	여러분은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부모님이 어디까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4)취업할 때까지, 5)결혼할 때까지	질문/척도/보기수정	

조사 영역	조사내용		변경내용	비고
	2008년(임희진 외, 2009)	2020년(안)		
	다음에 제시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표해 주십시오. 1)동성애 2)낙태 3)이혼 4)혼전 성관계 5)동거 6)미혼모 7)입양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이혼 2)미혼모 3)입양	질문/척도 /보기수정	
진로 및 직업관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척도수정	
	미래의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에 가야한다	미래의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에 가야한다	척도수정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척도수정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척도수정	
	여러분의 장래 희망직업은 무엇입니까? 희망하는 순서대로 2개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시계열 비교 곤란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습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습니까?	질문/ 보기수정	
학교 및 친구관		나는 현재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추가	시의성 반영
	학교공부에 흥미가 있다	학교공부에 흥미가 있다	척도수정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릴 수 있다		삭제	낮은 활용도
	현재 다니는 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하다		삭제	낮은 활용도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존경한다	나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존경한다	질문/ 척도수정	
	선생님이 차별대우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		삭제	낮은 활용도
	학교에 다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	질문/ 척도수정	
	과외(개인 또는 학원)수업이 학교수업보다 낫다		삭제	낮은 활용도
	학원은 내가 다니고 싶어서 다닌다		삭제	낮은 활용도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나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삭제	낮은 활용도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삭제	낮은 활용도
	여러분은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왕따)을 당하거나 혹은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삭제	낮은 활용도
	여러분은 친구를 사귄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여러분은 친구를 사귄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질문/ 보기수정	
사회 및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해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이다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해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질문/ 척도수정	

조사 영역	조사내용		변경내용	비고
	2008년(임희진 외, 2009)	2020년(안)		
국가관	나는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한다		삭제	유사 문항
	우리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질문/척도수정	
	우리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척도수정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추가	최인재 외(2011) 문항을 수정(척도수정)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삭제	낮은 활용도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척도수정	
	한국에서 사는 것에 만족한다		삭제	낮은 활용도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척도수정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나라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삭제	낮은 활용도
	사는 나라에 관계없이 한민족은 모두 우리 형제자매이다		삭제	낮은 활용도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된다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질문/척도수정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척도수정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척도수정	
	내가 사는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경제개발사업이나 국제행사는 절대로 다른 지역에 양보할 수 없다		삭제	낮은 활용도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공헌을 위해 기부는 필요하다		삭제	당위적 문항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공헌을 위해 자원봉사는 필요하다		삭제	당위적 문항
	여러분은 다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해당보기의 칸에 ○표해 주십시오 1)부모님, 2)조부모님, 3)형제자매, 4)친구, 5)선배, 6)학교 선생님, 7)학원 선생님, 8)이웃, 9)대통령, 10)언론(TV, 신문), 11)국회의원	여러분은 다음의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신뢰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1)부모님(보호자), 2)친구, 3)학교 선생님, 4)이웃, 5)대통령, 6)언론(TV, 신문), 7)정치인(국회의원), 8)인터넷 정보, 9)SI(인공지능)	질문/척도/보기수정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	여러분은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		

조사 영역	조사내용		변경내용	비고
	2008년(임희진 외, 2009)	2020년(안)		
	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척도수정	
	부자는 존경의 대상이다		삭제	낮은 활용도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대우받는 것은 당연하다		삭제	낮은 활용도
	다음에 제시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표해 주십시오. 1)장기기증, 2)탈세, 3)뇌물수수, 4)안락사, 5)사형제도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장기기증, 2)안락사, 3)뇌물수수, 4)안락사, 5)사형제도	질문/척도/보기수정	
		나는 기회가 된다면 학교나 사회,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	추가	모경환 외(2010)의 '시민의식' 문항을 수정(척도수정)
		나는 나와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치인이나 국가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와 같은 국민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회가 된다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삭제	당위적 문항
	여러분은 다문화 사회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삭제	낮은 활용도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까?	척도수정	
다문화 의식	다문화 청소년을 친구로 맞이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	질문/척도수정	
	다문화 청소년을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		삭제	낮은 활용도/ 유사 문항
	다문화 청소년은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등과 동일하게 도움을 주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다		삭제	인권 침해적 문항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나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나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질문/척도수정	
통일 의식 및 북한관	여러분은 남북통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삭제	낮은 활용도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삭제	낮은 활용도
	여러분은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중 어느 나라가 가장 친숙하게 느껴집니까?		삭제	낮은 활용도
	북한은 ① 협력대상이다 ② 적대대상이다		삭제	낮은 활용도

조사 영역	조사내용		변경내용	비고
	2008년(임희진 외, 2009)	2020년(안)		
	북한은 ① 믿을 수 있다 ② 믿을 수 없다		삭제	낮은 활용도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이다		삭제	당위적 문항
	우리나라는 북한에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삭제	낮은 활용도
기타		최근 1년간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추가	임희진 외 (2018)와 관계부처 합동(2018)을 참고
		최근 1년간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의회, 학생회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추가	임희진 외 (2018)를 참고

이후 설문지 초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항별 적합성 평가 및 의견조사<sup>9)</sup>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2020년 2월 6일~2월 21일까지 청소년 관련 현장(5명) 및 학계(5명) 전문가 총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고려한 각 문항별 적합성 정도를 5점 척도(① 매우 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 적합)로 평가하고, 3점(보통) 이하의 점수를 체크한 문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신규 문항 등 관련 의견은 기타 의견란을 통해 수렴하였다.

연구진은 전문가조사를 토대로 문항을 유지, 삭제, 수정 및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별 적합성 평균점수가 4점 이상인 문항은 유지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4점 미만인 문항은 삭제하였다. 다만, 적합성 평균점수와 함께 전문가 의견, 그리고 정책적 활용도,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항의 유지, 삭제, 추가 등을 최종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평균점수가 4점 이상이지만 해당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를 반영하여 삭제하였다. 또한 적합성 평균점수가 4점 미만이지만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최상

9) 기타영역 제외

위 지표로써 정책적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삶의 만족도' 문항은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반영한 설문지 수정안은 다음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조사문항 수정안: 전문가 조사

조사 영역	조사문항(초안)	적합성평균 (4점이상)	검토 결과	비고	
인생 관	문1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	-		
	문1_1 나는 현재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	삭제		
	문1_2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한다	×	유지	높은 활용도	
	문1_3 나는 지금 행복하다	○	수정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로 수정	
	문1_4 나는 현재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	삭제		
	문1_5 나의 미래는 밝다	○	유지		
	문2 여러분은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중요한 편이다 ④ 매우 중요하다	-	-		
	문2_1 가족	○	유지		
	문2_2 동성친구	○	유지		
	문2_3 이성친구	○	유지		
	문2_4 이웃	○	유지		
	문2_5 여가	○	유지		
	문2_6 건강	○	유지		
	문2_7 일	○	수정	'일(직업)'로 수정	
	문2_8 종교	○	유지		
	문2_9 학력	○	유지		
	문2_10 권력	○	삭제	유사 문항	
			-	추가	'명예' 추가
	문2_11 돈	○	유지		
가족 및 결 혼 관	문3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	-		
	문3_1 나는 가족과의 관계가 친밀하다	○	삭제	낮은 활용도	
	문3_2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나를 잘 이해하신다	○	삭제	낮은 활용도	

조사 영역	조사문항(초안)	적합성평균 (4점이상)	검토 결과	비고
	문3_3 나는 가족과의 생활에 만족한다	○	유지	
	문3_4 부모님(보호자)과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하여 대화를 자주 나눈다	×	삭제	
	문3_5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권위적이지 않고 민주적이다	×	삭제	
	문3_6 결혼을 한 후 부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고 싶다	○	유지	
	문3_7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가질 필요가 없다	○	수정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다'로 수정
	문3_8 평소에 가족과 대화를 자주 나눈다	○	삭제	낮은 활용도
	문3_9 명절(설날, 추석 등)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	○	유지	
	문4 부모님의 노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 구성원으로서 부모 부양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① 스스로 해결 ② 가족 ③ 정부·사회	○	수정	'① 부모님 스스로 해결'로 수정
	문5 결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 중에서 어느 쪽의 입장에 가깝습니까? ①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②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 ③ 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	유지	
	문6 여러분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성격 ② 경제력(재산, 수입) ③ 장래성 ④ 자라온 환경 ⑤ 종교 ⑥ 외모 ⑦ 취미 ⑧ 학력 ⑨ 기타( )	○	수정	문구(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추가
	문7 장래에 희망하는 자녀 수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명(없으면 '0'명)	○	유지	
	문8 여러분은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부모님이 어디까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 ② 일부만을 부담 ③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	-	-	
	문8_1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	유지	
	문8_2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	유지	
	문8_3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	유지	
	문8_4 취업할 때까지	○	유지	
	문8_5 결혼할 때까지	○	유지	
	문9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전혀 동의안함 ~ ⑩ 매우 동의함	-	-	
	문9_1 이혼	○	유지	
	문9_2 미혼모	○	유지	
	문9_3 입양	○	유지	
진로 및 직업관	문10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	-	

조사 영역	조사문항(초안)	적합성평균 (4점이상)	검토 결과	비고
	문10_1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	유지	
	문10_2 미래의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	○	유지	
	문10_3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	유지	
	문10_4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유지	
	문11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습니까? ① 자신의 능력 ② 대중적 인기 ③ 직업의 장래성 ④ 경제적 수입 ⑤ 자신의 적성 ⑥ 사회 기여도 ⑦ 사회적 지위 ⑧ 안정성 ⑨ 의사결정권 ⑩ 창의성 발휘 ⑪ 자아성취 ⑫ 기타( )	○	수정	문구(하나만 선택해주세요) 추가
학교 및 친 구관	문12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	-	
	문12_1 나는 현재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	유지	
	문12_2 학교공부에 흥미가 있다	○	삭제	낮은 활용도
	문12_3 나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존경한다	×	삭제	
	문12_4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	○	유지	
문13 여러분은 친구를 사귄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① 춤, 노래, 운동, 유머 등 재주가 있는 것 ② 리더십이 있는 것 ③ 취미가 비슷한 것 ④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 ⑤ 학교생활에 성실한 것 ⑥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⑦ 함께 있으면 즐거운 것 ⑧ 성격이 좋은 것	○	유지		
사회 및 국 가관	문14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	-	
	문14_1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해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	유지	
	문14_2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	유지	
	문14_3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	유지	
	문14_4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	유지	
	문14_5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	유지	
	문14_6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	유지	
	문14_7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	유지	
	문14_8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	유지	
	문14_9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	유지	
문14_10 나는 기회가 된다면 학교나 사회,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	삭제	낮은 활용도	

조사 영역	조사문항(초안)	적합성평균 (4점이상)	검토 결과	비고
	참여할 생각이다			
	문14_11 나는 나와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삭제	낮은 활용도
	문14_12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	삭제	낮은 활용도
	문14_13 나는 정치인이나 국가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삭제	낮은 활용도
	문14_14 나는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와 같은 국민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삭제	낮은 활용도
	문14_15 나는 기회가 된다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한다	○	삭제	낮은 활용도
	문15 여러분은 다음의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신뢰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믿을 수 없는 편이다 ③ 믿을 수 있는 편이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	-	
	문15_1 부모님(보호자)	○	유지	
	문15_2 친구	○	유지	
	문15_3 학교 선생님	○	유지	
	문15_4 이웃	○	유지	
	문15_5 대통령	○	삭제	유사 문항
	문15_6 언론(TV, 신문)	○	유지	
	문15_7 정치인(국회의원)	○	수정	'정치인'으로 수정
		-	추가	'공무원' 추가
	문15_8 인터넷 정보	○	유지	
	문15_9 AI(인공지능)	○	유지	
	문16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 ⑩ 매우 믿을 수 있다	○	유지	
	문17 여러분은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① 전혀 관심 없다 ~ ⑩ 매우 관심 있다	○	유지	
	문18 여러분은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유지	
	문19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낮추어야 한다 ② 지금이 적당하다 ③ 높여야 한다	○	유지	
	문20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전혀 동의 안함 ~ ⑩ 매우 동의함	-	-	
	문20_1 장기기증	○	유지	
	문20_2 안락사	○	유지	

조사 영역	조사문항(초안)	적합성평균 (4점이상)	검토 결과	비고
다문화의식	문21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	-	
	문21_1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까?	○	수정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로 수정
	문21_2 다문화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	○	유지	
	문21_3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나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	수정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나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로 수정

이상의 전문가 조사와 함께 본 연구의 실행계획서 심의(2020년 3월 5일) 과정을 통해 내·외부 전문가들에게 설문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연구진 간 논의를 거쳐 조사문항에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남북통일, 환경보존, 동성애, 소비 등과 같이 시의성 있는 문항들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일부 조사문항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포함하였던 기타문항은 아래의 <표 III-5>와 같이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지원' 문항으로 수정하고 '사회 및 국가관'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중간보고서 심의(2020년 6월 4일)를 통해 내·외부 심사위원들에게 설문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시의성이 있는 코로나19 관련 문항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를 위탁 수행하는 조사전문기관으로부터 설문 문항의 이해도, 난이도, 문항로직의 적절성 및 설문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의견을 받고,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청소년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실행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심의, 조사전문기관의 검토 등을 통한 설문지 수정안은 다음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조사문항 수정안: 실행계획서·중간보고서 심의

조사 영역	조사문항 2차 수정안	변경 내용	비고
인생 관	문1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수정	단어(가장) 추가
	문1_1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한다		
	문1_2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문1_3 나의 미래는 밝다		
	문2 여러분은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중요한 편이다 ④ 매우 중요하다	수정	단어(가장) 추가
	문2_1 가족		
	문2_2 동성친구		
	문2_3 이성친구		
	문2_4 이웃		
	문2_5 여가		
	문2_6 건강		
	문2_7 일(직업)		
	문2_8 종교		
	문2_9 학력		
	문2_10 명예		
문2_11 돈			
문3 여러분은 물건을 구입할 때 다음 중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가격 ② 품질 ③ 디자인 ④ 유행 ⑤ 브랜드(상표)	추가	윤철경 외(2003) 문항을 수정(질문/척도 수정)	
가족 및 결혼 관	문4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수정	단어(가장) 추가
	문4_1 나는 가족과의 생활에 만족한다		
	문4_2 결혼을 한 후 부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고 싶다		
	문4_3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4_4 명절(설날, 추석 등)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		
	문5 부모님의 노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부모님 스스로 해결 ② 가족 ③ 정부·사회	수정	통일성을 위해 지시문 삭제 및 문구(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추가
문6 결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 중에서 어느 쪽의 입장에 가깝습니까? ①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②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 ③ 본인이 원한다			

조사 영역	조사문항 2차 수정안	변경 내용	비고
	면 하지 않아도 된다		
	문7 여러분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성격 ② 경제력(재산, 수입) ③ 장래성 ④ 자라온 환경 ⑤ 종교 ⑥ 외모 ⑦ 취미 ⑧ 학력 ⑨ 기타( )		
	문8 장래에 희망하는 자녀 수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_____명(없으면 '0'명)		
	문9 여러분은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부모님이 어디까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 ② 일부만을 부담 ③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		
	문9_1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문9_2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문9_3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문9_4 취업할 때까지		
	문9_5 결혼할 때까지		
	문10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전혀 동의안함 ~ ⑩ 매우 동의함		
	문10_1 이혼		
	문10_2 미혼모		
	문10_3 입양		
	문10_4 동성애	추가	임희진 외 (2009년)
	문11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수정	단어(가장) 추가
	문11_1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진로 및 직업관	문11_2 미래의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에 가야한다		
	문11_3 진로나 직업은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수정	질문 수정
	문11_4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12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습니까?(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자신의 능력 ② 대중적 인기 ③ 직업의 장래성 ④ 경제적 수입 ⑤ 자신의 적성 ⑥ 사회 기여도 ⑦ 사회적 지위 ⑧ 안정성 ⑨ 의사결정권 ⑩ 창의성 발휘 ⑪ 자아성취 ⑫ 기타( )		
	문13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학교 및 친구관	문13_1 나는 현재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문13_2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		
	문14 여러분은 친구를 사귄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춤, 노래, 운동, 유머 등 재주가 있는 것 ② 리더십이	수정	문구(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추가

조사 영역	조사문항 2차 수정안	변경 내용	비고
	있는 것 ③ 취미가 비슷한 것 ④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 ⑤ 학교생활에 성실한 것 ⑥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⑦ 함께 있으면 즐거운 것 ⑧ 성격이 좋은 것		
	문15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온라인을 통한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15_1 온라인 수업	추가	
	문15_2 온라인 청소년활동(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 진로탐색 활동 등)		
	문16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수정	단어(가장) 추가
	문16_1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해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문16_2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문16_3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문16_4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문16_5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이다	추가	
	문16_6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문16_7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문16_8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문16_9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사회 및 국가관	문16_10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문16_11 나는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추가	임희진 외(2009) 문항을 수정(질문/척도 수정)
	문16_12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청소년활동(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등)에 참여할 기회와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수정/이동	문항 수정 및 이동 (기타→사회/국가관)
	문16_13 나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면 내 개인적 권리 일부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	추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0) 문항을 수정 (질문/척도수정)
	문17 여러분은 다음의 대상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믿을 수 없는 편이다 ③ 믿을 수 있는 편이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수정	지시문 문구 수정 * 질문의 문구 수정 (IRB 권고 사항)
	문17_1 부모님(보호자)		
	문17_2 친구		
	문17_3 학교 선생님		
	문17_4 이웃		

조사 영역	조사문항 2차 수정안	변경 내용	비고
	문17_5 언론(TV, 신문)		
	문17_6 정치인		
	문17_7 공무원		
	문17_8 인터넷 정보		
	문17_9 AI(인공지능)		
	문18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 ⑩ 매우 믿을 수 있다		
	문19 여러분은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① 전혀 관심 없다 ~ ⑩ 매우 관심 있다		
	문20 여러분은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1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낮추어야 한다 ② 지금이 적당하다 ③ 높여야 한다		
	문22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전혀 동의 안함 ~ ⑩ 매우 동의함		
	문22_1 장기기증		
	문22_2 안락사		
	문23 환경보존이 여러분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중요한 편이다 ④ 매우 중요하다	추가	곽소윤 외(2016) 문항을 수정(질문/척도 수정)
다문화의식	문24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수정	단어(가장) 추가
	문24_1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문24_2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	수정	임희진 외(2012) 문항을 수정(척도수정)
	문24_3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수정	질문 수정

이러한 절차를 거쳐 완성된 설문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승인번호: 202007-HR-고유-013)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질문(문17)의 문구 수정을 권고 받아 최종 수정하였다(〈표 III-5〉).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최종 조사영역 및 조사문항은 다음 〈표 III-6〉과 같다.

10) 성별 외에 분석에서 활용한 배경변인인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과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는 응답자의 학교(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표 III-6 조사영역 및 조사문항

조사 영역	조사내용	문항	
		문항수	문항번호
인생관	삶의 만족도	1	문1-1
	행복감	1	문1-2
	미래에 대한 전망	1	문1-3
	중요도(가족, 동성친구, 이성친구, 이웃, 여가, 건강, 일(직업), 종교, 학력, 명예, 돈)	11	문2-1~11
	물건 구입 시 고려사항	1	문3
결혼 및 가족관	가족생활 만족도	1	문4-1
	결혼 후 부모 부양	1	문4-2
	결혼 후 자녀에 대한 생각	1	문4-3
	명절에 대한 생각	1	문4-4
	부모 부양 주체	1	문5
	결혼에 대한 인식	1	문6
	배우자 선택 기준	1	문7
	희망 자녀 수	1	문8
	부모님의 비용 부담(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5	문9-1~5
수용도(이혼, 미혼모, 입양, 동성애)	4	문10-1~4	
진로 및 직업관	인생목표	1	문11-1
	대학 진학의 필요성	1	문11-2
	진로 및 직업 선택의 주도성	1	문11-3
	직업 낙관성	1	문11-4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	1	문12
학교 및 친구관	학교생활 만족도	1	문13-1
	학교에 대한 견해	1	문13-2
	친구 선택 기준	1	문14
	온라인 활동에 대한 견해(온라인 수업, 온라인 청소년활동)	2	문15-1~2
사회 및 국가관	길거리에서 위험 시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임에 관한 견해	1	문16-1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공정	1	문16-2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인권 존중	1	문16-3

조사 영역	조사내용	문항	
		문항수	문항번호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다양성 인정	1	문16-4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남녀평등	1	문16-5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1	문16-6
	나라가 위급 시 무엇이든 하겠는지에 관한 견해	1	문16-7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조에 관한 견해	1	문16-8
	집단 이익을 위한 나의 희생에 관한 견해	1	문16-9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 설치에 관한 견해	1	문16-10
	남북통일의 필요성	1	문16-11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지원	1	문16-12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권리 희생에 관한 견해	1	문16_13
	신뢰도(부모님(보호자), 친구, 학교 선생님, 이웃, 언론, 정치인, 공무원, 인터넷 정보, AI(인공지능))	9	문17-1~9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1	문18
	정치에 대한 관심도	1	문19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	1	문20
	투표 연령의 적절성	1	문21
	수용도(장기기증, 안락사)	2	문22-1~2
	환경보존의 중요성	1	문23
다문화 의식	다문화 사회의 국가 발전에 관한 견해	1	문24-1
	다문화 청소년 친구에 관한 견해	1	문24-2
	다문화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견해	1	문24-3
배경 변인 <sup>10)</sup>	성별	1	-

\* 주: 각 조사내용의 출처는 <표 III-3>~<표 III-5>에 제시되어 있음.

#### 4. 분석방법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분석은 빈도분석과 배경변인에 따른 t 검증, ANOVA(사후검증 Scheffe),  $\chi^2$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배경변인은 성별(남자, 여자),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관련 통계결과를 함께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관련 통계로는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I: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윤철경, 조아미, 백지숙, 유혜림, 2003), ‘한국 청소년 가치관 조사연구’(김신영 외, 2007),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등의 결과를 활용하였다(〈표 III-7〉). 이 중 주로 활용된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써 우리나라 및 인접국가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총 4차례(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에 걸쳐 추진되었고, 2015년에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통합되었다(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표 III-7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중 한국의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표집틀	교육통계연보
표본추출방법	층화집락추출법에 의해 2,000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
유효표본수	2,140명
조사시기	2008년 11월~12월
조사방법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 출처 : 임희진 외(2009).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pp.9-12. 재구성

## 5. 표본설계<sup>11)</sup>

### 1) 모집단 분석

####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 (2) 모집단 분석

먼저 17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수를 <표 III-8>과 <표 III-9>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2,705,386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수는 중학교 1,294,359명(47.8%), 고등학교 1,411,027명(52.2%)이다.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및 학생수 분포는 <표 III-9>~<표 III-13>에 정리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유형 1(일반고): 일반고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 유형 2(자율고):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 유형 3(특성화고): 가사, 공업, 농림업, 대안, 상업, 수산, 실업, 체육, 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 중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중 체육, 예술고등학교
- 유형 4(특수목적고): 특수목적고 중 과학, 국제, 외국어고등학교

---

11) 이 부분은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집필하였음. 표본설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표 III-8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구분	학생수			학교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8,565	66,073	72,775	384	384	385
경기	119,544	112,503	120,985	629	629	629
인천	24,902	23,934	25,622	135	134	135
강원	12,186	12,314	13,201	160	161	162
충북	13,479	13,130	14,230	126	126	126
충남	18,885	17,962	19,148	186	186	185
대전	13,387	13,000	14,345	88	88	88
세종	4,057	3,561	3,584	24	24	24
경북	20,267	19,945	21,123	262	259	260
경남	29,600	28,468	30,566	263	261	260
부산	24,093	23,592	25,653	170	170	172
대구	20,279	20,352	21,908	125	125	123
울산	10,378	9,943	10,614	63	63	63
전북	15,818	15,852	16,978	207	208	209
전남	15,099	14,597	15,895	245	245	246
광주	14,243	13,734	15,091	90	90	90
제주	6,400	6,154	6,345	45	45	45
합계	431,182	415,114	448,063	3,202	3,198	3,202

표 III-9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48,773	46,560	53,623	10,950	11,177	11,999	16,239	15,342	16,409	1,900	1,908	1,809
경기	98,834	92,897	104,579	3,506	3,348	3,624	16,492	16,214	17,422	2,472	2,371	2,409
인천	17,706	16,640	18,948	1,904	1,685	1,749	5,776	5,497	6,215	787	772	722
강원	10,703	10,742	12,063	156	156	146	2,676	2,628	2,780	182	173	165
충북	8,463	8,372	9,771	1,353	1,280	1,459	4,119	4,137	4,401	242	243	213
충남	13,547	12,995	14,647	1,756	1,715	1,807	4,360	4,183	4,796	215	202	210
대전	9,293	8,693	9,880	2,402	2,286	2,545	2,682	2,741	3,136	425	416	396
세종	2,924	2,475	2,345	209	208	209	189	197	135	203	194	187
경북	15,343	14,886	17,244	2,259	2,265	2,491	5,497	5,100	5,578	222	211	176
경남	23,452	22,672	26,036	2,177	2,228	2,436	4,433	4,297	4,658	512	507	441
부산	16,238	15,761	18,305	2,668	2,631	3,096	6,958	6,411	7,302	962	932	868
대구	13,625	13,140	15,612	3,926	3,840	4,372	5,258	4,874	5,377	323	320	278
울산	7,993	7,300	8,953	620	583	699	2,121	2,309	2,637	233	217	201
전북	13,531	13,448	14,967	820	840	953	3,589	3,674	4,317	226	216	188
전남	10,168	10,095	11,607	1,689	1,681	1,846	4,831	4,853	5,391	213	209	172
광주	12,205	11,552	13,455	690	709	781	3,047	2,993	3,329	93	97	97
제주	4,674	4,283	4,912	.	.	.	1,759	1,767	1,922	139	131	120
합계	327,472	312,511	356,947	37,085	36,632	40,212	90,026	87,217	95,805	9,349	9,119	8,652

표 III-10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9	189	189	40	40	40	81	81	81	10	10	10
경기	367	366	364	13	13	13	82	82	82	13	13	13
인천	80	79	80	8	8	8	31	31	31	6	6	6
강원	85	85	85	1	1	1	28	28	28	2	2	2
충북	47	47	47	6	6	6	29	29	29	2	2	2
충남	68	68	68	9	9	9	38	38	38	2	2	2
대전	38	38	38	7	7	7	14	14	14	3	3	3
세종	13	12	12	1	1	1	2	2	1	2	2	2
경북	113	113	113	12	12	12	56	56	56	3	3	3
경남	137	137	137	10	10	10	39	39	39	4	4	4
부산	82	82	82	14	14	14	40	40	41	6	6	6
대구	52	52	52	16	16	16	22	22	22	3	3	3
울산	39	39	39	3	3	3	13	13	13	2	2	2
전북	94	94	94	3	3	3	34	34	34	2	2	2
전남	77	77	77	8	8	8	55	55	55	2	2	2
광주	47	47	47	3	3	3	16	16	16	1	1	1
제주	18	18	18	.	.	.	10	10	10	2	2	2
합계	1,546	1,543	1,542	154	154	154	590	590	590	65	65	65

표 III-11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구분	남학생수			여학생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5,736	34,567	37,895	32,829	31,506	34,880
경기	61,339	57,766	62,195	58,205	54,737	58,790
인천	12,925	12,350	13,209	11,977	11,584	12,413
강원	6,344	6,412	6,887	5,842	5,902	6,314
충북	6,900	6,836	7,475	6,579	6,294	6,755
충남	9,823	9,239	9,915	9,062	8,723	9,233
대전	6,919	6,785	7,431	6,468	6,215	6,914
세종	2,069	1,770	1,772	1,988	1,791	1,812
경북	10,674	10,435	11,228	9,593	9,510	9,895
경남	15,437	14,814	16,153	14,163	13,654	14,413
부산	12,421	12,245	13,257	11,672	11,347	12,396
대구	10,568	10,676	11,469	9,711	9,676	10,439
울산	5,404	5,251	5,627	4,974	4,692	4,987
전북	8,153	8,326	8,773	7,665	7,526	8,205
전남	7,751	7,513	8,337	7,348	7,084	7,558
광주	7,394	7,087	7,854	6,849	6,647	7,237
제주	3,342	3,258	3,336	3,058	2,896	3,009
합계	223,199	215,330	232,813	207,983	199,784	215,250

표 III-12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4,221	23,163	26,685	7,394	7,572	8,027	7,528	7,027	7,593	710	708	647
경기	51,176	48,435	54,438	1,794	1,695	1,783	8,854	8,829	9,459	805	791	761
인천	9,021	8,583	9,772	1,066	979	995	3,050	2,873	3,225	381	391	337
강원	5,305	5,346	6,028	86	84	79	1,660	1,743	1,834	92	88	83
충북	4,191	4,147	4,832	834	771	895	2,296	2,390	2,442	116	103	70
충남	6,785	6,605	7,265	1,075	1,031	1,065	2,568	2,559	2,854	86	84	64
대전	4,321	4,080	4,693	1,736	1,642	1,807	1,483	1,541	1,783	197	209	174
세종	1,439	1,212	1,117	108	104	106	109	128	116	102	92	91
경북	7,474	7,213	8,302	1,451	1,440	1,603	3,524	3,350	3,617	117	114	78
경남	11,389	10,951	12,566	1,677	1,717	1,930	2,867	2,833	3,086	245	237	180
부산	7,928	7,838	8,915	1,500	1,495	1,688	4,222	3,860	4,466	477	470	431
대구	6,747	6,741	7,844	1,946	1,950	2,197	3,291	3,074	3,378	172	167	132
울산	4,108	3,714	4,657	355	337	387	1,315	1,379	1,610	109	90	79
전북	6,426	6,547	7,120	698	721	825	2,276	2,397	2,677	94	84	56
전남	4,754	4,637	5,333	1,186	1,200	1,361	2,746	2,892	3,231	91	104	72
광주	6,114	5,761	6,645	467	480	526	1,752	1,681	1,858	72	84	73
제주	2,396	2,259	2,530	.	.	.	986	1,004	1,076	68	72	49
합계	163,795	157,232	178,742	23,373	23,218	25,274	50,527	49,560	54,305	3,934	3,888	3,377

표 III-1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4,552	23,397	26,938	3,556	3,605	3,972	8,711	8,315	8,816	1,190	1,200	1,162
경기	47,658	44,462	50,141	1,712	1,653	1,841	7,638	7,385	7,963	1,667	1,580	1,648
인천	8,685	8,057	9,176	838	706	754	2,726	2,624	2,990	406	381	385
강원	5,398	5,396	6,035	70	72	67	1,016	885	946	90	85	82
충북	4,272	4,225	4,939	519	509	564	1,823	1,747	1,959	126	140	143
충남	6,762	6,390	7,382	681	684	742	1,792	1,624	1,942	129	118	146
대전	4,972	4,613	5,187	666	644	738	1,199	1,200	1,353	228	207	222
세종	1,485	1,263	1,228	101	104	103	80	69	19	101	102	96
경북	7,869	7,673	8,942	808	825	888	1,973	1,750	1,961	105	97	98
경남	12,063	11,721	13,470	500	511	506	1,566	1,464	1,572	267	270	261
부산	8,310	7,923	9,390	1,168	1,136	1,408	2,736	2,551	2,836	485	462	437
대구	6,878	6,399	7,768	1,980	1,890	2,175	1,967	1,800	1,999	151	153	146
울산	3,885	3,586	4,296	265	246	312	806	930	1,027	124	127	122
전북	7,105	6,901	7,847	122	119	128	1,313	1,277	1,640	132	132	132
전남	5,414	5,458	6,274	503	481	485	2,085	1,961	2,160	122	105	100
광주	6,091	5,791	6,810	223	229	255	1,295	1,312	1,471	21	13	24
제주	2,278	2,024	2,382	.	.	.	773	763	846	71	59	71
합계	163,677	155,279	178,205	13,712	13,414	14,938	39,499	37,657	41,500	5,415	5,231	5,275

## 2) 표본설계

###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에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2pq}{Nd^2 + z^2pq}$$

여기에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6,000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3\%$ P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2)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20년 4월 교육통계DB 기준의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광역 시도 (17개)
- 학교구분 : 중학교, 고등학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5개)
- 학년 (3개)

단, 고등학교 중 유형 2(자율고)와 유형 3(특성화고)은 광역시도별로 층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층화한다. 또한 유형 4(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표 III-14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 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중학교	중학교	1	431,182	1,294,359 (47.8%)	2,871 (47.8%)	2,808 (46.7%)				
		2	415,114							
		3	448,063							
고등학교	유형 1 (일반고)	1	327,472	996,930 (36.8%)	2,208 (26.8%)	3,129 (52.2%)	2,100 (34.9%)			
		2	312,511							
		3	356,947							
	유형 2 (자율고)	1	37,085	113,929 (4.2%)	252 (4.2%)	3,129 (52.2%)	3,204 (53.3%)	390 (6.5%)		
		2	36,632							
		3	40,212							
	유형 3 (특성학교)	1	90,026	273,048 (10.1%)	605 (10.1%)	3,129 (52.2%)	3,204 (53.3%)	576 (9.6%)		
		2	87,217							
		3	95,805							
	유형 4 (특수 목적고)	1	9,349	27,120 (1.0%)	60 (1.0%)	3,129 (52.2%)	3,204 (53.3%)	138 (2.3%)		
		2	9,119							
		3	8,652							
합계			2,705,386 (100.0%)	1,411,027 (52.2%)	6,000 (100.0%)	3,129 (52.2%)	6,012 (100.0%)			

표 III-15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구분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59	330	44	181	60
경기	782	656	62	84	
인천	165	118			
강원	84	74	40	94	
충북	90	59			
충남	124	91			
대전	90	62			
세종	25	17			
경북	136	105	67	193	
경남	196	160			
부산	162	111			
대구	139	94			
울산	69	54	38	53	
전북	108	93			
전남	101	71			
광주	95	82			
제주	42	31			
합계	2,867	2,208	252	605	60

\* 총계: 6,000명

표 III-16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구분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7.7	12.7	1.7	7.0	2.3	
경기	30.1	25.2	2.4	3.2		
인천	6.3	4.5				
강원	3.2	2.9	1.5	3.6		
충북	3.5	2.3				
충남	4.8	3.5				
대전	3.5	2.4				
세종	1.0	0.7				
경북	5.2	4.0	2.6	7.4		
경남	7.6	6.1				
부산	6.2	4.3				
대구	5.3	3.6				
울산	2.6	2.1				
전북	4.1	3.6	1.5	2.0		
전남	3.9	2.7				
광주	3.7	3.2				
제주	1.6	1.2				
합계	110.3	84.9				9.7

\* 총계: 230.4개

표 III-17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구분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8(6)	12(4)	3(1)	6(2)	6(2)	
경기	27(9)	21(7)	3(1)	3(1)		
인천	6(2)	6(2)				
강원	3(1)	3(1)	3(1)	3(1)		
충북	3(1)	3(1)				
충남	6(2)	3(1)				
대전	3(1)	3(1)				
세종	3(1)	3(1)				
경북	6(2)	3(1)	3(1)	9(3)		
경남	6(2)	6(2)				
부산	6(2)	3(1)				
대구	6(2)	3(1)				
울산	3(1)	3(1)				
전북	3(1)	3(1)	3(1)	3(1)		
전남	3(1)	3(1)				
광주	3(1)	3(1)				
제주	3(1)	3(1)				
합계	108(36)	84(28)	15(5)	24(8)		6(2)

\*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237(79)개

표 III-18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구분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68	300	78	144	138	
경기	702	525	78	72		
인천	156	150				
강원	78	75	78	72		
충북	78	75				
충남	156	75				
대전	78	75				
세종	78	75				
경북	156	75	78	216		
경남	156	150				
부산	156	75				
대구	156	75				
울산	78	75				
전북	78	75	78	72		
전남	78	75				
광주	78	75				
제주	78	75				
합계	2,808	2,100				390

\* 총계: 6,012명

### (3) 표본배분

학생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45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III-15>와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로 나누면 <표 III-16>과 같이 조사될 학교수가 할당된다. 결론적으로 총 230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라 지역의 자율고 고등학교에 38명(학년당 약 13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한 학급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므로 실제로는 학년당 약 25명의 학생이 조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목표한 것보다 커지게 된다. 아니면 전라 지역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한 학급에서 13명만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표 III-14>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 하에 학교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45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가 할당 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조사될 예상 학생수가 6,000명을 넘도록 한다.

조사모집단의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대략 중학교 26명, 고등학교 25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수를 계산하면 <표 III-17> 및 <표 III-18>과 같다.

#### (4)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III-17>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62개 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 (5)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 3) 가중치와 모수추정

####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에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한 학생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설계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 = \frac{\sum_{i=1}^{N_h} B_{hi}}{n_h n_{hi}}$$

그리고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최초 목표 표본크기( $n_{hi}$ )를 유효 표본크기( $r_{hi}$ )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즉, 기본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times \frac{n_{hi}}{r_{hi}} = \frac{\sum_{i=1}^{N_h} B_{hi}}{n_h r_{hi}}$$

여기에서  $r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가 완료된 학생수를 나타낸다.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 $k=1,2$ )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에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 (2) 모수추정

###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 $h = 1, 2, \dots, H$ ).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 $i = 1, 2, \dots, n_h$ )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 $j = 1, 2, \dots, m_{hi}$ )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 전체 표본크기.

###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dots$  :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 표본 가중치의 합계

###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 $k = 1, \dots, l$ )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④ 분산의 추정

- $\widehat{V}(\bar{Y}) = \sum_{h=1}^H \widehat{V}_h(\bar{Y})$  :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n_h > 1$ 일 때,

$$\wide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2$$

$$e_{hi\cdot} = \left( \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i\cdot}$$

$$\bar{e}_{h..} = \left( \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h = 1$ 일 때,

$$\wide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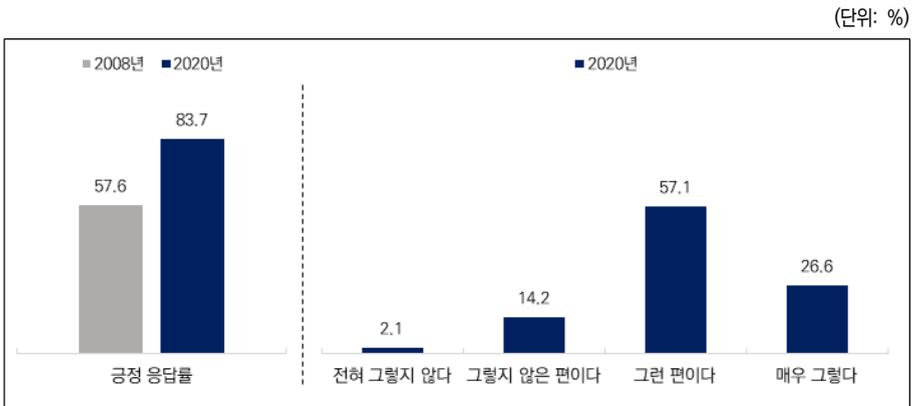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widehat{V}(\bar{Y})}$  :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 $\alpha=0.05$ )  $z_{\alpha/2}=1.96$ 임.

## 6. 조사결과<sup>12)</sup>

### 1) 인생관

#### (1) 삶의 만족도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6.0%, '별로 그렇지 않다' 36.5%, '다소 그렇다' 44.9%, '매우 그렇다' 12.7%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 그림 Ⅲ-2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한다(2008년, 2020년)

청소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확인한 결과, 청소년들의 83.7%가 삶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그렇다 26.6%+그런 편이다 57.1%)고 응답하였다. 한편, 2008년도에 중고등학생 2,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 청소년 가치관

12) 청소년의 가치관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등 관련 통계결과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통계결과 간 비교 시 긍정 응답률(예를 들어,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을 중심으로 변화 추이를 살펴봄.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와 비교해보면, 삶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률은 2008년도(57.6%)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 따른 2020년도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남자 청소년(M=3.16)이 여자 청소년(M=3.00)보다( $t=8.751, p<.001$ ), 그리고 중학생(M=3.14)이 고등학생(M=3.03)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t=6.456, p<.001$ ).

표 III-19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한다(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1	14.2	57.1	26.6	3.08	0.697	-
성별	남자	2.1	12.5	52.6	32.7	3.16	0.715	8.751***
	여자	2.1	16.0	61.8	20.1	3.00	0.666	
학교급	중학교	1.8	11.8	56.6	29.8	3.14	0.684	6.456***
	고등학교	2.3	16.5	57.5	23.7	3.03	0.703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2.1	13.1	58.0	26.8	3.09	0.688	0.626
	중소도시 <sup>b</sup>	2.0	14.9	56.5	26.6	3.08	0.701	
	읍면지역 <sup>c</sup>	2.3	14.8	56.5	26.4	3.07	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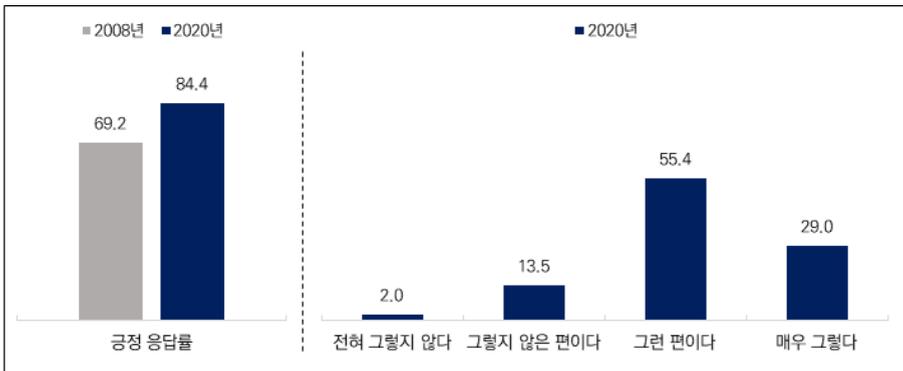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05$ , \*\* $p<.01$ , \*\*\* $p<.001$

## (2) 행복감

청소년들에게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4.4%가 행복하다(매우 그렇다 29.0%+그런 편이다 55.4%)고 반응하였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와 비교해보면, 행복하다는 응답은 2008년도(69.2%)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증가한 것은 매우 중요하며 긍정적인 변화이다. 한편,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는 개인, 가족, 학교, 사회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해섭 외, 2019; 유진은, 노민정, 2017). 특히,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22개 OECD 국가 가운데 21위로 나타나 사실상 최하 수준(오해섭 외, 2019)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문항은 '나는 지금 행복하다', 2020년 문항은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임.  
 2)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3.5%, '별로 그렇지 않다' 27.3%, '다소 그렇다' 48.8%, '매우 그렇다' 20.4%임.  
 3)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그림 III-3 행복감(2008년, 2020년)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행복감’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M=3.17)이 여자 청소년(M=3.06)보다(t=5.807,  $p<.001$ ), 중학생(M=3.19)이 고등학생(M=3.0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감을 보였다(t=8.088,  $p<.001$ ).

표 Ⅲ-20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한다(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0	13.5	55.4	29.0	3.11	0.702	-	
성별	남자	2.2	12.5	51.7	33.5	3.17	5.807***	
	여자	1.8	14.6	59.3	24.2	3.06		0.677
학교급	중학교	1.5	11.2	53.9	33.5	3.19	8.088***	
	고등학교	2.5	15.7	56.8	25.0	3.04		0.711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1.9	13.9	55.3	28.9	3.11	0.010	
	중소도시 <sup>b</sup>	1.9	13.9	55.0	29.2	3.11		0.703
	읍면지역 <sup>c</sup>	2.8	11.6	56.7	28.9	3.12		0.709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05$ , \*\* $p<.01$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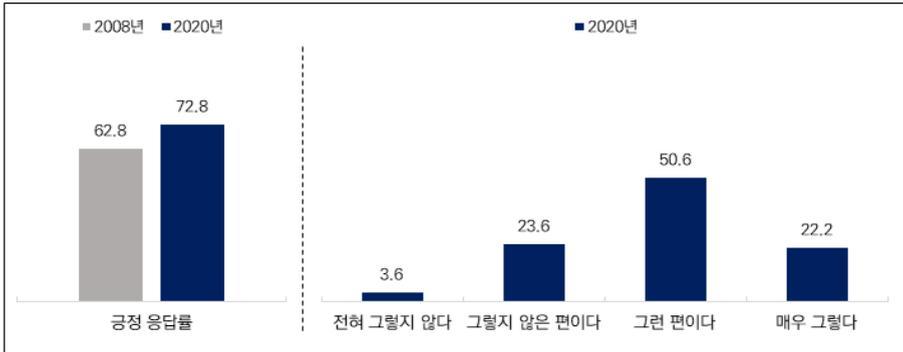
### (3) 미래에 대한 전망

‘나의 미래는 밝다’에 대해 청소년들의 10명 중 7명 정도(72.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22.2%+그런 편이다 50.6%)고 대답하였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62.8%)의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2008년도 대비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미래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자 청소년(M=2.99)

이 여자 청소년(M=2.84)보다(t=7.375,  $p<.001$ ), 그리고 중학생(M=2.96)이 고등학생(M=2.87)보다 자신의 미래를 더 밝게 전망하였다(t=4.210,  $p<.001$ ).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5.6%, '별로 그렇지 않다' 31.6%, '다소 그렇다' 40.4%, '매우 그렇다' 22.4%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그림 III-4 나의 미래는 밝다(2008년, 2020년)

표 III-21 나의 미래는 밝다(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6	23.6	50.6	22.2	2.91	0.771	-	
성별	남자	3.4	20.8	49.7	26.2	2.99	0.778	7.375***
	여자	3.8	26.7	51.7	17.8	2.84	0.755	
학교급	중학교	3.6	20.3	52.8	23.3	2.96	0.760	4.210***
	고등학교	3.6	26.7	48.6	21.1	2.87	0.778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3.8	22.4	51.7	22.1	2.92	0.769	0.196
	중소도시 <sup>b</sup>	3.4	24.0	50.4	22.1	2.91	0.768	
	읍면지역 <sup>c</sup>	3.4	25.6	48.3	22.6	2.90	0.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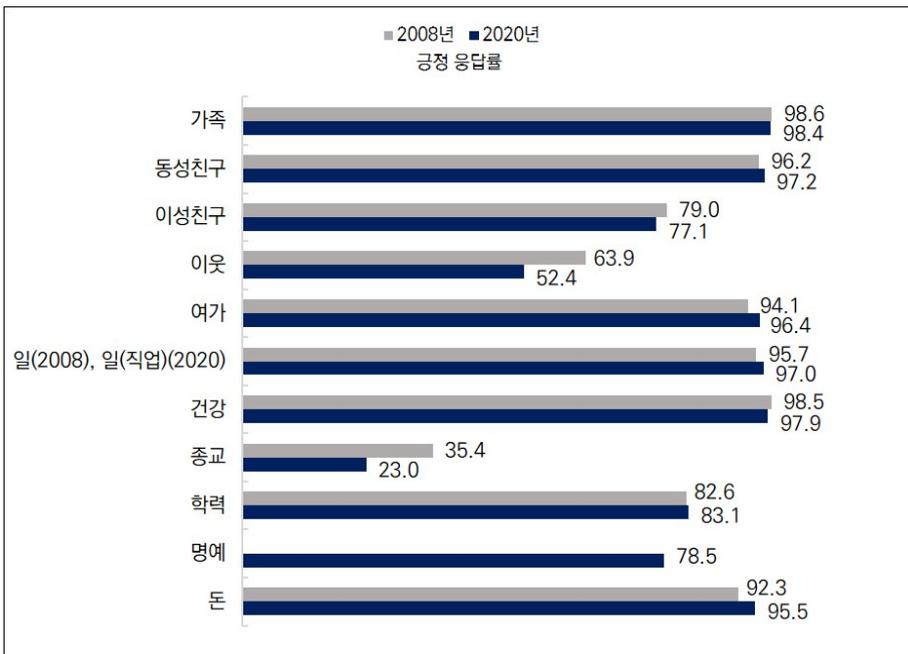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05$ , \*\* $p<.01$ , \*\*\* $p<.001$

#### (4) 인생에서 중요한 것

인생에서 가족, 동성친구, 이성친구, 이웃, 여가, 일, 건강, 종교, 학력, 명예, 돈의 11가지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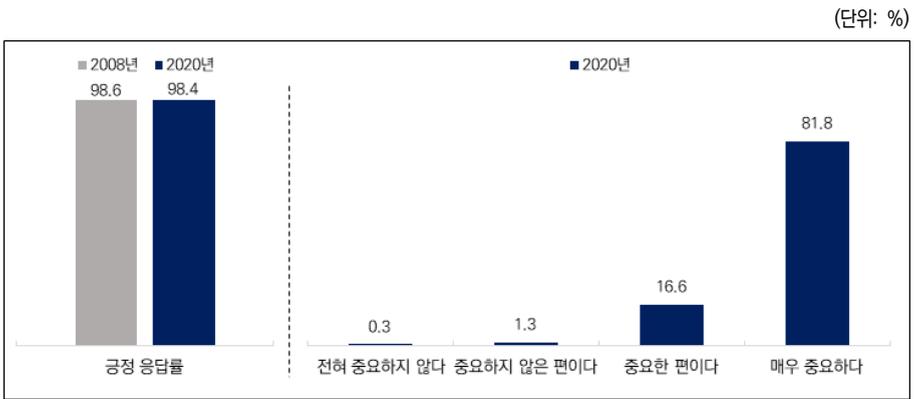
\* 주: 1) 2008년 긍정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다소 중요하다', 2020년 긍정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임.  
2) '명예'는 2020년도 신규문항임.

#### 그림 III-5 인생에서 중요한 것(2008년, 2020년): 긍정 응답률

긍정 응답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가족(98.4%), 건강(97.9%), 동성친구(97.2%), 일(97.0%), 여가(96.4%), 돈(95.5%) 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으며, 종교(23.0%), 이웃(52.4%) 등은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와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종교(2008년 35.4%, 2020년 23.0%)와 이웃(2008년 63.9%, 2020년 52.4%)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은 2008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 ① 가족 중요도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별로 중요하지 않다' 1.4%, '다소 중요하다' 11.5%, '매우 중요하다' 87.1%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다소 중요하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임.

그림 III-6 가족 중요도(2008년, 2020년)

먼저, 인생에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98.4%)은 가족이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81.8%+중요한 편이다 16.6%)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에서 가족

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98.6%로 나타났으며, 2020년도(98.4%) 본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2008년 87.1%, 2020년 81.8%)은 2008년도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가족 중요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학생(M=3.83)이 고등학생(M=3.77)보다 가족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t=4.473, p<.001$ ).

표 III-22 가족 중요도(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0.3	1.3	16.6	81.8	3.80	0.452	-	
성별	남자	0.2	1.5	17.0	81.3	3.79	0.457	-0.950
	여자	0.3	1.1	16.2	82.3	3.80	0.448	
학교급	중학교	0.1	1.1	14.9	83.9	3.83	0.414	4.473***
	고등학교	0.5	1.6	18.2	79.8	3.77	0.484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0.4	0.9	15.6	83.0	3.81	0.443	2.579
	중소도시 <sup>b</sup>	0.3	1.7	16.2	81.8	3.79	0.462	
	읍면지역 <sup>c</sup>	0.0	1.1	20.5	78.4	3.77	0.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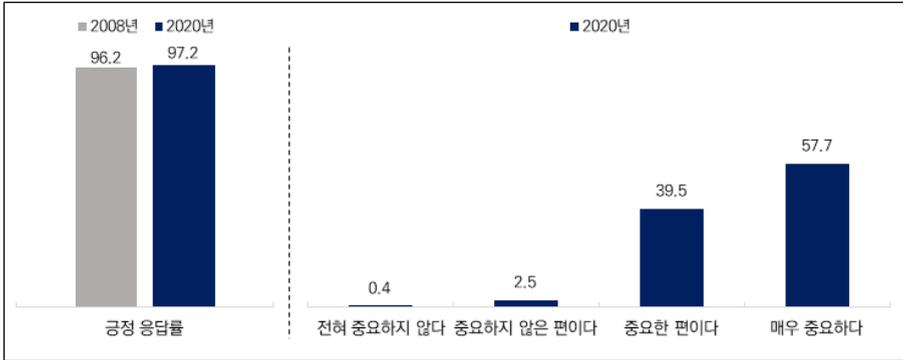
\* 주: 1)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중요한 편이다, ④ 매우 중요하다

2) \* $p<.05$ , \*\* $p<.01$ , \*\*\* $p<.001$

## ② 동성친구 중요도

인생에서 '동성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동성친구가 '매우 중요하다' 57.7%, '중요한 편이다' 39.5%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들(97.2%)이 인생에서 동성친구가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와 비교해보면, 동성친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도(96.2%)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매우 중요하다'(2008년 63.7%, 2020년 57.7%)라는 비율은 2008년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0.8%, '별로 중요하지 않다' 3.1%, '다소 중요하다' 32.5%, '매우 중요하다' 63.7%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다소 중요하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임.

그림 III-7 동성친구 중요도(2008년, 2020년)

표 III-23 동성친구 중요도(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0.4	2.5	39.5	57.7	3.54	0.566	-	
성별	남자	0.4	2.7	41.2	55.8	3.52	0.570	-2.781**
	여자	0.4	2.3	37.6	59.7	3.57	0.562	
학교급	중학교	0.4	2.3	38.5	58.8	3.56	0.560	1.758
	고등학교	0.4	2.7	40.3	56.6	3.53	0.572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0.4	2.3	37.7	59.5	3.56	0.564	2.186
	중소도시 <sup>b</sup>	0.3	2.8	40.4	56.5	3.53	0.566	
	읍면지역 <sup>c</sup>	0.6	2.1	41.0	56.3	3.53	0.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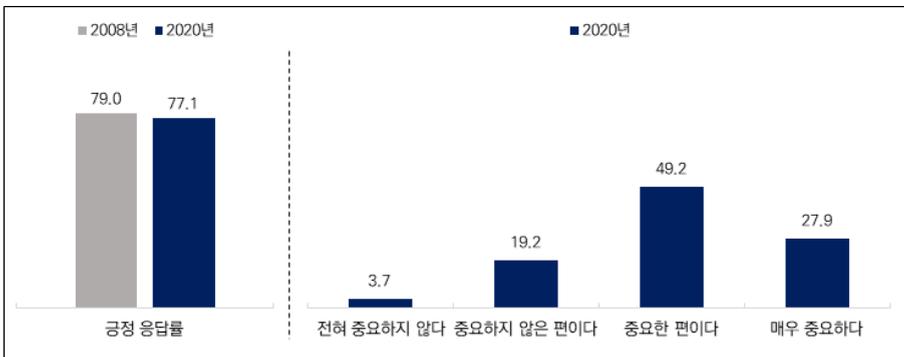
- \* 주: 1)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중요한 편이다, ④ 매우 중요하다  
 2)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라 2020년 ‘동성친구 중요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자 청소년(M=3.57)이 남자 청소년(M=3.52)보다 동성친구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t=-2.781, p<.01$ ). 반면, 학교급과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③ 이성친구 중요도

‘이성친구’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들의 77.1%가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27.9%+중요한 편이다 49.2%)고 응답하였으며, 동성친구(97.2%)에 비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의 해당 문항과 비교해보면, 2008년도와 본 조사의 긍정 응답률(2008년 79.0%, 2020년 77.1%)은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2.3%, ‘별로 중요하지 않다’ 18.7%, ‘다소 중요하다’ 48.6%, ‘매우 중요하다’ 30.4%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다소 중요하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임.

그림 III-8 이성친구 중요도(2008년, 2020년)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이성친구 중요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M=3.18)이 여자 청소년(M=2.83)보다( $t=16.875$ ,  $p<.001$ ), 그리고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M=3.07)이 대도시 거주 청소년(M=2.98)보다 이성친구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F=3.789$ ,  $p<.05$ ).

표 III-24 이성친구 중요도(2020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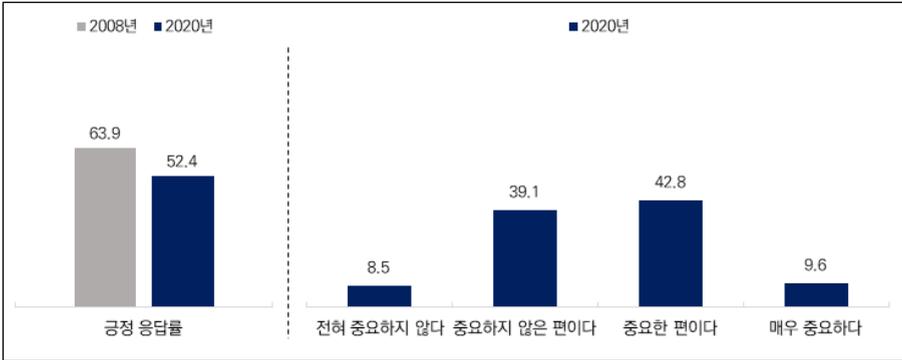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7	19.2	49.2	27.9	3.01	0.788	-	
성별	남자	2.0	14.4	47.6	36.0	3.18	0.743	16.875***
	여자	5.7	24.5	50.8	19.1	2.83	0.796	
학교급	중학교	3.4	19.0	52.1	25.4	2.99	0.763	-1.533
	고등학교	4.0	19.4	46.4	30.1	3.03	0.810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4.7	19.7	48.2	27.4	2.98	0.813	3.789* (c)a)
	중소도시 <sup>b</sup>	3.3	19.2	49.8	27.7	3.02	0.776	
	읍면지역 <sup>c</sup>	2.5	17.9	49.9	29.7	3.07	0.755	

\* 주: 1)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중요한 편이다, ④ 매우 중요하다  
2) \* $p<.05$ , \*\* $p<.01$ , \*\*\* $p<.001$

#### ④ 이웃 중요도

인생에서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의 절반 정도(52.4%)가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9.6%+중요한 편이다 42.8%)고 응답했으며, 상대적으로 가족(98.4%), 친구(동성친구 97.2%, 이성친구 77.1%)에 비해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와 비교해보면, 이웃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은 2008년도(63.9%)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4.7%, '별로 중요하지 않다' 31.5%, '다소 중요하다' 52.5%, '매우 중요하다' 11.4%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다소 중요하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임.

그림 III-9 이웃 중요도(2008년, 2020년)

표 III-25 이웃 중요도(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8.5	39.1	42.8	9.6	2.54	0.782	-	
성별	남자	8.8	36.1	42.3	12.8	2.59	0.821	5.523***
	여자	8.1	42.4	43.3	6.2	2.48	0.732	
학교급	중학교	6.2	35.8	47.7	10.2	2.62	0.752	7.855***
	고등학교	10.6	42.1	38.2	9.1	2.46	0.801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9.9	38.3	42.2	9.6	2.51	0.799	2.256
	중소도시 <sup>b</sup>	7.9	39.7	43.1	9.3	2.54	0.770	
	읍면지역 <sup>c</sup>	6.7	39.1	43.4	10.7	2.58	0.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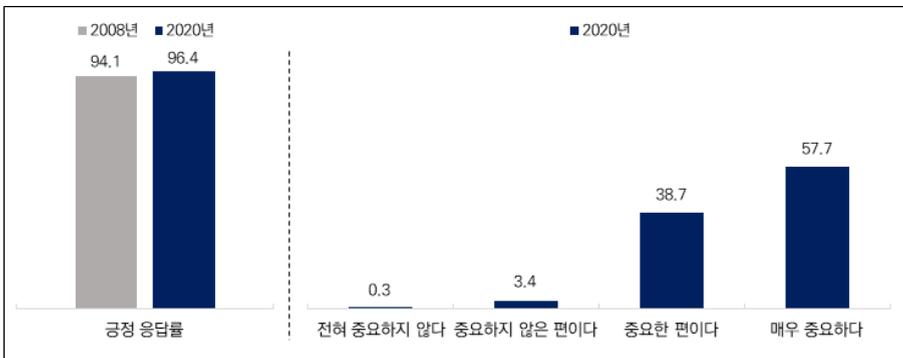
- \* 주: 1)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중요한 편이다, ④ 매우 중요하다  
 2)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이웃 중요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남자 청소년(M=2.59)이 여자 청소년(M=2.48)보다( $t=5.523, p<.001$ ), 그리고 중학생(M=2.62)이 고등학생(M=2.46)보다 이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7.855, p<.001$ ).

### ⑤ 여가 중요도

대부분의 청소년들(96.4%)은 인생에서 ‘여가’가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57.7%+중요한 편이다 38.7%)고 답했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여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도(94.1%)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매우 중요하다’(2008년 50.3%, 2020년 57.7%)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도 조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0.3%, ‘별로 중요하지 않다’ 5.5%, ‘다소 중요하다’ 43.8%, ‘매우 중요하다’ 50.3%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다소 중요하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임.

그림 III-10 여가 중요도(2008년, 2020년)

일반적 특성에 따라 2020년도 ‘여가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여자 청소년(M=3.56)이 남자 청소년(M=3.51)보다( $t=-3.374, p<.001$ ), 고등학생(M=3.57)이 중학생(M=3.50)보다 여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4.641, p<.001$ ).

표 III-26 여가 중요도(2020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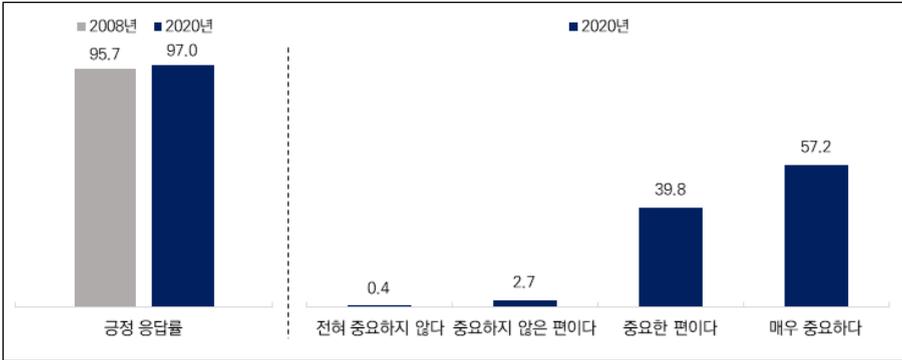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0.3	3.4	38.7	57.7	3.54	0.576	-
성별	남자	0.4	4.0	39.5	56.1	3.51	0.595	-3.374***
	여자	0.1	2.8	37.8	59.3	3.56	0.553	
학교급	중학교	0.4	4.4	40.0	55.2	3.50	0.602	-4.641***
	고등학교	0.1	2.5	37.6	59.8	3.57	0.548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0.2	2.7	38.9	58.2	3.55	0.562	0.878
	중소도시 <sup>b</sup>	0.4	4.3	37.5	57.9	3.53	0.596	
	읍면지역 <sup>c</sup>	0.0	2.4	42.1	55.5	3.53	0.546	

\* 주: 1)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중요한 편이다, ④ 매우 중요하다  
 2) \* $p<.05$ , \*\* $p<.01$ , \*\*\* $p<.001$

### ⑥ 일 중요도

인생에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한 결과, 97.0%의 청소년들이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57.2%+중요한 편이다 39.8%)고 응답하였다. 이는 여가가 중요하다(96.4%)고 답한 비율과 유사한 결과로, 청소년들은 인생에서 일과 여가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와 2020년 본 조사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2008년 95.7%, 2020년 97.0%).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문항은 '일', 2020년 문항은 '일(직업)'임.  
 2) 2008년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0.3%, '별로 중요하지 않다' 4.0%, '다소 중요하다' 39.0%, '매우 중요하다' 56.7%임.  
 3)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다소 중요하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임.

그림 III-11 일 중요도(2008년, 2020년)

표 III-27 일(직업) 중요도(2020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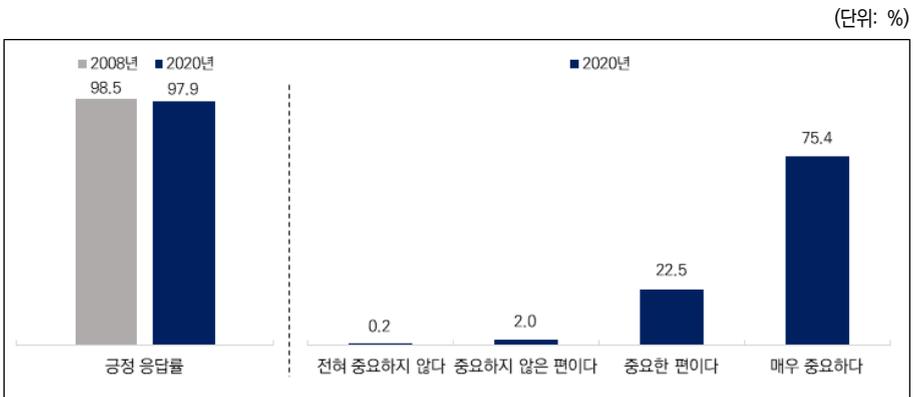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0.4	2.7	39.8	57.2	3.54	0.568	-	
성별	남자	0.5	3.0	42.9	53.6	3.50	0.584	-5.938***
	여자	0.2	2.3	36.4	61.1	3.58	0.547	
학교급	중학교	0.4	2.9	39.3	57.4	3.54	0.576	-0.202
	고등학교	0.3	2.4	40.2	57.0	3.54	0.561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0.4	2.4	38.2	59.1	3.56	0.564	2.494
	중소도시 <sup>b</sup>	0.4	3.0	40.5	56.1	3.52	0.577	
	읍면지역 <sup>c</sup>	0.1	2.4	41.9	55.6	3.53	0.553	

- \* 주: 1)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중요한 편이다, ④ 매우 중요하다  
 2)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2020년도 '일 중요도'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자 청소년(M=3.58)이 남자 청소년(M=3.50)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5.938,  $p<.001$ ).

### ⑦ 건강 중요도

인생에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97.9%)이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75.4%+중요한 편이다 22.5%)고 대답하며, 건강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결과에서도 건강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은 본 연구결과(97.9%)와 유사한 수준인 98.5%로 높게 확인되었다. 다만,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2008년 84.8%, 2020년 75.4%)은 2008년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0.1%, '별로 중요하지 않다' 1.5%, '다소 중요하다' 13.7%, '매우 중요하다' 84.8%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다소 중요하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임.

그림 III-12 건강 중요도(2008년, 2020년)

일반적 특성에 따라 2020년도 ‘건강 중요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M=3.75)이 여자 청소년(M=3.71)보다( $t=2.543, p<.05$ ),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M=3.75)이 고등학생(M=3.71)보다 상대적으로 건강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t=2.424, p<.05$ ).

표 III-28 건강 중요도(2020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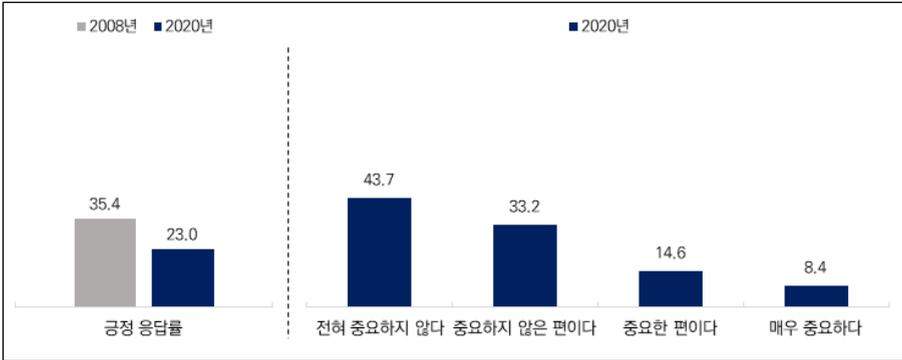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0.2	2.0	22.5	75.4	3.73	0.499	-	
성별	남자	0.2	1.8	21.2	76.8	3.75	0.487	2.543*
	여자	0.2	2.1	23.8	73.8	3.71	0.511	
학교급	중학교	0.2	2.1	20.6	77.1	3.75	0.492	2.424*
	고등학교	0.2	1.9	24.1	73.8	3.71	0.505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0.3	2.0	22.1	75.5	3.73	0.508	1.790
	중소도시 <sup>b</sup>	0.2	2.0	21.5	76.3	3.74	0.492	
	읍면지역 <sup>c</sup>	0.0	1.7	26.2	72.0	3.70	0.494	

\* 주: 1)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중요한 편이다, ④ 매우 중요하다  
 2) \* $p<.05$ , \*\* $p<.01$ , \*\*\* $p<.001$

### ⑧ 종교 중요도

‘종교’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23.0%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76.9%는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하여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와 비교해보면, 종교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도(35.4%) 대비 2020년도(23.0%)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30.6%, '별로 중요하지 않다' 33.9%, '다소 중요하다' 21.4%, '매우 중요하다' 14.0%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다소 중요하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임.

그림 III-13 종교 중요도(2008년, 2020년)

표 III-29 종교 중요도(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43.7	33.2	14.6	8.4	1.88	0.952	-
성별	남자	44.9	31.0	14.9	9.2	1.88	0.422
	여자	42.4	35.7	14.3	7.7	1.87	
학교급	중학교	40.3	36.0	15.9	7.8	1.91	2.588**
	고등학교	46.8	30.7	13.4	9.1	1.85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43.8	31.6	15.8	8.8	1.90	1.218
	중소도시 <sup>b</sup>	43.2	34.8	13.3	8.7	1.88	
	읍면지역 <sup>c</sup>	45.0	32.8	15.6	6.6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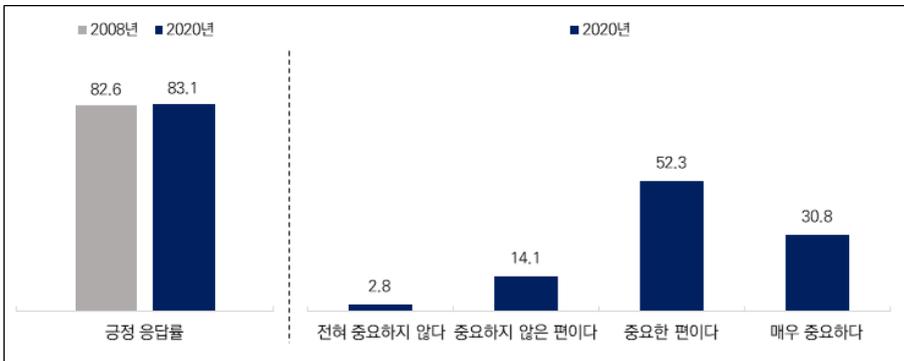
- \* 주: 1)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중요한 편이다, ④ 매우 중요하다  
 2)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종교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중학생(M=1.91)이 고등학생(M=1.85)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2.588,  $p<.01$ ).

### ⑨ 학력 중요도

인생에서 ‘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들의 83.1%가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30.8%+중요한 편이다 52.3%)고 응답하였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에서는 응답자의 82.6%가 중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본 조사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학력이 ‘매우 중요하다’(2008년 36.0%, 2020년 30.8%)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3.2%, ‘별로 중요하지 않다’ 14.2%, ‘다소 중요하다’ 46.6%, ‘매우 중요하다’ 36.0%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다소 중요하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임.

그림 III-14 학력 중요도(2008년, 2020년)

일반적 특성에 따라 2020년도 ‘학력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먼저,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M=3.16)이 남자 청소년(M=3.07)보다( $t=-4.627, p<.001$ ),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M=3.20)이 고등학생(M=3.03)보다 학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8.641, p<.001$ ). 그리고 대도시 거주 청소년(M=3.15)이 중소도시(M=3.10)와 읍면지역(M=3.05) 거주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학력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F=6.955, p<.001$ ).

표 III-30 학력 중요도(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8	14.1	52.3	30.8	3.11	0.741	-
성별	남자	3.6	15.1	52.4	29.0	3.07	0.761	-4.627***
	여자	2.0	13.1	52.2	32.8	3.16	0.716	
학교급	중학교	1.6	11.9	51.5	35.0	3.20	0.703	8.641***
	고등학교	3.9	16.2	53.0	26.9	3.03	0.765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2.5	12.5	52.5	32.5	3.15	0.725	6.955*** (a)b,c)
	중소도시 <sup>b</sup>	2.8	15.1	51.7	30.4	3.10	0.747	
	읍면지역 <sup>c</sup>	3.6	15.5	53.4	27.5	3.05	0.756	

\* 주: 1)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중요한 편이다, ④ 매우 중요하다  
2) \* $p<.05$ , \*\* $p<.01$ , \*\*\* $p<.001$

### ⑩ 명예 중요도

인생에서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매우 중요하다’가 25.5%, ‘중요한 편이다’가 53.0%로 나타나 응답자의 78.5%가 인생에서 명예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명예 중요도’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중학생

(M=3.04)이 고등학생(M=2.98)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3.211, p<.01$ ).

표 III-31 명예 중요도(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9	18.6	53.0	25.5	3.01	0.746	-
성별	남자	3.3	19.1	51.4	26.2	3.01	0.765	-0.596
	여자	2.4	18.1	54.8	24.7	3.02	0.724	
학교급	중학교	2.2	16.9	55.2	25.7	3.04	0.716	3.211**
	고등학교	3.5	20.2	51.0	25.3	2.98	0.771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2.8	18.7	51.6	26.9	3.03	0.754	0.701
	중소도시 <sup>b</sup>	2.9	18.6	54.2	24.4	3.00	0.738	
	읍면지역 <sup>c</sup>	3.1	18.6	53.0	25.3	3.01	0.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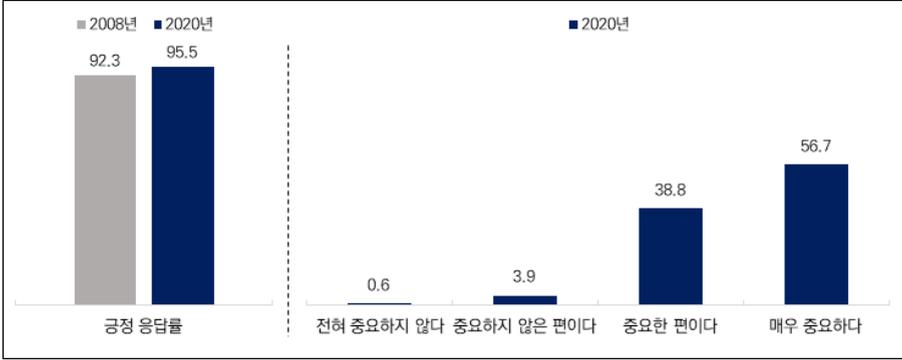
\* 주: 1)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중요한 편이다, ④ 매우 중요하다  
 2) \* $p<.05$ , \*\* $p<.01$ , \*\*\* $p<.001$

### ⑪ 돈 중요도

‘돈’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5.5%가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56.7%+중요한 편이다 38.8%)고 대답하였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2.3%로 나타나 2008년도와 2020년도(95.5%) 본 조사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돈 중요도’를 분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여자 청소년(M=3.55)이 남자 청소년(M=3.48)보다 돈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t=-4.452, p<.001$ ).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1.5%, '별로 중요하지 않다' 6.3%, '다소 중요하다' 38.2%, '매우 중요하다' 54.1%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다소 중요하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임.

그림 III-15 돈 중요도(2008년, 2020년)

표 III-32 돈 중요도(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0.6	3.9	38.8	56.7	3.52	0.605	-
성별	남자	1.0	4.8	39.4	54.8	3.48	-4.452***
	여자	0.3	2.9	38.2	58.6	3.55	
학교급	중학교	0.7	4.3	37.6	57.4	3.52	0.190
	고등학교	0.6	3.5	39.9	56.0	3.51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0.8	3.2	37.8	58.2	3.53	2.244
	중소도시 <sup>b</sup>	0.7	4.4	39.5	55.4	3.50	
	읍면지역 <sup>c</sup>	0.1	4.0	39.5	56.5	3.52	

- \* 주: 1)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중요한 편이다, ④ 매우 중요하다  
 2)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5) 물건 구입 시 고려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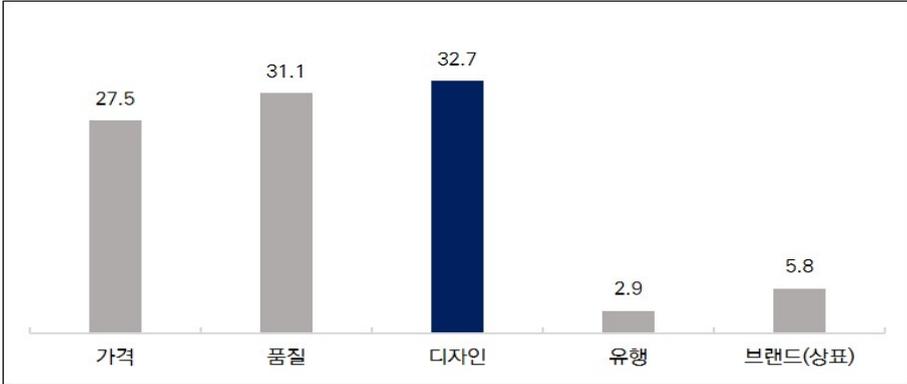


그림 III-16 물건 구입 시 고려사항(2020년)

청소년들에게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디자인(32.7%)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어서 품질(31.1%), 가격(27.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브랜드(상표)(5.8%)와 유행(2.9%)은 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철경 등(2003)이 2003년도에 중고등학생 1,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그 당시 청소년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디자인, 색상(46.8%)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가격(24.7%), 품질(13.2%), 유행(8.8%), 기타(3.3%) 등의 순으로 대답하였다. 2003년도 조사(윤철경 외, 2003)와 2020년도 본 조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디자인은 물건 구입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응답률은 감소한 반면, 품질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은 증가하는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간 조사항목<sup>13)</sup>, 조사대상<sup>14)</sup>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시

13) 2003년 조사항목은 '① 품질, ② 가격, ③ 유행, ④ 디자인, 색상, ⑤ 기타'이며(윤철경 외, 2003), 2020년 조사항목은 '① 가격, ② 품질, ③ 디자인, ④ 유행, ⑤ 브랜드(상표)'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물건 구입 시 고려사항’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품질(34.8%)을, 여자 청소년은 디자인(37.2%)을 물건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hi^2=72.674$ ,  $p<.001$ ).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은 디자인(34.1%)을, 고등학생은 품질(34.0%)을 각각 1순위로 응답하는 등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chi^2=25.487$ ,  $p<.001$ ).

표 III-33 물건 구입 시 고려사항(2020년)

(단위: %)

구분		가격	품질	디자인	유형	브랜드 (상표)	$\chi^2$
전체		27.5	31.1	32.7	2.9	5.8	-
성별	남자	27.2	34.8	28.5	2.7	6.8	72.674***
	여자	27.9	27.1	37.2	3.1	4.6	
학교급	중학교	28.8	27.9	34.1	3.2	6.1	25.487***
	고등학교	26.4	34.0	31.4	2.6	5.5	
지역규모	대도시	28.5	30.6	32.7	2.7	5.5	4.649
	중소도시	26.9	31.7	32.6	3.1	5.7	
	읍면지역	27.1	30.6	32.9	2.6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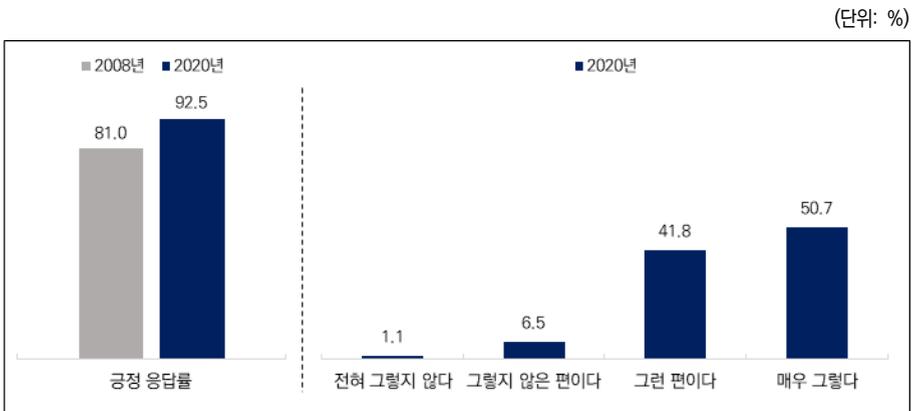
\* 주: \* $p<.05$ , \*\* $p<.01$ , \*\*\* $p<.001$

14) 2003년 조사대상은 '중1~고2'이며(윤철경 외, 2003), 2020년도 조사대상은 '중1~고3'임.

## 2) 가족 및 결혼관

### (1) 가족생활 만족도

청소년들에게 가족과의 생활에 만족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92.5%가 가족과의 생활에 만족한다(매우 그렇다 50.7%+그런 편이다 41.8%)고 대답하였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와 비교해보면, 가족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2008년도(81.0%)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3.0%, '별로 그렇지 않다' 15.9%, '다소 그렇다' 45.2%, '매우 그렇다' 35.8%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그림 III-17 나는 가족과의 생활에 만족한다(2008년, 2020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2020년도 '가족생활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남자 청소년

(M=3.44)이 여자 청소년(M=3.39)보다( $t=2.868, p<.01$ ), 중학생(M=3.45)이 고등학생(M=3.40)보다( $t=2.791, p<.01$ ), 그리고 대도시 거주 청소년(M=3.45)이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M=3.38)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족생활 만족도를 보였다( $F=4.898, p<.01$ ).

표 III-34 나는 가족과의 생활에 만족한다(2020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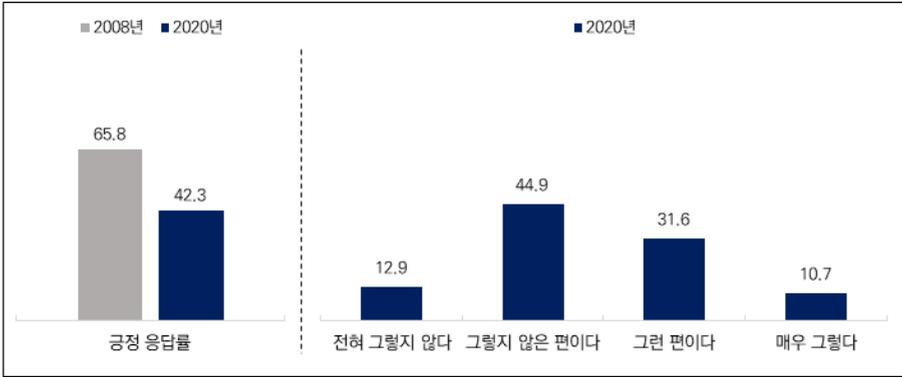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1	6.5	41.8	50.7	3.42	0.662	-
성별	남자	0.9	6.1	40.9	52.2	3.44	0.648	2.868**
	여자	1.4	6.9	42.8	49.0	3.39	0.677	
학교급	중학교	0.8	5.5	41.9	51.7	3.45	0.638	2.791**
	고등학교	1.4	7.3	41.7	49.7	3.40	0.683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1.0	6.0	39.9	53.1	3.45	0.653	4.898** (a)c
	중소도시 <sup>b</sup>	1.2	6.8	42.1	49.9	3.41	0.669	
	읍면지역 <sup>c</sup>	1.2	6.7	45.5	46.6	3.38	0.663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05$ , \*\* $p<.01$ , \*\*\* $p<.001$

## (2) 결혼 후 부모 부양

결혼 후 부모 부양에 대한 생각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 10명 중 4명 정도(42.3%)가 결혼 후 부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고 싶다(매우 그렇다 10.7%+그런 편이다 31.6%)고 응답하였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와 비교해보면, 결혼 후 부모 부양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2008년도(65.8%)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6.1%, '별로 그렇지 않다' 28.0%, '다소 그렇다' 41.4%, '매우 그렇다' 24.4%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그림 III-18 결혼을 한 후 부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고 싶다(2008년, 2020년)

표 III-35 결혼을 한 후 부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고 싶다(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2.9	44.9	31.6	10.7	2.40	0.843	-	
성별	남자	11.2	44.9	32.2	11.7	2.44	0.840	4.131***
	여자	14.7	44.9	30.9	9.5	2.35	0.844	
학교급	중학교	11.3	43.5	33.3	12.0	2.46	0.845	5.124***
	고등학교	14.4	46.2	30.0	9.4	2.35	0.838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14.2	44.1	31.8	10.0	2.37	0.847	1.644
	중소도시 <sup>b</sup>	12.2	45.3	31.4	11.1	2.41	0.841	
	읍면지역 <sup>c</sup>	11.7	45.7	31.4	11.2	2.42	0.838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 < .05$ , \*\* $p < .01$ , \*\*\* $p < .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2020년도 ‘결혼 후 부모 부양’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M=2.44)이 여자 청소년(M=2.35)보다( $t=4.131, p<.001$ ), 그리고 중학생(M=2.46)이 고등학생(M=2.35)보다 결혼 후 부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고 싶다는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5.124, p<.001$ ).

### (3) 결혼 후 자녀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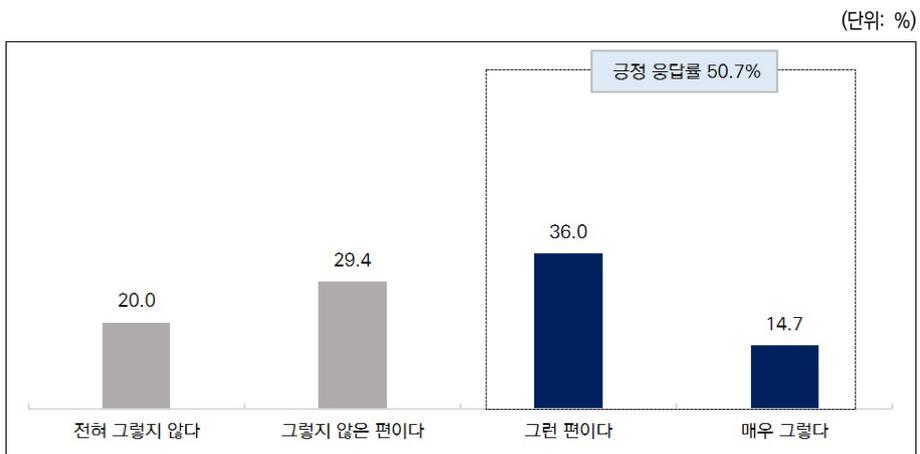


그림 III-19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2020년)

결혼 후 자녀에 대한 생각을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50.7%)가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매우 그렇다 14.7%+그런 편이다 36.0%). 한편, 2007년도에 중고등학생 6,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청소년 가치관 조사’(김신영 외, 2007)에서는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가질 필요가 없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77.7%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10명 중 8명 정도(77.7%)는 결혼 후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2007년도 조사

(김신영 외, 2007)와 2020년도 본 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결혼 후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007년도(77.7%)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결혼 후 자녀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의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M=2.79)이 여자 청소년(M=2.09)보다 상대적으로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t=28.914,  $p<.001$ ).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M=2.53)이 고등학생(M=2.38)보다(t=5.625,  $p<.001$ ),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M=2.49)이 대도시 거주 청소년(M=2.40)보다 결혼 후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F=5.362,  $p<.01$ ).

표 III-36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0.0	29.4	36.0	14.7	2.45	0.970	-
성별	남자	8.2	25.4	46.0	20.5	2.79	0.860	28.914***
	여자	32.7	33.7	25.1	8.4	2.09	0.951	
학교급	중학교	16.3	29.3	39.6	14.8	2.53	0.934	5.625***
	고등학교	23.3	29.5	32.6	14.6	2.38	0.997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22.1	28.8	35.8	13.2	2.40	0.973	5.362** (b>a)
	중소도시 <sup>b</sup>	18.5	29.9	36.1	15.6	2.49	0.965	
	읍면지역 <sup>c</sup>	18.7	29.5	36.1	15.7	2.49	0.969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05$ , \*\* $p<.01$ , \*\*\* $p<.001$

#### (4) 명절에 대한 생각

설날, 추석 등의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85.9%가 명절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매우 그렇다 41.4%+그런 편이다 44.5%)하였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명절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자 청소년(M=3.34)이 여자 청소년(M=3.13)보다( $t=9.917, p<.001$ ), 그리고 중학생(M=3.35)이 고등학생(M=3.14)보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10.188, p<.001$ ).

표 III-37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4	10.7	44.5	41.4	3.24	0.775	-
성별	남자	1.8	8.8	43.5	45.9	3.34	0.711	9.917***
	여자	5.2	12.8	45.5	36.5	3.13	0.826	
학교급	중학교	1.8	8.3	43.4	46.6	3.35	0.707	10.188***
	고등학교	4.9	13.0	45.5	36.7	3.14	0.820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3.5	11.0	44.6	40.9	3.23	0.779	0.367
	중소도시 <sup>b</sup>	3.5	10.3	44.6	41.6	3.24	0.775	
	읍면지역 <sup>c</sup>	2.9	11.1	43.8	42.2	3.25	0.765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05$ , \*\* $p<.01$ , \*\*\* $p<.001$

### (5) 부모 부양 주체

부모님의 노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가족'이 84.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부·사회'가 9.8%, '부모님 스스로 해결'이 5.9%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84.2%는 가족이 부모님의 노후를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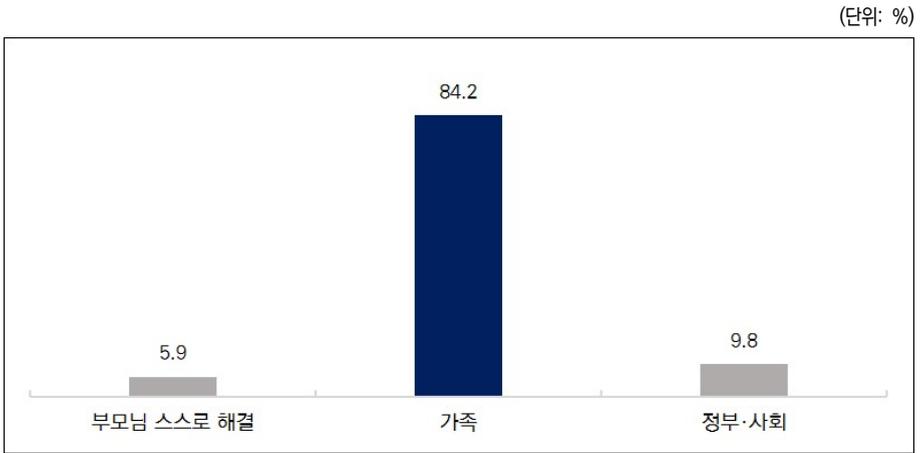


그림 III-20 부모 부양 주체(2020년)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부모 부양 주체'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과 학교급에 관계없이 전체 순위와 동일하게 확인되었으나, 부모 부양 주체가 '가족'이라는 응답률은 남자 청소년(86.4%)이 여자 청소년(81.9%)보다( $\chi^2=25.013, p<.001$ ), 그리고 중학생(87.7%)이 고등학생(81.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chi^2=47.172, p<.001$ ).

표 III-38 부모 부양 주체(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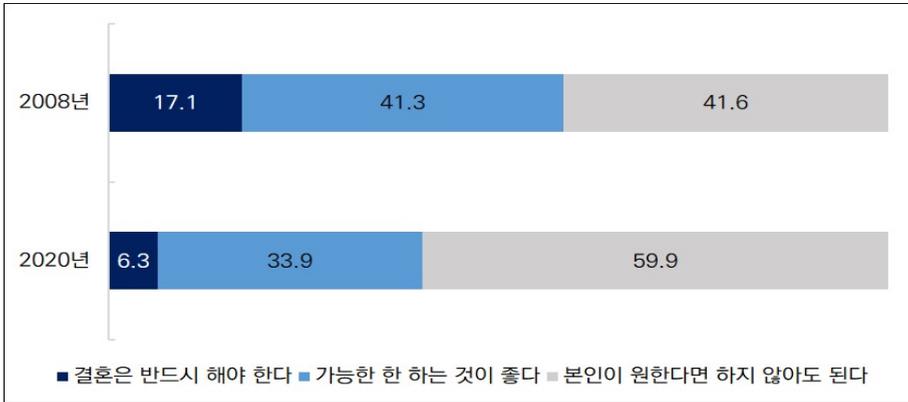
(단위: %)

구분	부모님 스스로 해결	가족	정부·사회	$\chi^2$
전체	5.9	84.2	9.8	-
성별	남자	4.7	86.4	25.013***
	여자	7.3	81.9	
학교급	중학교	4.4	87.7	47.172***
	고등학교	7.3	81.1	
지역 규모	대도시	6.2	83.7	2.767
	중소도시	5.5	85.0	
	읍면지역	6.4	83.1	

\* 주: \* $p < .05$ , \*\* $p < .01$ , \*\*\* $p < .001$

(6) 결혼에 대한 인식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그림 III-21 결혼에 대한 인식(2008년, 2020년)

결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결혼은 '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가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가

33.9%, '반드시 해야 한다'가 6.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와 비교해보면, 2008년도에 비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2008년 17.1%, 2020년 6.3%)와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2008년 41.3%, 2020년 33.9%)의 응답 비율은 감소한 반면, '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2008년 41.6%, 2020년 59.9%)의 응답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결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와 '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의 응답률이 각각 46.4%와 44.4%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의 응답률이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남자 청소년(9.2%)이 여자 청소년(3.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chi^2=623.750$ ,  $p<.001$ ).

표 III-39 결혼에 대한 인식(2020년)

(단위: %)

구분		①	②	③	$\chi^2$
전체		6.3	33.9	59.9	-
성별	남자	9.2	46.4	44.4	623.750***
	여자	3.0	20.3	76.7	
학교급	중학교	6.0	35.2	58.7	4.440
	고등학교	6.5	32.6	60.9	
지역규모	대도시	5.7	34.3	60.0	2.612
	중소도시	6.5	33.3	60.2	
	읍면지역	6.9	34.4	58.7	

\* 주: 1) ①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②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 ③ 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2) \* $p<.05$ , \*\* $p<.01$ , \*\*\* $p<.001$

### (7) 배우자 선택 기준

배우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9개의 보기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성격'(71.7%)을 1순위로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재산, 수입 등의 '경제력'(9.5%), '외모'(6.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청소년 10명 중 7명 정도(71.7%)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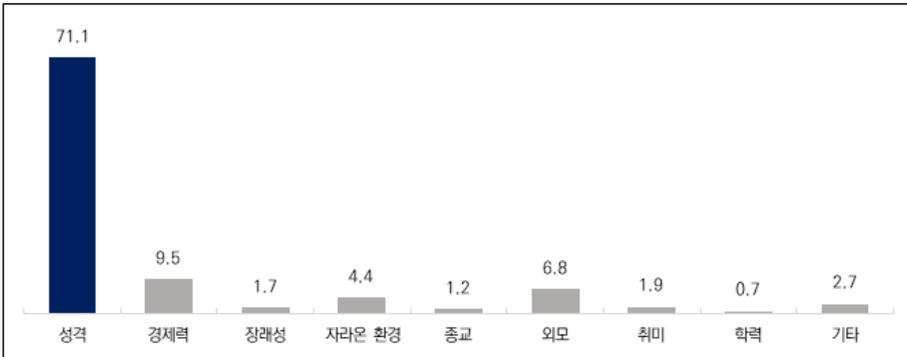


그림 III-22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2020년)

보다 자세하게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녀 모두 1순위는 '성격'(남 71.1%, 여 71.1%)으로 동일한 반면, 2순위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외모'(9.5%)를, 여자 청소년은 '경제력'(12.3%)을 선택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chi^2=233.847$ ,  $p<.001$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순위를 보였지만, '성격'에 대한 응답률은 고등학생(71.8%)이 중학생(70.3%)보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응답률은 중학생(7.6%)이 고등학생(6.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 $\chi^2=30.388$ ,  $p<.001$ ). 지역규모별로도

지역크기와 관계없이 비슷한 순위를 보였지만, ‘성격’(대 70.9%, 중소 71.7%, 읍면 69.9%)에 대한 응답률은 중소도시 청소년이, ‘경제력’(대 10.4%, 중소 9.0%, 읍면 8.7%)에 대한 응답률은 대도시 청소년이, ‘취미’(대 1.7%, 중소 1.5%, 읍면 3.2%)에 대한 응답률은 읍면지역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 $\chi^2=28.557, p<.05$ ).

표 III-40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2020년)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hi^2$
전체		71.1	9.5	1.7	4.4	1.2	6.8	1.9	0.7	2.7	-
성별	남자	71.1	7.0	2.0	2.4	0.9	9.5	3.2	0.9	3.0	233.847***
	여자	71.1	12.3	1.3	6.6	1.5	3.8	0.4	0.6	2.3	
학교급	중학교	70.3	9.2	1.5	4.2	1.0	7.6	2.2	1.2	2.6	30.388***
	고등학교	71.8	9.8	1.9	4.6	1.4	6.0	1.6	0.3	2.8	
지역 규모	대도시	70.9	10.4	2.0	4.6	1.4	6.2	1.7	0.7	2.1	28.557*
	중소도시	71.7	9.0	1.4	4.0	1.1	7.4	1.5	0.9	3.0	
	읍면지역	69.9	8.7	1.8	5.1	1.1	6.3	3.2	0.5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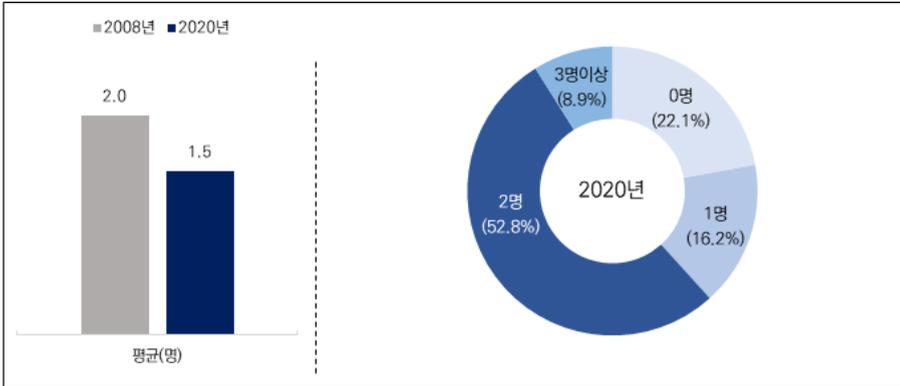
\* 주: 1) ① 성격, ② 경제력(재산, 수입), ③ 장래성, ④ 자라온 환경, ⑤ 종교, ⑥ 외모, ⑦ 취미, ⑧ 학력, ⑨ 기타

2) \* $p<.05$ , \*\* $p<.01$ , \*\*\* $p<.001$

### (8) 희망 자녀 수

청소년들이 장래에 희망하는 자녀 수는 평균 1.5명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2명’이 52.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0명’이 22.1%, ‘1명’이 16.2%, ‘3명 이상’이 8.9%로 분석되었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와 비교해 보면, 평균 희망 자녀 수는 2008년도(M=2.0)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그림 Ⅲ-23 희망 자녀 수(2008년, 2020년)

표 Ⅲ-41 희망 자녀 수(2020년)

구분		평균(명)	표준편차	t/F
전체		1.50	0.982	-
성별	남자	1.67	0.897	13.161***
	여자	1.33	1.037	
학교급	중학교	1.54	0.940	2.673**
	고등학교	1.47	1.018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1.45	0.985	5.072** (b,c)a)
	중소도시 <sup>b</sup>	1.53	0.970	
	읍면지역 <sup>c</sup>	1.55	1.007	

\* 주: \* $p < .05$ , \*\* $p < .01$ , \*\*\* $p < .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희망 자녀 수'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남자 청소년(M=1.67)이 여자 청소년(M=1.33)보다( $t=13.161, p < .001$ ), 그리고 중학생(M=1.54)이 고등학생(M=1.47)보다( $t=2.673, p < .01$ ), 읍면지역(M=1.55)과 중소도시(M=1.53)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M=1.45)보다 장래에 희망하는 자녀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5.072,  $p < .01$ ).

### (9) 부모님의 비용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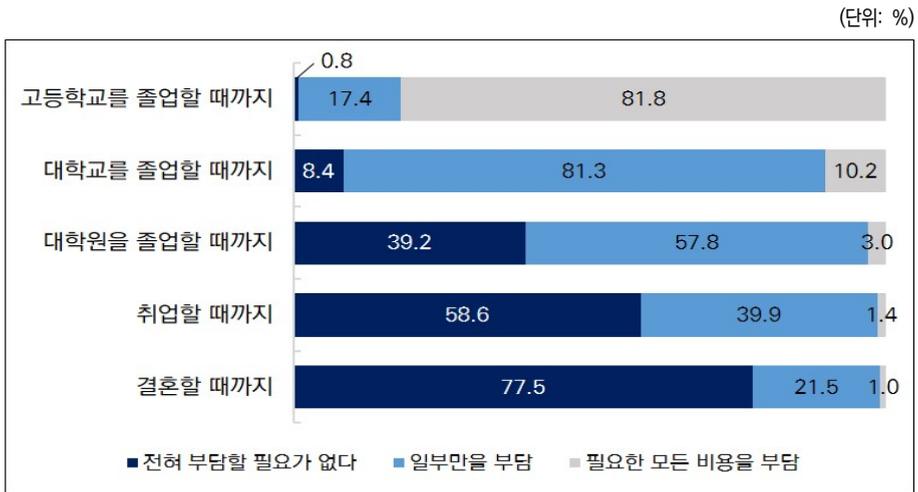


그림 III-24 부모님의 비용 부담(2020년)

부모님으로부터의 비용 지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의 5가지 항목에 대해 부모님이 어디까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일부만을 부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응답자들의 81.8%가 부모님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대학교 졸업(10.2%), 대학원 졸업(3.0%), 취업(1.4%), 결혼(1.0%) 때까지 부모님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대로 부모님이 비용을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률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0.8%로 나타났으나, 대학교 졸업(8.4%), 대학원 졸업(39.2%), 취업(58.6%), 결혼(77.5%) 때까지의 응답률은 크게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일정 부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0) 이혼, 미혼모, 입양, 동성애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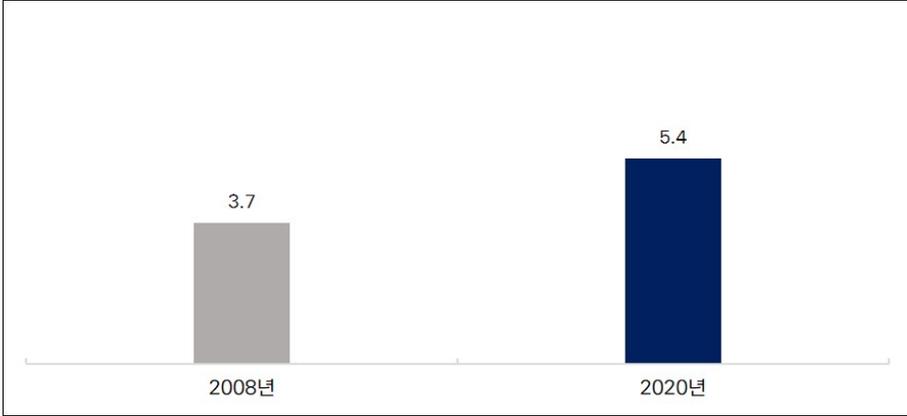
이혼, 미혼모, 입양, 동성애에 대해 '전혀 동의 안함'(1점)부터 '매우 동의함'(10점)까지의 10점 척도로 수용 정도를 확인하였다.

##### ① 이혼 수용도

먼저, 이혼에 대한 수용도는 평균 5.4점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에서는 평균 3.7점으로 확인되어, 2008년도에 비해 청소년들의 이혼 수용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2020년도 '이혼 수용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즉,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 $M=6.53$ )이 남자 청소년( $M=4.37$ )보다( $t=-28.038, p<.001$ ),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생( $M=5.93$ )이 중학생( $M=4.84$ )보다( $t=-13.463, p<.001$ ). 그리고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청소년( $M=5.55$ )이 중소도시 청소년( $M=5.26$ )보다 이혼 수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5.928, p<.01$ ).

(단위: 점)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2008년은 '절대 안됨'(1점) ~ '언제든 괜찮음'(10점), 2020년은 '전혀 동의 안함'(1점) ~ '매우 동의함'(10점)의 10점 척도로 측정함.

### 그림 III-25 이혼 수용도(2008년, 2020년)

표 III-42 이혼 수용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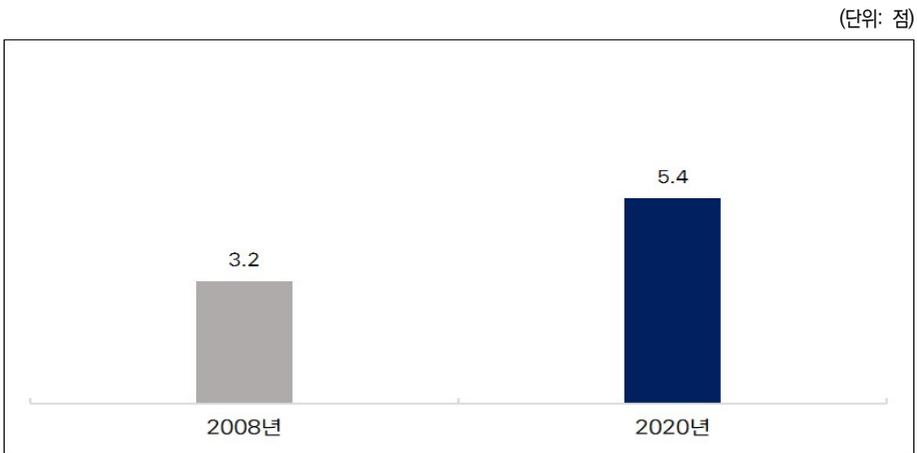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5.41	3.106	-
성별	남자	4.37	2.851	-28.038***
	여자	6.53	2.977	
학교급	중학교	4.84	3.001	-13.463***
	고등학교	5.93	3.111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5.55	3.135	5.928** (a>b)
	중소도시 <sup>b</sup>	5.26	3.066	
	읍면지역 <sup>c</sup>	5.49	3.136	

\* 주: 1) ① 전혀 동의 안함 ~ ⑩ 매우 동의함

2)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② 미혼모 수용도

미혼모 수용도는 평균 5.4점의 보통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와 비교하면, 미혼모 수용도는 2008년도(M=3.2)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2008년은 '절대 안됨'(1점) ~ '언제든 괜찮음'(10점), 2020년은 '전혀 동의 안함'(1점) ~ '매우 동의함'(10점)의 10점 척도로 측정함.

### 그림 Ⅲ-26 미혼모 수용도(2008년, 2020년)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2020년도 '미혼모 수용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M=6.39)이 남자 청소년(M=4.53)보다( $t=-25.109$ ,  $p<.001$ ), 고등학생(M=5.74)이 중학생(M=5.07)보다( $t=-8.644$ ,  $p<.001$ ),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M=5.54)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M=5.31)보다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F=3.873$ ,  $p<.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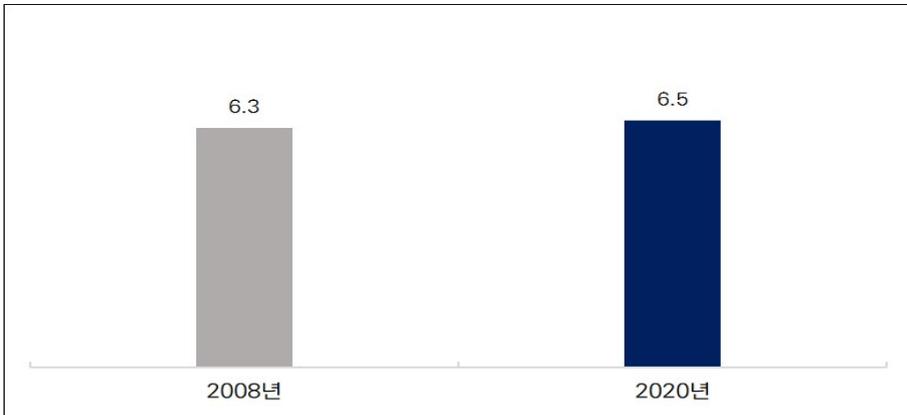
표 III-43 미혼모 수용도(2020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5.42	2.941	-
성별	남자	4.53	2.683	-25.109***
	여자	6.39	2.902	
학교급	중학교	5.07	2.886	-8.644***
	고등학교	5.74	2.954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5.54	2.947	3.873* (a)b
	중소도시 <sup>b</sup>	5.31	2.926	
	읍면지역 <sup>c</sup>	5.45	2.960	

\* 주: 1) ① 전혀 동의 안함 ~ ⑩ 매우 동의함  
 2)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③ 입양 수용도

(단위: 점)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2008년은 '절대 안됨'(1점) ~ '언제든 관찮음'(10점), 2020년은 '전혀 동의 안함'(1점) ~ '매우 동의함'(10점)의 10점 척도로 측정함.

그림 III-27 입양 수용도(2008년, 2020년)

입양 수용도는 평균 6.5점으로 나타났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임희진 외, 2009)에서는 평균 6.3점으로 나타나, 2008년도와 2020년도의 청소년 입양 수용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44 입양 수용도(2020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6.53	2.961	-
성별	남자	5.64	2.968	-25.010***
	여자	7.49	2.634	
학교급	중학교	6.17	3.028	-8.615***
	고등학교	6.85	2.861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6.66	2.951	5.496** (a)b)
	중소도시 <sup>b</sup>	6.39	2.987	
	읍면지역 <sup>c</sup>	6.61	2.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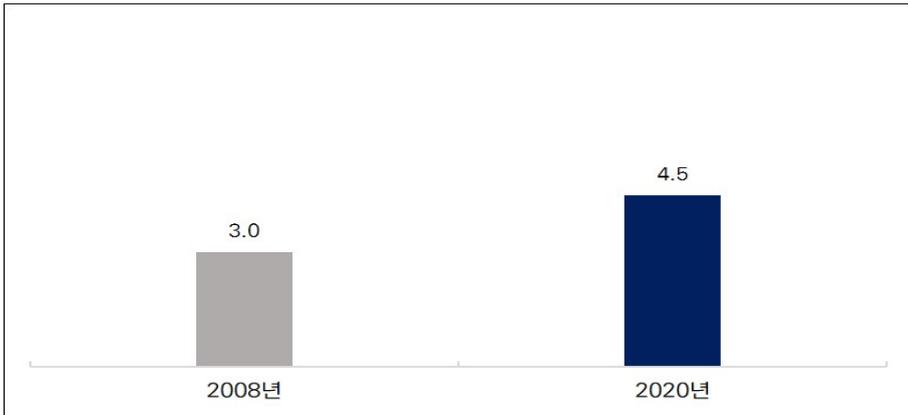
\* 주: 1) ① 전혀 동의 안함 ~ ⑩ 매우 동의함  
 2) \* $p < .05$ , \*\* $p < .01$ , \*\*\* $p < .001$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 따른 2020년도 ‘입양 수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M=7.49)이 남자 청소년(M=5.64)보다( $t = -25.010$ ,  $p < .001$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M=6.85)이 중학생(M=6.17)보다 상대적으로 입양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t = -8.615$ ,  $p < .001$ ).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M=6.66)이 중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M=6.39)보다 입양 수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F = 5.496$ ,  $p < .01$ ).

#### ④ 동성애 수용도

동성애 수용도는 평균 4.5점으로 조사되었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의 자료와 비교해보면, 동성애에 대한 수용도는 2008년도 (M=3.0)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점)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2008년은 ‘절대 안됨’(1점) ~ ‘언제든 괜찮음’(10점), 2020년은 ‘전혀 동의 안함’(1점) ~ ‘매우 동의함’(10점)의 10점 척도로 측정함.

그림 III-28 동성애 수용도(2008년, 2020년)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2020년도 ‘동성애 수용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동성애 수용도는 여자 청소년(M=6.03)이 남자 청소년(M=3.16)보다( $t=-36.904$ ,  $p<.001$ ), 고등학생(M=4.69)이 중학생(M=4.36)보다( $t=-3.825$ ,  $p<.001$ ), 그리고 대도시 청소년(M=4.63)이 중소도시 청소년(M=4.4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F=4.105$ ,  $p<.05$ ).

표 III-45 동성애 수용도(2020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4.53	3.255	-
성별	남자	3.16	2.623	-36.904***
	여자	6.03	3.213	
학교급	중학교	4.36	3.154	-3.825***
	고등학교	4.69	3.338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4.63	3.299	4.105* (a)b)
	중소도시 <sup>b</sup>	4.40	3.209	
	읍면지역 <sup>c</sup>	4.68	3.266	

\* 주: 1) ① 전혀 동의 안함 ~ ⑩ 매우 동의함  
 2)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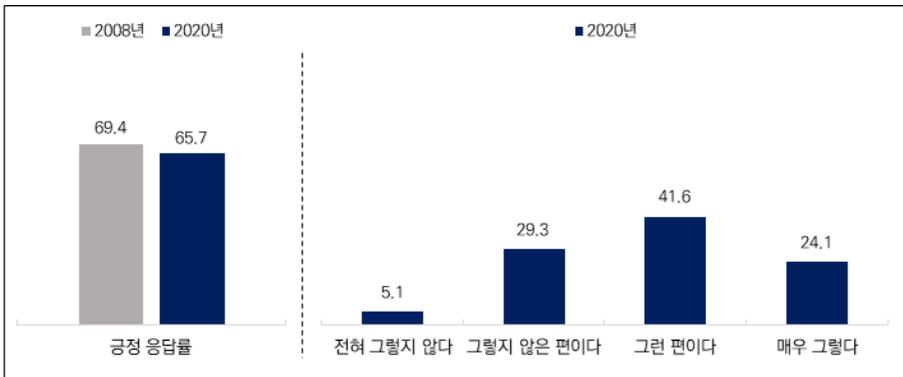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이혼, 미혼모, 동성애에 대한 수용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양 수용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이혼, 미혼모, 입양, 동성애에 대한 수용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진로 및 직업관

#### (1) 인생목표

청소년의 65.7%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매우 그렇다 24.1%+그런 편이다 41.6%)고 대답한 반면, 34.4%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1%+그렇지 않은 편이다 29.3%)고 응답하였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와 비교해보면, 인생목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도(69.4%)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4.2%, '별로 그렇지 않다' 26.4%, '다소 그렇다' 41.3%, '매우 그렇다' 28.1%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그림 III-29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2008년, 2020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인생목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남자 청소년(M=2.88)이 여자 청소년(M=2.81)보다( $t=3.232, p<.01$ ), 고등학생(M=2.90)이 중학생(M=2.79)보다( $t=-4.559, p<.001$ ), 그리고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M=2.92)이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M=2.82)보다 상대적으로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F=4.287, p<.05$ ).

표 III-46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5.1	29.3	41.6	24.1	2.85	0.844	-
성별	남자	5.0	27.4	42.1	25.5	2.88	0.845	3.232**
	여자	5.2	31.3	41.0	22.5	2.81	0.842	
학교급	중학교	5.7	31.2	41.1	22.0	2.79	0.847	-4.559***
	고등학교	4.5	27.4	42.1	26.0	2.90	0.839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4.7	29.6	41.8	23.8	2.85	0.837	4.287* (c>b)
	중소도시 <sup>b</sup>	6.0	29.4	40.8	23.8	2.82	0.861	
	읍면지역 <sup>c</sup>	3.0	27.8	43.5	25.8	2.92	0.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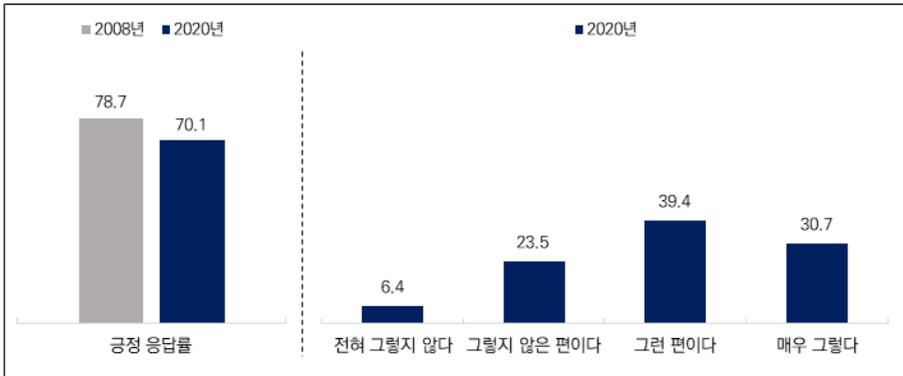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05$ , \*\* $p<.01$ , \*\*\* $p<.001$

## (2) 대학 진학의 필요성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 10명 중 7명(70.1%)은 미래의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대학에 가야한다(매우 그렇다 30.7%+그런 편이다 39.4%)고 생각하였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에서는 대학 진학의 필요성에 대해 청소년 10명 중 8명 정도(78.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2008년도 대비 2020년도 긍정 응답률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대학 진학 필요성이 감소한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대학 졸업생의 낮은 취업률 및 청년 취업난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3.8%, '별로 그렇지 않다' 17.5%, '다소 그렇다' 33.6%, '매우 그렇다' 45.1%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 그림 III-30 미래의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에 가야한다(2008년, 2020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성별로 보면, 여자 청소년(M=3.02)이 남자 청소년(M=2.88)보다( $t=-5.793, p<.001$ ),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M=2.97)이 고등학생(M=2.92)보다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대학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t=2.293, p<.05$ ).

표 III-47 미래의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에 가야한다(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6.4	23.5	39.4	30.7	2.94	0.891	-
성별	남자	7.4	24.8	40.2	27.6	2.88	0.898	-5.793***
	여자	5.2	22.2	38.4	34.2	3.02	0.879	
학교급	중학교	5.1	22.5	42.3	30.0	2.97	0.855	2.293*
	고등학교	7.5	24.5	36.6	31.4	2.92	0.923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6.0	22.4	39.5	32.0	2.97	0.887	2.123
	중소도시 <sup>b</sup>	6.4	24.7	39.0	29.9	2.92	0.892	
	읍면지역 <sup>c</sup>	7.1	22.8	40.0	30.1	2.93	0.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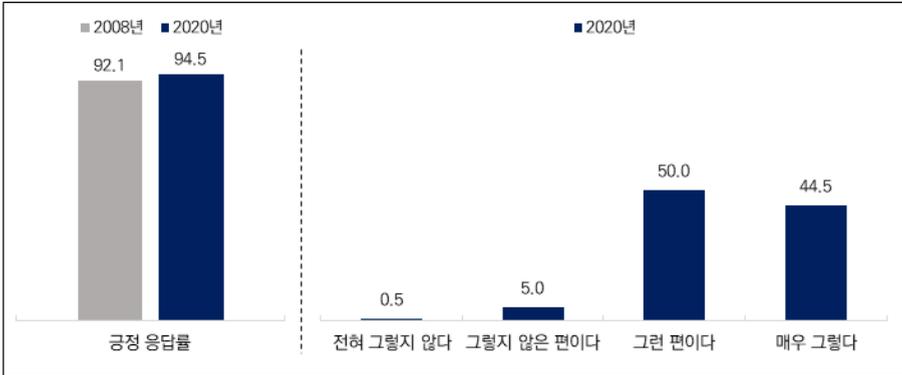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 < .05$ , \*\* $p < .01$ , \*\*\* $p < .001$

### (3) 진로 및 직업 선택의 주도성

진로 및 직업 선택의 주도성을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94.5%)은 진로나 직업 선택 시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하겠다(매우 그렇다 44.5%+그런 편이다 50.0%)고 응답하였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에서도 응답자의 92.1%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등 본 조사의 결과(94.5%)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2020년도 ‘진로 및 직업 선택의 주도성’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M=3.43)이 남자 청소년(M=3.34)보다 진로 및 직업 선택의 주도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 = -5.625$ ,  $p < .001$ ).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문항은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2020년 문항은 '진로나 직업은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임.  
 2)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0.8%, '별로 그렇지 않다' 7.0%, '다소 그렇다' 45.4%, '매우 그렇다' 46.7%임.  
 3)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그림 III-31 진로 및 직업 선택의 주도성(2008년, 2020년)

표 III-48 진로나 직업은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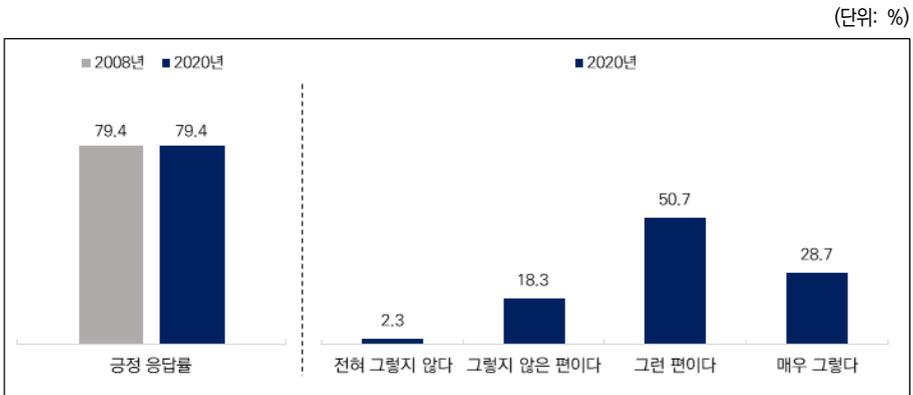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0.5	5.0	50.0	44.5	3.38	0.607	-	
성별	남자	0.8	5.8	52.1	41.4	3.34	0.621	-5.625***
	여자	0.3	4.1	47.7	47.8	3.43	0.588	
학교급	중학교	0.7	4.4	51.4	43.6	3.38	0.604	-0.714
	고등학교	0.4	5.6	48.7	45.3	3.39	0.610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0.6	5.6	47.4	46.4	3.40	0.621	0.826
	중소도시 <sup>b</sup>	0.6	4.4	51.7	43.4	3.38	0.598	
	읍면지역 <sup>c</sup>	0.4	5.0	51.7	42.9	3.37	0.598	

-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4) 직업 낙관성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79.4%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28.7%+그런 편이다 50.7%)고 응답하여 청소년의 10명 중 8명 정도(79.4%)가 향후 희망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에서도 응답자의 79.4%가 미래에 희망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여 본 조사결과(79.4%)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우 그렇다’(2008년 38.5%, 2020년 28.7%)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도 조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2.2%, ‘별로 그렇지 않다’ 18.3%, ‘다소 그렇다’ 40.9%, ‘매우 그렇다’ 38.5%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그림 III-32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2008년, 2020년)**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직업 낙관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고등학생(M=3.08)이 중학생(M=3.04)보다 직업 낙관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t=-2.069, p<.05$ ).

표 III-49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3	18.3	50.7	28.7	3.06	0.748	-
성별	남자	2.3	17.4	51.7	28.5	3.06	0.741	0.725
	여자	2.3	19.2	49.7	28.8	3.05	0.755	
학교급	중학교	2.7	18.3	51.6	27.4	3.04	0.751	-2.069*
	고등학교	2.0	18.2	50.0	29.9	3.08	0.744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2.2	18.7	50.3	28.9	3.06	0.748	0.904
	중소도시 <sup>b</sup>	2.4	18.1	51.7	27.8	3.05	0.744	
	읍면지역 <sup>c</sup>	2.4	17.4	49.1	31.0	3.09	0.758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05$ , \*\* $p<.01$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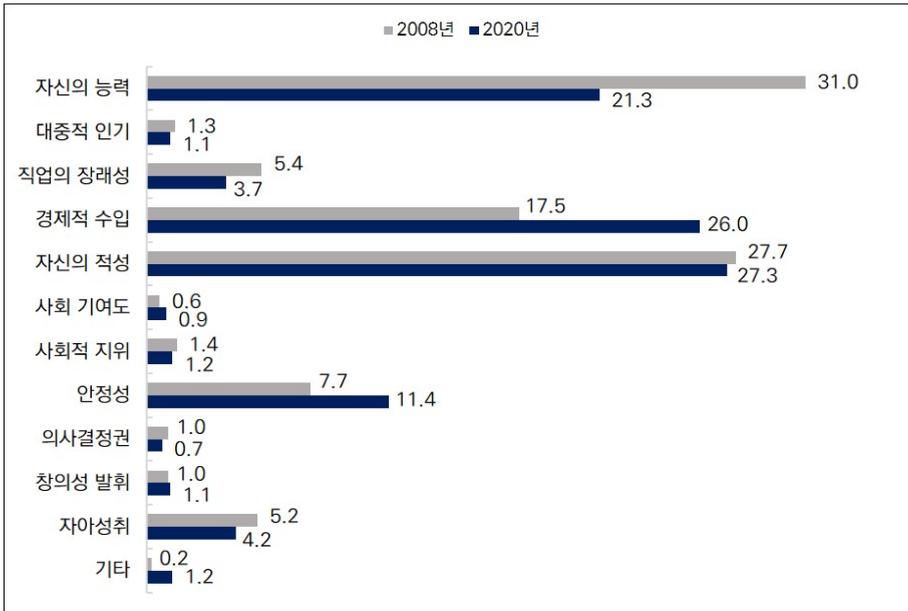
### (5)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

12가지 보기 중 직업 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27.3%)과 ‘경제적 수입’(26.0%)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이어서 ‘자신의 능력’(21.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sup>15)</sup>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응답)으로 ‘자신의 능력’(31.0%)과 ‘자신의 적성’(27.7%)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수입’(17.5%) 등의 순으로 대답하였다.

15)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에서는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해 12개의 보기 중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결과 간 비교를 위해 1순위 응답 자료(백혜정 외, 2017:124)만을 활용함.

즉, 직업 선택 시 경제적 수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률(2008년 17.5%, 2020년 26.0%)은 2008년 대비 증가한 반면,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률(2008년 31.0%, 2020년 21.3%)은 감소하는 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 출처 : 2008년 청소년가치관조사 결과는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124) 자료를 인용함.

\* 주: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에서는 12가지 보기에 대해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이 중 본 연구에서는 1순위 응답 자료(백혜정 외, 2017:124)만을 활용함.

그림 III-33 직업 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2008년, 2020년)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을 확인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성별로 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수입'(26.5%)을 1순위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적성'(29.5%)을 1순위로 응답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chi^2=32.368, p<.001$ ). 학교급별로 살펴

보면, 중학생의 경우 ‘경제적 수입’(26.2%)을,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적성’(29.0%)을 1순위로 꼽았다. 한편,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률은 중학생(24.4%)이 고등학생(18.4%)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의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chi^2=84.468$ ,  $p<.001$ ).

표 III-50 직업 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2020년)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chi^2$	
전체	21.3	1.1	3.7	26.0	27.3	0.9	1.2	11.4	0.7	1.1	4.2	1.2	-	
성별	남자	22.3	1.2	3.8	26.5	25.4	1.0	1.1	10.4	0.8	1.2	4.9	1.3	32.368***
	여자	20.2	1.0	3.5	25.3	29.5	0.8	1.4	12.4	0.6	0.9	3.3	1.2	
학교 급	중학교	24.4	1.2	2.7	26.2	25.5	0.6	1.3	12.5	0.6	1.2	2.6	1.2	84.468***
	고등학교	18.4	1.0	4.5	25.7	29.0	1.2	1.2	10.4	0.8	1.0	5.5	1.3	
지역 규모	대도시	21.9	1.0	3.9	27.7	25.4	1.0	1.4	11.0	0.6	1.3	3.8	1.0	32.055
	중소도시	20.8	1.2	3.7	25.5	27.9	0.7	1.1	11.8	0.7	0.9	3.9	1.6	
	읍면지역	21.2	0.9	2.8	22.8	30.5	1.1	1.2	11.0	0.9	1.1	5.7	0.9	

\* 주: 1) ① 자신의 능력, ② 대중적 인기, ③ 직업의 장래성, ④ 경제적 수입, ⑤ 자신의 적성, ⑥ 사회 기여도, ⑦ 사회적 지위, ⑧ 안정성, ⑨ 의사결정권, ⑩ 창의성 발휘, ⑪ 자아성취, ⑫ 기타  
2) \* $p<.05$ , \*\* $p<.01$ , \*\*\* $p<.001$

#### 4) 학교 및 친구관

##### (1)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88.1%는 만족한다(매우 그렇다 31.4%+그런 편이다 56.7%)고 응답한 반면, 11.9%는 불만족한다(전혀 그렇지 않다 2.4%+그렇지 않은 편이다 9.5%)고 대답하였다. 학교는 가정 이외에 학생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그들의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조성 등의 보다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III-51 나는 현재 학교생활에 만족한다(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4	9.5	56.7	31.4	3.17	0.690	-	
성별	남자	2.8	8.6	55.0	33.5	3.19	0.705	2.601**
	여자	2.0	10.5	58.5	29.0	3.15	0.674	
학교급	중학교	1.8	8.8	57.0	32.3	3.20	0.668	3.002**
	고등학교	2.9	10.2	56.4	30.5	3.14	0.710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2.4	9.0	56.4	32.3	3.19	0.688	0.940
	중소도시 <sup>b</sup>	2.4	9.8	57.1	30.6	3.16	0.690	
	읍면지역 <sup>c</sup>	2.5	10.1	56.3	31.2	3.16	0.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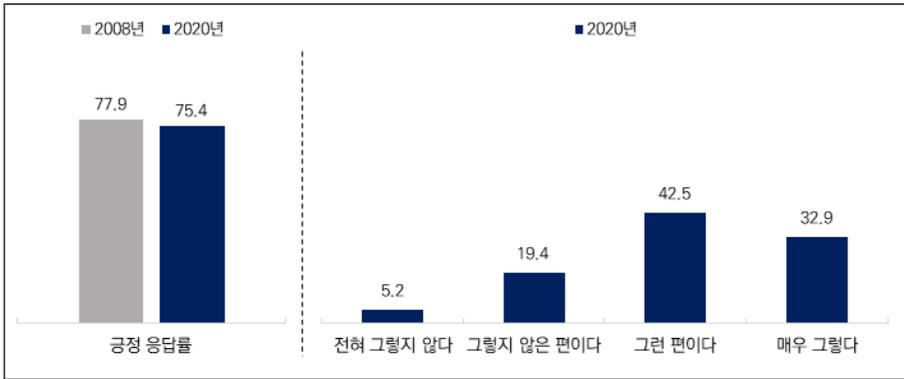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M=3.19)

이 여자 청소년(M=3.15)보다( $t=2.601, p<.01$ ), 그리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M=3.20)이 고등학생(M=3.14)보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3.002, p<.01$ ).

## (2) 학교에 대한 견해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문항은 '학교에 다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문항은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임.  
 2)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5.6%, '별로 그렇지 않다' 16.4%, '다소 그렇다' 35.5%, '매우 그렇다' 42.4%임.  
 3)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그림 III-34 학교에 대한 견해(2008년, 2020년)

'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한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4%가 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한다(매우 그렇다 32.9%+그런 편이다 42.5%)고 답한 반면, 24.6%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2%+그렇지 않은 편이다 19.4%)고 응답하였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에 다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에 대해 77.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2020년도(75.4%) 본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매우

그렇다’(2008년 42.4%, 2020년 32.9%)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도 대비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학교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별, 학교급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남자 청소년(M=3.15)이 여자 청소년(M=2.90)보다( $t=10.884, p<.001$ ), 중학생(M=3.11)이 고등학생(M=2.95)보다 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7.086, p<.001$ ).

표 III-52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5.2	19.4	42.5	32.9	3.03	0.855	-
성별	남자	4.0	15.9	41.5	38.6	3.15	0.827	10.884***
	여자	6.5	23.2	43.6	26.7	2.90	0.867	
학교급	중학교	3.9	16.3	44.5	35.4	3.11	0.811	7.086***
	고등학교	6.4	22.3	40.7	30.6	2.95	0.886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5.4	18.3	43.4	33.0	3.04	0.852	0.351
	중소도시 <sup>b</sup>	5.0	20.3	41.5	33.1	3.03	0.858	
	읍면지역 <sup>c</sup>	5.4	19.7	43.2	31.7	3.01	0.854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05$ , \*\* $p<.01$ , \*\*\* $p<.001$

### (3) 친구 선택 기준

8가지 보기 중에 친구를 사귄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함께 있으면 즐거운 것’(49.7%)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서 ‘성격이 좋은 것’(17.3%),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15.5%),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9.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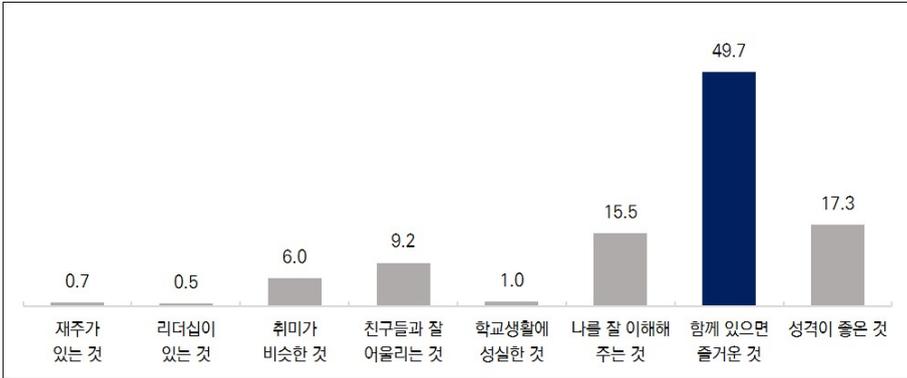


그림 III-35 친구를 사귄 때 가장 중요한 것(2020년)

구체적으로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성별로 보면, 1순위는 남녀 모두 '함께 있으면 즐거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응답률은 여자 청소년(56.0%)이 남자 청소년(43.9%)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2순위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성격이 좋은 것'(19.3%)으로,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18.2%)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 '취미가 비슷한 것'(남 8.8%, 여 3.1%),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남 12.1%, 여 6.1%)에 대한 응답률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chi^2=237.389$ ,  $p<.001$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순위로 나타났지만, '취미가 비슷한 것'에 대한 응답률은 중학생(7.3%)이 고등학생(4.8%)보다, '성격이 좋은 것'에 대한 응답률은 고등학생(18.2%)이 중학생(16.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chi^2=24.050$ ,  $p<.01$ ).

표 III-53 친구를 사귄 때 가장 중요한 것(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chi^2$
전체		0.7	0.5	6.0	9.2	1.0	15.5	49.7	17.3	-
성별	남자	1.2	0.8	8.8	12.1	0.9	13.0	43.9	19.3	237.389***
	여자	0.3	0.2	3.1	6.1	1.0	18.2	56.0	15.2	
학교급	중학교	0.8	0.3	7.3	8.8	0.8	15.9	49.6	16.4	24.050**
	고등학교	0.7	0.7	4.8	9.6	1.1	15.1	49.8	18.2	
지역 규모	대도시	0.8	0.4	5.8	8.0	0.9	15.7	51.2	17.2	17.029
	중소도시	0.8	0.5	6.1	9.9	1.0	14.9	49.5	17.3	
	읍면지역	0.3	1.0	6.2	10.3	1.0	16.9	46.5	17.7	

\* 주: 1) ① 춤, 노래, 운동, 유머 등 재주가 있는 것, ② 리더십이 있는 것, ③ 취미가 비슷한 것, ④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 ⑤ 학교생활에 성실한 것, ⑥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⑦ 함께 있으면 즐거운 것, ⑧ 성격이 좋은 것  
2) \* $p < .05$ , \*\* $p < .01$ , \*\*\* $p < .001$

#### (4) 온라인 활동에 대한 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을 통한 활동(온라인 수업, 온라인 청소년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매우 부정적이다’(1점), ‘부정적인 편이다’(2점), ‘긍정적인 편이다’(3점), ‘매우 긍정적이다’(4점)의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 ①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71.7%는 긍정적으로(매우 긍정적이다 22.9%+긍정적인 편이다 48.8%), 28.2%는 부정적으로(매우 부정적이다 7.1%+부정적인 편이다 21.1%) 평가하였다. 즉, 청소년 10명 중 3명 정도(28.2%)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견해’를 살펴

보면, 지역규모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M=2.93)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M=2.83)보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F=7.431,  $p < .001$ ).

표 III-54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견해(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1	21.1	48.8	22.9	2.88	0.842	-
성별	남자	8.9	20.2	46.8	24.1	2.86	0.883	-1.431
	여자	5.1	22.2	51.0	21.7	2.89	0.795	
학교급	중학교	6.9	20.2	52.3	20.6	2.87	0.816	-0.851
	고등학교	7.2	22.0	45.6	25.1	2.89	0.865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6.2	20.2	48.3	25.3	2.93	0.836	7.431*** (a>b)
	중소도시 <sup>b</sup>	8.2	21.0	50.0	20.8	2.83	0.848	
	읍면지역 <sup>c</sup>	5.7	24.2	46.6	23.5	2.88	0.831	

\* 주: 1)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부정적인 편이다, ③ 긍정적인 편이다, ④ 매우 긍정적이다

2) \* $p < .05$ , \*\* $p < .01$ , \*\*\* $p < .001$

## ② 온라인 청소년활동에 대한 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 진로탐색활동 등의 온라인 청소년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매우 부정적이다’(1점)부터 ‘매우 긍정적이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64.1%는 온라인 청소년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매우 긍정적이다 13.9%+긍정적인 편이다 50.2%)하였으나, 35.9%는 부정적으로 인식(매우 부정적이다 9.6%+부정적인 편이다 26.3%)하였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심리·정서 발달, 진로발달, 사회성 및 대인관계 발달,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 향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임희진 외, 2019).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온라인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플랫폼 구축 등의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청소년활동에 대한 효과 검증을 통해 이를 보완·개선해 나아가려는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III-55 온라인 청소년활동에 대한 견해(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9.6	26.3	50.2	13.9	2.68	0.828	-
성별	남자	11.4	26.0	48.4	14.1	2.65	-3.068**
	여자	7.6	26.6	52.1	13.7	2.72	
학교급	중학교	8.1	25.9	53.7	12.3	2.70	1.476
	고등학교	10.9	26.7	47.0	15.4	2.67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8.8	26.1	49.5	15.5	2.72	4.553* (a>b)
	중소도시 <sup>b</sup>	10.3	26.7	50.6	12.3	2.65	
	읍면지역 <sup>c</sup>	9.2	25.4	50.7	14.7	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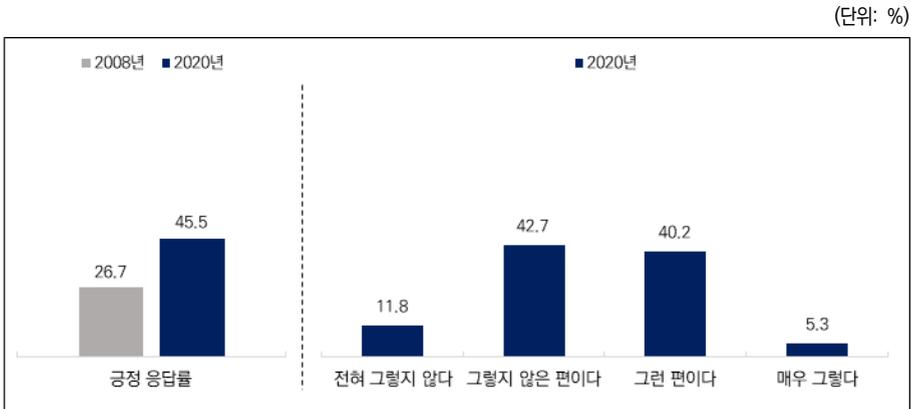
\* 주: 1)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부정적인 편이다, ③ 긍정적인 편이다, ④ 매우 긍정적이다  
 2) \* $p < .05$ , \*\* $p < .01$ , \*\*\* $p < .001$

한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청소년활동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과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M=2.72)이 남자 청소년(M=2.65)보다( $t=-3.068$ ,  $p < .01$ ), 그리고 대도시 청소년(M=2.72)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M=2.65)보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청소년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F=4.553$ ,  $p < .05$ ).

## 5) 사회 및 국가관

### (1)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공정

우리 사회가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45.5%가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그렇다 5.3%+그런 편이다 40.2%).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와 비교해 보면, 2008년도(26.7%) 보다 우리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과반수(54.5%)가 우리 사회를 공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문항은 '우리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2020년 문항은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임.  
 2)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24.0%, '별로 그렇지 않다' 49.3%, '다소 그렇다' 23.1%, '매우 그렇다' 3.6%임.  
 3)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그림 III-36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공정(2008년, 2020년)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공정’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자 청소년(M=2.45)이 여자 청소년(M=2.33)보다( $t=5.789, p<.001$ ), 중학생(M=2.46)이 고등학생(M=2.33)보다 우리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t=6.217, p<.001$ ).

표 III-56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1.8	42.7	40.2	5.3	2.39	0.761	-
성별	남자	12.1	38.3	42.6	7.0	2.45	0.793	5.789***
	여자	11.4	47.5	37.7	3.4	2.33	0.719	
학교급	중학교	10.8	39.3	43.5	6.4	2.46	0.769	6.217***
	고등학교	12.6	45.9	37.2	4.3	2.33	0.748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12.5	43.3	39.3	4.9	2.37	0.762	1.986
	중소도시 <sup>b</sup>	11.2	42.6	41.2	5.0	2.40	0.751	
	읍면지역 <sup>c</sup>	11.6	41.8	39.7	7.0	2.42	0.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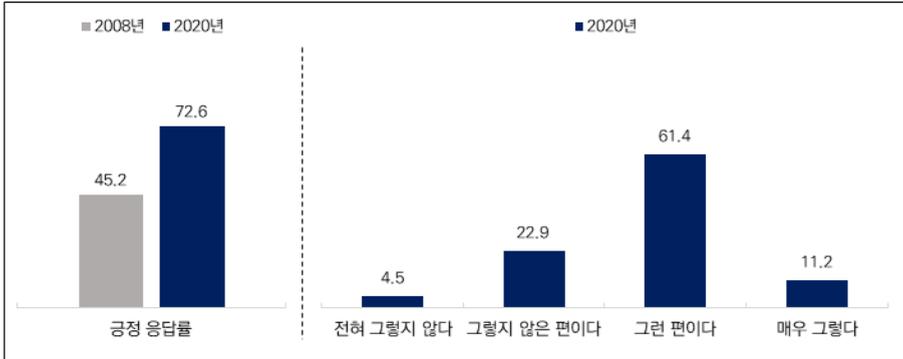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05$ , \*\* $p<.01$ , \*\*\* $p<.001$

## (2)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인권 존중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인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청소년들의 72.6%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11.2%+그런 편이다 61.4%)고 대답하였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에서는 45.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우리 사회를 인권 존중 사회로 인식하는 비율은 2008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인권 존중 사회라는 인식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 현상이다. 다만, 우리 사회가 인권 존중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10명

중 3명 정도(27.4%)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의 보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2.9%, '별로 그렇지 않다' 41.8%, '다소 그렇다' 38.9%, '매우 그렇다' 6.3%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 그림 III-37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2008년, 2020년)

표 III-57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4.5	22.9	61.4	11.2	2.79	0.691	-	
성별	남자	4.0	19.2	63.2	13.5	2.86	0.685	8.000***
	여자	5.0	26.9	59.5	8.6	2.72	0.690	
학교급	중학교	3.6	20.3	63.2	12.9	2.85	0.675	6.491***
	고등학교	5.3	25.3	59.8	9.6	2.74	0.701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4.9	22.5	61.8	10.7	2.78	0.695	0.612
	중소도시 <sup>b</sup>	4.2	23.1	62.1	10.6	2.79	0.679	
	읍면지역 <sup>c</sup>	4.4	23.5	58.2	13.9	2.81	0.720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인권 존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청소년(M=2.86)이 여자 청소년(M=2.72)보다( $t=8.000, p<.001$ ),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M=2.85)이 고등학생(M=2.74)보다 우리 사회가 인권 존중 사회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6.491, p<.001$ ).

### (3)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다양성 인정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인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매우 그렇다'가 10.4%, '그런 편이다'가 55.4%로 나타나 응답자의 65.8%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라고 평가하였다.

표 III-58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5.7	28.5	55.4	10.4	2.71	0.729	-	
성별	남자	4.4	23.8	58.9	12.8	2.80	10.413***	
	여자	7.1	33.5	51.6	7.8	2.60		0.734
학교급	중학교	4.5	24.1	59.1	12.3	2.79	8.626***	
	고등학교	6.8	32.4	52.0	8.7	2.63		0.738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6.1	28.9	54.8	10.2	2.69	1.505	
	중소도시 <sup>b</sup>	5.7	27.6	56.9	9.8	2.71		0.720
	읍면지역 <sup>c</sup>	4.6	29.9	52.5	13.1	2.74		0.739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05$ , \*\* $p<.01$ , \*\*\* $p<.001$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별과 학교급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남자 청소년

(M=2.80)이 여자 청소년(M=2.60)보다( $t=10.413, p<.001$ ), 그리고 중학생(M=2.79)이 고등학생(M=2.63)보다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t=8.626, p<.001$ ).

(4)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남녀평등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이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54.7%가 우리 사회를 남녀평등 사회라고 응답(매우 그렇다 10.4%+그런 편이다 44.3%)하였다. 일반적 특성별로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남녀평등’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M=2.67)이 여자 청소년(M=2.40)보다( $t=12.853, p<.001$ ),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M=2.62)이 고등학생(M=2.46)보다 남녀평등 사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7.210, p<.001$ ).

표 III-59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이다(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1.1	34.2	44.3	10.4	2.54	0.824	-
성별	남자	9.3	29.3	46.5	14.9	2.67	12.853***
	여자	13.2	39.6	41.9	5.4	2.40	
학교급	중학교	9.8	30.5	47.5	12.2	2.62	7.210***
	고등학교	12.3	37.7	41.3	8.7	2.46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11.8	34.7	43.6	9.9	2.52	1.462
	중소도시 <sup>b</sup>	11.1	32.8	45.3	10.8	2.56	
	읍면지역 <sup>c</sup>	9.6	37.5	42.8	10.1	2.53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05$ , \*\* $p<.01$ , \*\*\* $p<.001$

(5)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지원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기회와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표 III-60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지원(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4.8	18.4	62.4	14.3	2.86	0.708	-
성별	남자	5.0	16.2	63.8	15.1	2.89	0.706	3.044**
	여자	4.7	20.9	60.9	13.5	2.83	0.709	
학교급	중학교	3.1	13.5	66.0	17.4	2.98	0.659	11.764***
	고등학교	6.3	23.0	59.1	11.6	2.76	0.736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4.8	17.0	63.6	14.6	2.88	0.702	2.568
	중소도시 <sup>b</sup>	4.8	18.5	62.3	14.4	2.86	0.710	
	읍면지역 <sup>c</sup>	4.9	21.9	59.8	13.4	2.82	0.718	

\* 주: 1) 문항은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청소년활동(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등에 참여할 기회와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임.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3) \* $p < .05$ , \*\* $p < .01$ , \*\*\* $p < .001$

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76.7%는 우리 사회가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에 대한 기회와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매우 그렇다 14.3%+그런 편이다 62.4%)고 응답한 반면, 23.2%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4.8%+그렇지 않은 편이다 18.4%)고 평가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정책목표 중 하나로 삼고, 관련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특히,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의,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년 5월 11일). 이처럼 제도적·정책적으로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노력들은 매우 중요하며 지속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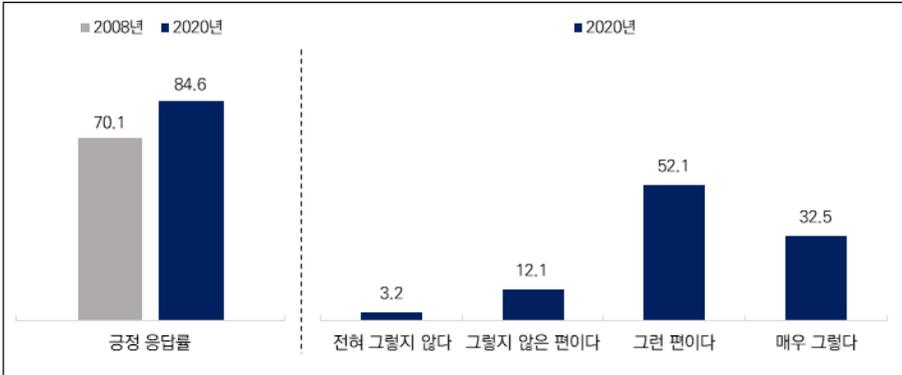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지원’에 대해 남자 청소년( $M=2.89$ )이 여자 청소년( $M=2.83$ )보다( $t=3.044$ ,  $p<.01$ ), 그리고 중학생( $M=2.98$ )이 고등학생( $M=2.76$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11.764$ ,  $p<.001$ ).

#### (6)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84.6%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그렇다 32.5%+그런 편이다 52.1%).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와 비교해보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도(70.1%)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자세히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 $M=3.16$ )이 여자 청소년( $M=3.11$ )보다( $t=2.479$ ,  $p<.05$ ), 중학생( $M=3.28$ )이 고등학생( $M=3.01$ )보다( $t=13.453$ ,  $p<.001$ ), 그리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M=3.17$ )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M=3.10$ )보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F=5.064$ ,  $p<.01$ ).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6.4%, '별로 그렇지 않다' 23.5%, '다소 그렇다' 42.8%, '매우 그렇다' 27.3%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그림 III-38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2008년, 2020년)

표 III-61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2020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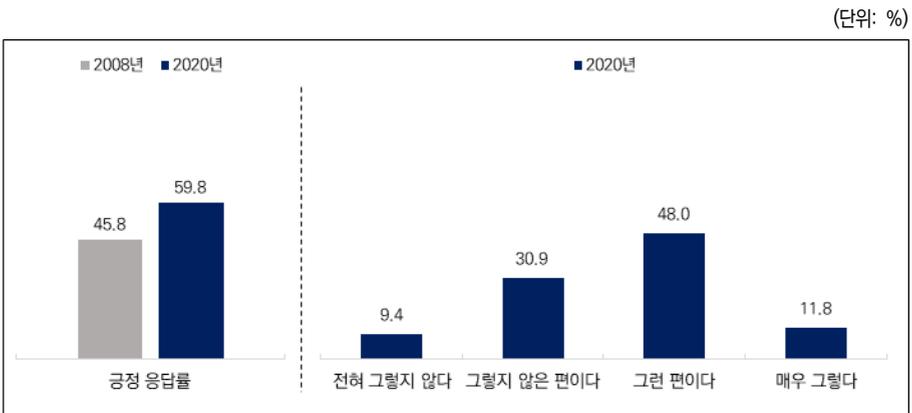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2	12.1	52.1	32.5	3.14	0.746	-
성별	남자	3.6	11.7	49.7	35.0	3.16	0.765	2.479*
	여자	2.9	12.7	54.8	29.7	3.11	0.725	
학교급	중학교	2.2	9.3	47.2	41.3	3.28	0.721	13.453***
	고등학교	4.2	14.7	56.7	24.4	3.01	0.747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3.9	12.3	53.8	30.1	3.10	0.754	5.064** (b>a)
	중소도시 <sup>b</sup>	2.8	12.2	50.3	34.7	3.17	0.745	
	읍면지역 <sup>c</sup>	2.8	11.6	53.6	32.1	3.15	0.725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 < .05$ , \*\* $p < .01$ , \*\*\* $p < .001$

(7) 나라가 위급 시 무엇이든 하겠는지에 관한 견해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는지에 대해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10명 중 6명 정도(59.8%)가 나라가 위급 시 무엇이든 하겠다(매우 그렇다 11.8%+그런 편이다 48.0%)고 응답하였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의 해당 문항과 비교해보면, 본 조사의 긍정 응답률은 2008년도(45.8%)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6.2%, '별로 그렇지 않다' 38.0%, '다소 그렇다' 36.2%, '매우 그렇다' 9.6%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그림 III-39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2008년, 2020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자 청소년(M=2.66)이 여자 청소년(M=2.58)보다( $t=3.599, p<.001$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M=2.71)이 고등학생(M=2.54)보다 나라가 위급 시 무엇이든 하겠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8.309, p<.001$ ).

표 III-62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9.4	30.9	48.0	11.8	2.62	0.812	-	
성별	남자	10.3	28.4	46.6	14.7	2.66	3.599***	
	여자	8.5	33.5	49.5	8.5	2.58		0.764
학교급	중학교	6.9	28.1	51.9	13.2	2.71	8.309***	
	고등학교	11.7	33.4	44.4	10.5	2.54		0.833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9.7	30.6	49.4	10.3	2.60	0.862	
	중소도시 <sup>b</sup>	8.9	31.1	47.8	12.1	2.63		0.809
	읍면지역 <sup>c</sup>	10.0	30.8	44.8	14.4	2.64		0.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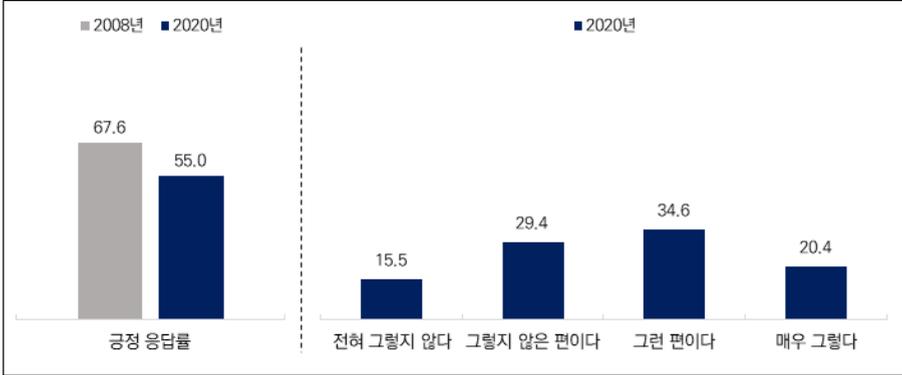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 < .05$ , \*\* $p < .01$ , \*\*\* $p < .001$

### (8) 남북통일의 필요성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55.0%가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매우 그렇다 20.4%+그런 편이다 34.6%)고 응답하였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와 비교해보면,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2008년도(67.6%) 대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2020년도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자 청소년( $M=2.66$ )이 여자 청소년( $M=2.53$ )보다( $t=5.129, p < .001$ ), 그리고 중학생( $M=2.70$ )이 고등학생( $M=2.51$ )보다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t=7.432, p < .001$ ).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문항은 '여러분은 남북통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2020년 문항은 '나는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임.
- 2) 2008년 결과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9.2%, '별로 필요하지 않다' 23.2%, '다소 필요하다' 42.8%, '매우 필요하다' 24.8%임.
- 3)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필요하다+다소 필요하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 그림 III-40 남북통일의 필요성(2008년, 2020년)

표 III-63 나는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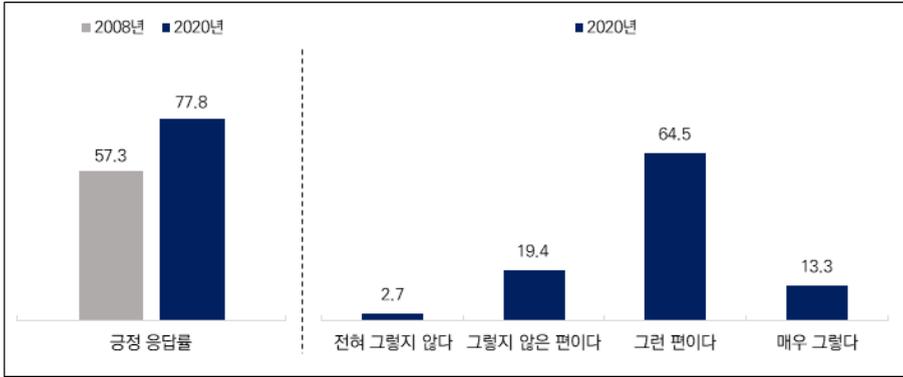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5.5	29.4	34.6	20.4	2.60	0.979	-	
성별	남자	16.5	25.5	33.2	24.7	2.66	1.024	5.129***
	여자	14.5	33.7	36.2	15.7	2.53	0.923	
학교급	중학교	12.8	28.6	34.5	24.1	2.70	0.975	7.432***
	고등학교	18.0	30.3	34.8	16.9	2.51	0.974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15.0	29.9	36.3	18.7	2.59	0.958	0.929
	중소도시 <sup>b</sup>	16.0	29.4	33.6	21.0	2.60	0.990	
	읍면지역 <sup>c</sup>	15.4	28.1	33.5	22.9	2.64	0.999	

-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 2)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9) 길거리에서 위험 시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임에 관한 견해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문항은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해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임.  
 2)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5.2%, '별로 그렇지 않다' 37.4%, '다소 그렇다' 47.7%, '매우 그렇다' 9.6%임.  
 3)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그림 III-41 길거리에서 위험 시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임에 관한 견해 (2008년, 2020년)**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해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에 대해 청소년들의 77.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13.3%+그런 편이다 64.5%)고 응답하였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와 비교해보면, 길거리에서 위험 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도(57.3%)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별로 2020년도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M=2.90)이 여자 청소년(M=2.86)보다( $t=2.355, p<.05$ ), 그리고 중학생(M=2.91)이 고등학생(M=2.86)보다 길거리에서 위험 시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2.636, p<.01$ ).

표 III-64 길거리에서 위험 시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임에 관한 견해(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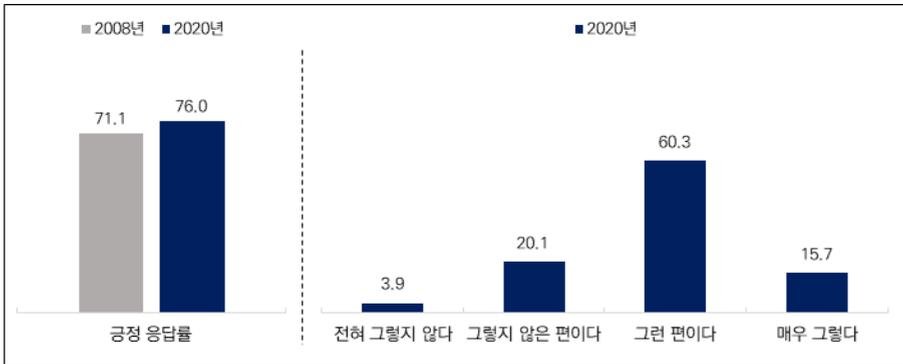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7	19.4	64.5	13.3	2.88	0.651	-
성별	남자	3.5	18.1	63.0	15.4	2.90	0.682	2.355*
	여자	2.0	20.8	66.2	11.1	2.86	0.615	
학교급	중학교	2.3	18.4	65.4	13.9	2.91	0.638	2.636**
	고등학교	3.1	20.3	63.7	12.8	2.86	0.662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2.5	20.1	63.9	13.5	2.88	0.651	1.871
	중소도시 <sup>b</sup>	2.9	19.4	64.9	12.7	2.87	0.651	
	읍면지역 <sup>c</sup>	2.6	17.4	65.1	14.9	2.92	0.650	

- \* 주: 1) 문항은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해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임.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3) \*p<.05, \*\*p<.01, \*\*\*p<.001

(10)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조에 관한 견해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문항은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임.  
 2)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4.4%, '별로 그렇지 않다' 24.4%, '다소 그렇다' 52.0%, '매우 그렇다' 19.1%임.  
 3)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그림 III-42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조에 관한 견해(2008년, 2020년)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15.7%, ‘그런 편이다’가 60.3%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76.0%가 다른 나라의 원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와 비교해보면, 다른 나라 원조에 관한 긍정 응답률은 2008년도(71.1%)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5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조에 관한 견해(2020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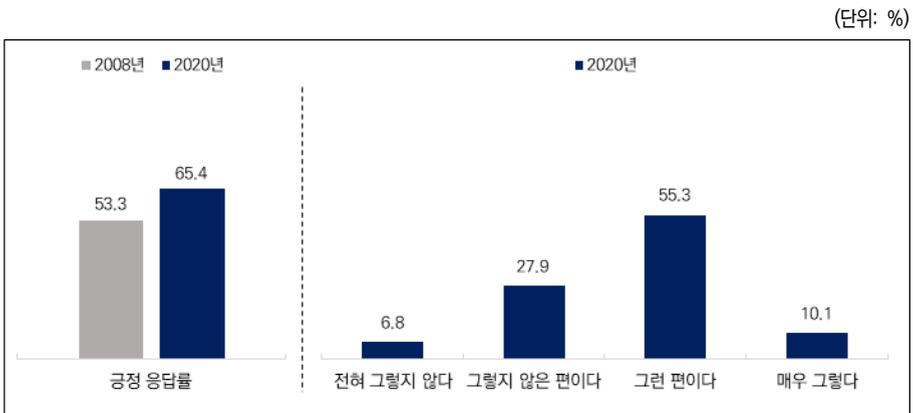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9	20.1	60.3	15.7	2.88	0.706	-
성별	남자	5.2	21.2	56.8	16.7	2.85	0.753	-3.152**
	여자	2.4	18.9	64.1	14.6	2.91	0.650	
학교급	중학교	2.9	19.8	61.2	16.1	2.90	0.683	2.670**
	고등학교	4.7	20.5	59.4	15.4	2.85	0.726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3.3	20.8	59.4	16.4	2.89	0.703	0.623
	중소도시 <sup>b</sup>	4.0	19.6	61.2	15.2	2.88	0.702	
	읍면지역 <sup>c</sup>	4.9	19.9	59.7	15.5	2.86	0.728	

\* 주: 1) 문항은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임.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3) \* $p < .05$ , \*\* $p < .01$ , \*\*\* $p < .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조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보면, 여자 청소년( $M=2.91$ )이 남자 청소년( $M=2.85$ )보다( $t=-3.152$ ,  $p < .01$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 $M=2.90$ )이 고등학생( $M=2.85$ ) 보다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2.670$ ,  $p < .01$ ).

### (11) 집단 이익을 위한 나의 희생에 관한 견해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65.4%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10.1%+그런 편이다 55.3%)고 응답하였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와 비교해보면, 집단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08년도(53.5%)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8.1%, ‘별로 그렇지 않다’ 38.7%, ‘다소 그렇다’ 44.6%, ‘매우 그렇다’ 8.7%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그림 III-43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2008년, 2020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2020년도 ‘집단 이익을 위한 나의 희생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남자 청소년(M=2.71)이 여자 청소년(M=2.67)보다( $t=1.983, p<.05$ ),

그리고 중학생(M=2.71)이 고등학생(M=2.6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2.363,  $p<.05$ ).

표 III-66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6.8	27.9	55.3	10.1	2.69	0.743	-
성별	남자	7.6	26.0	54.8	11.7	2.71	0.770	1.983*
	여자	5.9	29.9	55.9	8.3	2.67	0.712	
학교급	중학교	5.8	27.7	56.1	10.4	2.71	0.727	2.363*
	고등학교	7.7	28.0	54.5	9.8	2.66	0.756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6.2	28.3	56.2	9.3	2.69	0.725	0.002
	중소도시 <sup>b</sup>	6.5	28.7	54.4	10.4	2.69	0.745	
	읍면지역 <sup>c</sup>	8.8	24.4	55.9	10.9	2.69	0.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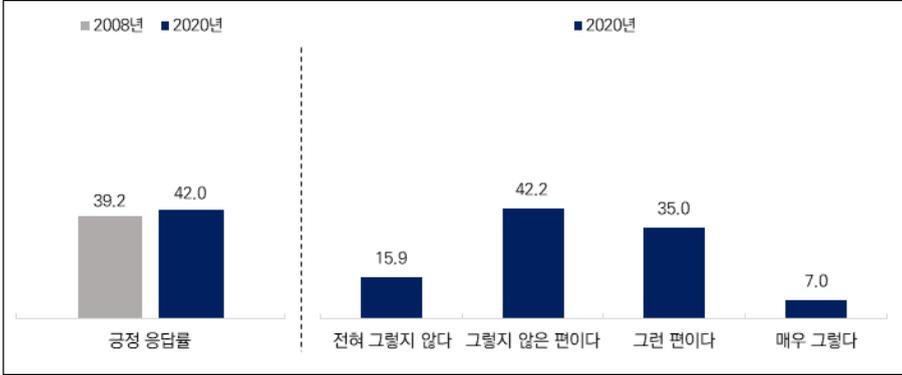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05$ , \*\* $p<.01$ , \*\*\* $p<.001$

### (12)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 설치에 관한 견해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은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42.0%는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매우 그렇다 7.0%+그런 편이다 35.0%)고 반응하였으며, 58.1%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5.9%+그렇지 않은 편이다 42.2%)고 응답하였다. 즉, 청소년 10명 중 6명 정도(58.1%)는 거주지 내 혐오시설 설치에 반대하였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08년 39.2%, 2020년 42.0%).

(단위: %)



\* 출처: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5.7%, '별로 그렇지 않다' 45.0%, '다소 그렇다' 32.3%, '매우 그렇다' 6.9%임.

2)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 그림 III-44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2008년, 2020년)

표 III-67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5.9	42.2	35.0	7.0	2.33	0.824	-	
성별	남자	17.0	38.1	36.8	8.1	2.36	0.856	2.932**
	여자	14.7	46.5	33.0	5.7	2.30	0.786	
학교급	중학교	16.7	42.7	33.5	7.1	2.31	0.831	-1.808
	고등학교	15.1	41.7	36.3	6.8	2.35	0.817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15.1	43.5	34.7	6.8	2.33	0.812	0.355
	중소도시 <sup>b</sup>	16.3	42.3	34.4	7.0	2.32	0.827	
	읍면지역 <sup>c</sup>	16.9	38.3	37.5	7.2	2.35	0.843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 < .05$ , \*\* $p < .01$ , \*\*\* $p < .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 설치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확인했으며,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M=2.36)이 여자 청소년(M=2.30)보다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괜찮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t=2.932,  $p<.01$ ).

### (13)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권리 희생에 관한 견해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내 개인적 권리 일부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III-68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권리 희생에 관한 견해(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6.2	19.3	54.7	19.8	2.88	0.791	-	
성별	남자	7.7	20.1	51.6	20.6	2.85	-3.088**	
	여자	4.6	18.4	58.0	19.0	2.91		0.741
학교급	중학교	5.7	20.3	53.4	20.7	2.89	0.863	
	고등학교	6.7	18.3	55.9	19.0	2.87		0.791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5.9	19.0	54.9	20.3	2.90	0.966	
	중소도시 <sup>b</sup>	6.2	20.3	54.2	19.3	2.87		0.792
	읍면지역 <sup>c</sup>	6.9	17.1	55.7	20.3	2.89		0.800

\* 주: 1) 문항은 ‘나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면 내 개인적 권리 일부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임.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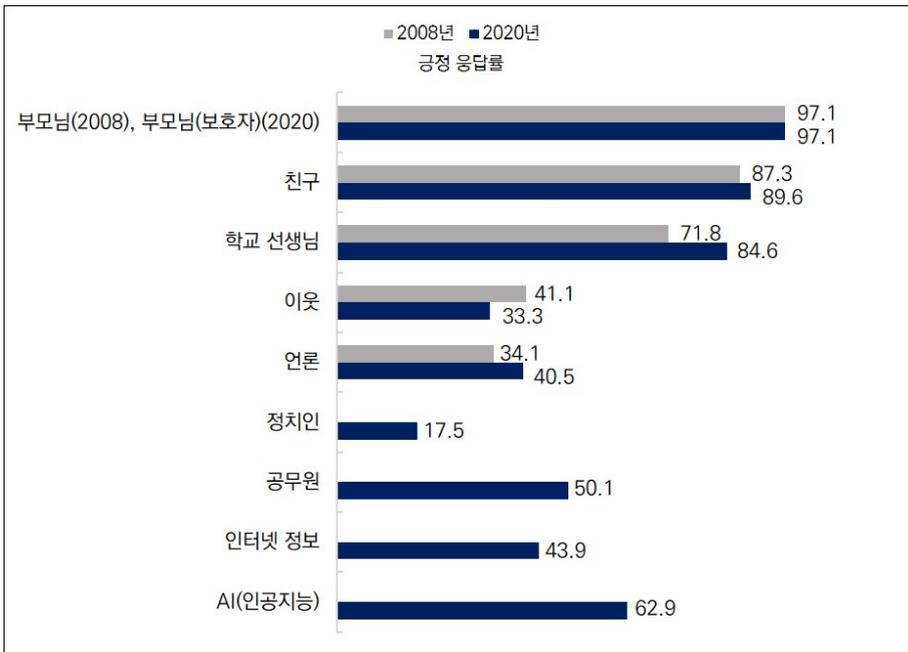
3) \* $p<.05$ , \*\* $p<.01$ , \*\*\* $p<.001$

그 결과, ‘매우 그렇다’가 19.8%, ‘그런 편이다’가 54.7%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74.5%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권리 일부를 희생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권리 희생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M=2.91)이 남자 청소년(M=2.85)보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자신의 권리 일부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3.088, p<.01$ ).

#### (14) 신뢰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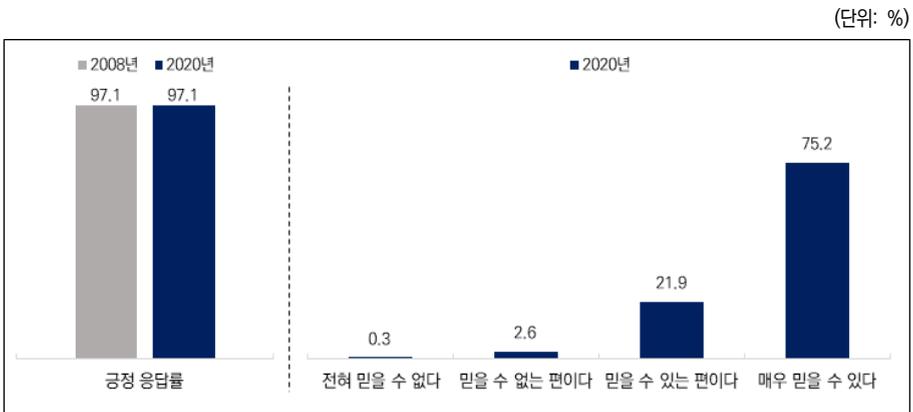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1) 2008년 긍정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다소 중요하다', 2020년 긍정응답률은 '매우 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임.  
2) '정치인', '공무원', '인터넷 정보', 'AI(인공지능)'는 2020년도 신규문항임.

그림 III-45 9가지 대상에 대한 신뢰(2008년, 2020년): 긍정 응답률

이웃, 언론, 인터넷 정보 등 9가지 대상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전혀 믿을 수 없다’(1점)부터 ‘매우 믿을 수 있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모님(97.1%), 친구(89.6%), 학교 선생님(84.6%)을 믿을 수 있다는 긍정 응답률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던 반면, 정치인(17.5%), 이웃(33.3%), 언론(40.5%), 인터넷 정보(43.5%)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자료와 비교해 보면, 학교 선생님(2008년 71.8%, 2020년 84.6%)과 언론(2008년 34.1%, 2020년 40.5%)을 믿을 수 있다는 응답률은 증가하였고, 이웃(2008년 41.1%, 2020년 33.3%)을 믿을 수 있다는 응답률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① 부모님 신뢰도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문항은 ‘부모님’, 2020년 문항은 ‘부모님(보호자)’임.  
 2) 2008년 결과는 ‘전혀 믿을 수 없다’ 0.6%, ‘믿을 수 없는 편이다’ 2.3%, ‘믿을 수 있는 편이다’ 21.9%, ‘매우 믿을 수 있다’ 75.2%임.  
 3) 긍정 응답률은 ‘매우 믿을 수 있다+믿을 수 있는 편이다’임.

그림 Ⅲ-46 부모님 신뢰도(2008년, 2020년)

먼저, 부모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전혀 믿을 수 없다’(1점)부터 ‘매우 믿을 수 있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97.1%)은 부모님을 믿을 수 있다(매우 믿을 수 있다 75.2%+믿을 수 있는 편이다 21.9%)고 응답하였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와 비교한 결과, 부모님을 믿을 수 있다는 긍정 응답률은 2008년도(97.1%)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69 부모님(보호자) 신뢰도(2020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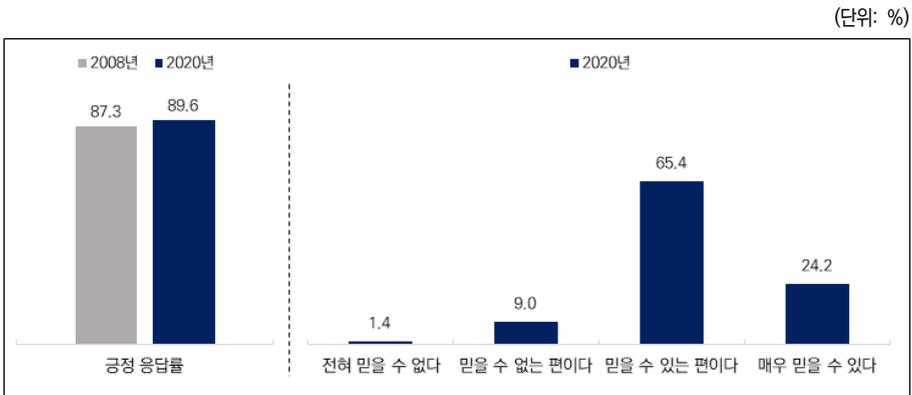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0.3	2.6	21.9	75.2	3.72	0.523	-
성별	남자	0.2	2.3	19.7	77.8	3.75	4.562***
	여자	0.5	2.9	24.2	72.5	3.69	
학교급	중학교	0.3	2.1	20.2	77.4	3.75	3.825***
	고등학교	0.4	3.0	23.4	73.2	3.69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0.5	2.4	21.1	76.0	3.73	0.320
	중소도시 <sup>b</sup>	0.3	2.7	21.9	75.1	3.72	
	읍면지역 <sup>c</sup>	0.0	2.7	23.7	73.7	3.71	

\* 주: 1)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믿을 수 없는 편이다, ③ 믿을 수 있는 편이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2) \* $p < .05$ , \*\* $p < .01$ , \*\*\* $p < .00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부모님(보호자) 신뢰도’를 살펴보면,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자 청소년(M=3.75)이 여자 청소년(M=3.69)보다( $t=4.562$ ,  $p < .001$ ), 그리고 중학생(M=3.75)이 고등학생(M=3.69)보다 부모님(보호자)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3.825$ ,  $p < .001$ ).

## ② 친구 신뢰도

친구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전혀 믿을 수 없다'(1점)부터 '매우 믿을 수 있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확인한 결과, 청소년의 10명 중 9명 정도(89.6%)가 친구를 믿을 수 있다(매우 믿을 수 있다 24.2%+믿을 수 있는 편이다 65.4%)고 대답하였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와 비교해보면, 친구를 신뢰한다는 긍정 응답률은 2008년도(87.3%)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믿을 수 없다' 2.3%, '믿을 수 없는 편이다' 10.5%, '믿을 수 있는 편이다' 65.4%, '매우 믿을 수 있다' 21.9%임.

2) 긍정 응답률은 '매우 믿을 수 있다+믿을 수 있는 편이다'임.

**그림 III-47 친구 신뢰도(2008년, 2020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친구 신뢰도'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M=3.17)이 여자 청소년(M=3.07)보다 친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6.369$ ,  $p<.001$ ).

표 III-70 친구 신뢰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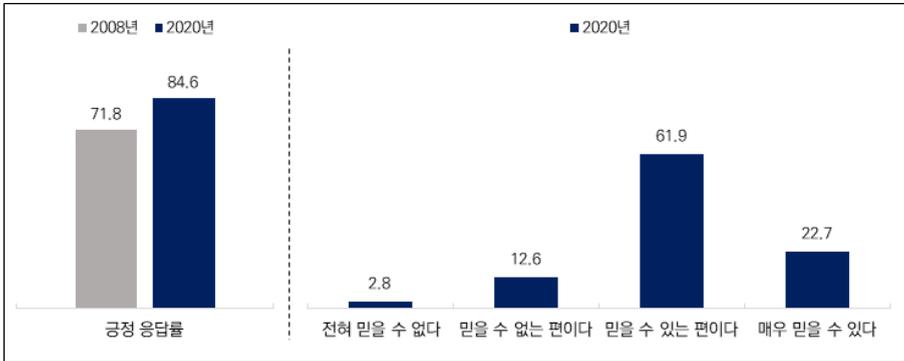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4	9.0	65.4	24.2	3.12	0.612	-	
성별	남자	1.2	7.1	64.9	26.8	3.17	6.369***	
	여자	1.7	11.0	65.9	21.4	3.07		0.622
학교급	중학교	1.6	8.9	66.6	23.0	3.11	-1.664	
	고등학교	1.3	9.0	64.3	25.3	3.14		0.615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1.5	9.1	64.9	24.5	3.12	0.068	
	중소도시 <sup>b</sup>	1.4	8.7	65.7	24.1	3.12		0.609
	읍면지역 <sup>c</sup>	1.4	9.2	65.7	23.7	3.12		0.610

\* 주: 1)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믿을 수 없는 편이다, ③ 믿을 수 있는 편이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2)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③ 학교 선생님 신뢰도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믿을 수 없다' 7.4%, '믿을 수 없는 편이다' 20.8%, '믿을 수 있는 편이다' 53.2%, '매우 믿을 수 있다' 18.6%임.  
 2) 긍정 응답률은 '매우 믿을 수 있다+믿을 수 있는 편이다'임.

그림 III-48 학교 선생님 신뢰도(2008년, 2020년)

학교 선생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매우 믿을 수 있다’가 22.7%, ‘믿을 수 있는 편이다’가 61.9%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84.6%가 학교 선생님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와 본 조사결과를 긍정 응답률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학교 선생님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도(71.8%)에 비해 2020년도(84.6%)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1 학교 선생님 신뢰도(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8	12.6	61.9	22.7	3.05	0.680	-
성별	남자	2.3	9.3	57.9	30.5	3.17	0.681	14.213***
	여자	3.3	16.2	66.3	14.3	2.92	0.654	
학교급	중학교	2.4	11.2	60.9	25.6	3.10	0.673	5.407***
	고등학교	3.1	13.9	62.8	20.1	3.00	0.683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3.4	12.5	62.9	21.2	3.02	0.687	4.372* (c>a)
	중소도시 <sup>b</sup>	2.3	13.6	60.9	23.2	3.05	0.676	
	읍면지역 <sup>c</sup>	2.7	9.8	62.3	25.2	3.10	0.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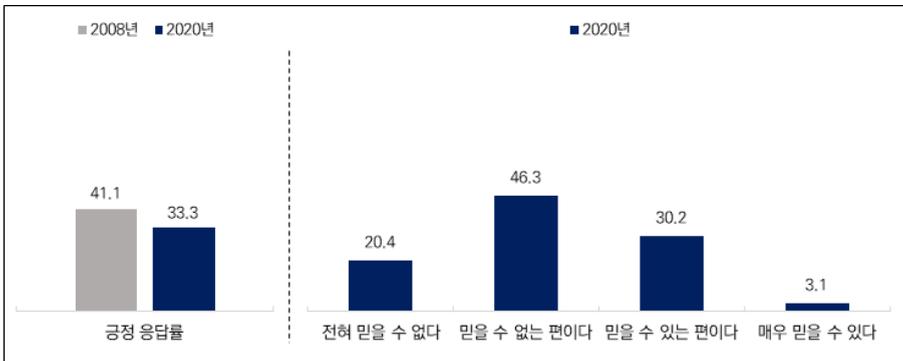
\* 주: 1)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믿을 수 없는 편이다, ③ 믿을 수 있는 편이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2) \* $p < .05$ , \*\* $p < .01$ , \*\*\* $p < .001$

일반적 특성에 따라 2020년도 ‘학교 선생님’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M=3.17)이 여자 청소년(M=2.92)보다( $t=14.213$ ,  $p < .001$ ), 중학생(M=3.10)이 고등학생(M=3.00)보다( $t=5.407$ ,  $p < .001$ ), 그리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M=3.10)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M=3.02)보다 학교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F=4.372$ ,  $p < .05$ ).

#### ④ 이웃 신뢰도

이웃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전혀 믿을 수 없다’(1점)부터 ‘매우 믿을 수 있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매우 믿을 수 있다’가 3.1%, ‘믿을 수 있는 편이다’가 30.2%로 나타나 33.3%가 이웃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응답자의 10명 중 3명 정도(33.3%)만 이웃을 신뢰한다고 대답하여 이웃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와 비교해보면, 이웃을 믿을 수 있다는 긍정 응답률은 2008년도(41.1%)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이웃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긍정 응답률도 2008년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2008년 63.9%, 2020년 52.4%), 이웃을 믿을 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과거보다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믿을 수 없다’ 17.2%, ‘믿을 수 없는 편이다’ 41.6%, ‘믿을 수 있는 편이다’ 36.1%, ‘매우 믿을 수 있다’ 5.0%임.  
 2) 긍정 응답률은 ‘매우 믿을 수 있다+믿을 수 있는 편이다’임.

그림 III-49 이웃 신뢰도(2008년, 2020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이웃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M=2.26)이 여자 청소년(M=2.05)보다(t=10.248,  $p<.001$ ), 그리고 중학생(M=2.22)이 고등학생(M=2.10)보다 이웃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5.670,  $p<.001$ ).

표 III-72 이웃 신뢰도(2020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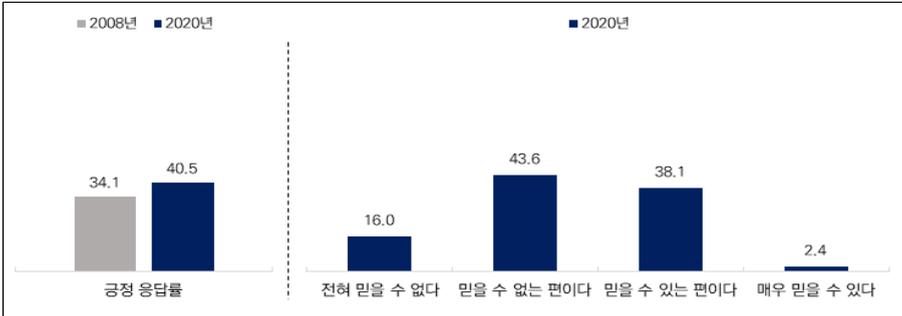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0.4	46.3	30.2	3.1	2.16	0.777	-
성별	남자	17.5	43.7	34.3	4.6	2.26	10.248***
	여자	23.6	49.1	25.8	1.5	2.05	
학교급	중학교	16.6	47.8	32.6	3.0	2.22	5.670***
	고등학교	23.9	45.0	28.0	3.1	2.10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21.2	45.5	30.6	2.7	2.15	2.748
	중소도시 <sup>b</sup>	20.0	47.8	29.4	2.8	2.15	
	읍면지역 <sup>c</sup>	19.8	43.8	31.4	5.0	2.22	

\* 주: 1)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믿을 수 없는 편이다, ③ 믿을 수 있는 편이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2) \* $p<.05$ , \*\* $p<.01$ , \*\*\* $p<.001$

### ⑤ 언론 신뢰도

언론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믿을 수 있다 2.4%+믿을 수 있는 편이다 38.1%)은 40.5%, 믿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전혀 믿을 수 없다 16.0%+믿을 수 없는 편이다 43.6%)은 59.6%로 나타나 청소년 10명 중 6명 정도(59.6%)가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와 비교해보면, 언론을 믿을 수 있다는 응답률은 2008년도(34.1%)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결과는 '전혀 믿을 수 없다' 22.7%, '믿을 수 없는 편이다' 43.2%, '믿을 수 있는 편이다' 29.6%, '매우 믿을 수 있다' 4.5%임.  
 2) 긍정 응답률은 '매우 믿을 수 있다+믿을 수 있는 편이다'임.

그림 III-50 언론 신뢰도(2008년, 2020년)

표 III-73 언론 신뢰도(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6.0	43.6	38.1	2.4	2.27	0.751	-	
성별	남자	18.0	41.4	37.5	3.0	2.26	0.782	-1.286
	여자	13.7	46.0	38.6	1.7	2.28	0.715	
학교급	중학교	14.0	40.9	42.3	2.8	2.34	0.748	6.897***
	고등학교	17.8	46.1	34.2	2.0	2.20	0.747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16.1	43.5	37.7	2.7	2.27	0.757	0.038
	중소도시 <sup>b</sup>	16.1	42.9	38.8	2.2	2.27	0.750	
	읍면지역 <sup>c</sup>	15.1	45.9	36.7	2.3	2.26	0.736	

- \* 주: 1)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믿을 수 없는 편이다, ③ 믿을 수 있는 편이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2) \* $p < .05$ , \*\* $p < .01$ , \*\*\* $p < .001$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언론 신뢰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M=2.34)이 고등학생(M=2.20)보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6.897, p < .001$ ).

## ⑥ 정치인 신뢰도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를 ‘전혀 믿을 수 없다’(1점)부터 ‘매우 믿을 수 있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정치인을 믿을 수 있다는 긍정 응답률(매우 믿을 수 있다 1.0%+믿을 수 있는 편이다 16.5%)은 17.5%, 부정 응답률(전혀 믿을 수 없다 32.9%+믿을 수 없는 편이다 49.5%)은 82.4%로 나타나 청소년 10명 중 8명 정도(82.4%)가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 따른 ‘정치인 신뢰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중학생(M=2.00)이 고등학생(M=1.73)보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14.201, p<.001$ ).

표 III-74 정치인 신뢰도(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2.9	49.5	16.5	1.0	1.86	0.718	-
성별	남자	34.7	47.1	16.8	1.4	1.85	0.741	-0.887
	여자	30.9	52.2	16.2	0.7	1.87	0.693	
학교급	중학교	25.3	50.9	22.7	1.1	2.00	0.724	14.201***
	고등학교	39.8	48.3	10.8	1.0	1.73	0.689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33.1	49.8	15.9	1.2	1.85	0.720	1.139
	중소도시 <sup>b</sup>	32.1	49.6	17.6	0.7	1.87	0.714	
	읍면지역 <sup>c</sup>	34.8	48.9	14.8	1.5	1.83	0.725	

\* 주: 1)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믿을 수 없는 편이다, ③ 믿을 수 있는 편이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2) \* $p<.05$ , \*\* $p<.01$ , \*\*\* $p<.001$

## ⑦ 공무원 신뢰도

공무원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매우 믿을 수 있다’가 3.5%, ‘믿을 수 있는 편이다’가 46.6%로 나타나 청소년의 절반 정도(50.1%)가 공무원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무원

신뢰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학생(M=2.50)이 고등학생(M=2.34)보다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t=8.377,  $p<.001$ ).

표 III-75 공무원 신뢰도(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2.1	37.9	46.6	3.5	2.41	0.744	-	
성별	남자	12.5	36.7	45.8	4.9	2.43	1.947	
	여자	11.6	39.2	47.3	1.8	2.39		0.712
학교급	중학교	9.7	34.6	51.8	3.9	2.50	8.377***	
	고등학교	14.3	40.9	41.8	3.0	2.34		0.754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12.5	37.7	46.2	3.7	2.41	0.237	
	중소도시 <sup>b</sup>	11.4	38.4	47.0	3.2	2.42		0.732
	읍면지역 <sup>c</sup>	13.1	37.1	46.1	3.6	2.40		0.760

\* 주: 1)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믿을 수 없는 편이다, ③ 믿을 수 있는 편이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2) \* $p<.05$ , \*\* $p<.01$ , \*\*\* $p<.001$

### ⑧ 인터넷 정보 신뢰도

인터넷 정보를 '매우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 '믿을 수 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1.0%로 나타나 응답자의 43.9%가 인터넷 정보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인터넷 정보를 신뢰한다는 응답(43.9%)보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56.2%)이 더 높게 확인되어, 인터넷 정보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남자 청소년(M=2.39)이 여자 청소년(M=2.31)보다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4.301,  $p<.001$ ).

표 III-76 인터넷 정보 신뢰도(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1.9	44.3	41.0	2.9	2.35	0.723	-
성별	남자	12.0	41.1	42.8	4.0	2.39	0.748	4.301***
	여자	11.7	47.7	39.0	1.7	2.31	0.693	
학교급	중학교	12.0	43.2	41.8	3.0	2.36	0.728	0.901
	고등학교	11.7	45.3	40.2	2.8	2.34	0.718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12.5	44.0	40.4	3.0	2.34	0.732	2.041
	중소도시 <sup>b</sup>	12.1	44.5	40.7	2.8	2.34	0.723	
	읍면지역 <sup>c</sup>	9.5	44.4	43.1	3.0	2.40	0.699	

\* 주: 1)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믿을 수 없는 편이다, ③ 믿을 수 있는 편이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2)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⑨ AI(인공지능) 신뢰도

AI(인공지능) 신뢰도를 '전혀 믿을 수 없다'(1점)부터 '매우 믿을 수 있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표 III-77 AI(인공지능) 신뢰도(2020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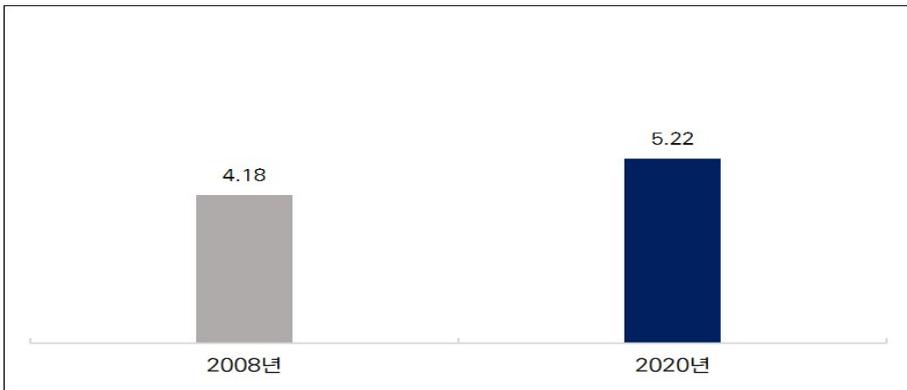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8.0	29.1	54.5	8.4	2.63	0.749	-
성별	남자	8.2	26.1	54.0	11.8	2.69	0.783	6.321***
	여자	7.8	32.3	55.0	4.8	2.57	0.706	
학교급	중학교	8.3	26.7	55.6	9.3	2.66	0.760	2.478*
	고등학교	7.7	31.2	53.4	7.7	2.61	0.739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7.8	27.5	56.0	8.7	2.66	0.747	1.668
	중소도시 <sup>b</sup>	8.4	29.7	53.7	8.3	2.62	0.755	
	읍면지역 <sup>c</sup>	7.2	31.4	53.1	8.2	2.62	0.738	

\* 주: 1)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믿을 수 없는 편이다, ③ 믿을 수 있는 편이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2)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그 결과, 응답자의 62.9%가 AI(인공지능)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매우 믿을 수 있다 8.4%+믿을 수 있는 편이다 54.5%)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M=2.69)이 여자 청소년(M=2.57)보다( $t=6.321$ ,  $p<.001$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M=2.66)이 고등학생(M=2.61)보다 AI(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t=2.478$ ,  $p<.05$ ).

### (23)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단위: 점)



\* 출처 : 2008년 청소년가치관조사 결과는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87) 자료를 인용함.

\* 주: 전혀 믿을 수 없다(0점) ~ 매우 믿을 수 있다(10점)

그림 III-51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2008년, 2020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믿을 수 없다'(0점)부터 '매우 믿을 수 있다(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5.22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와 비교해보면,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2008년(M=4.18)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중학생(M=5.44)이 고등학생(M=5.02)보다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7.986,  $p<.001$ ).

표 III-78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2020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5.22	2.000	-
성별	남자	5.25	2.078	1.288
	여자	5.18	1.912	
학교급	중학교	5.44	2.001	7.986***
	고등학교	5.02	1.979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5.24	2.004	0.672
	중소도시 <sup>b</sup>	5.23	1.981	
	읍면지역 <sup>c</sup>	5.15	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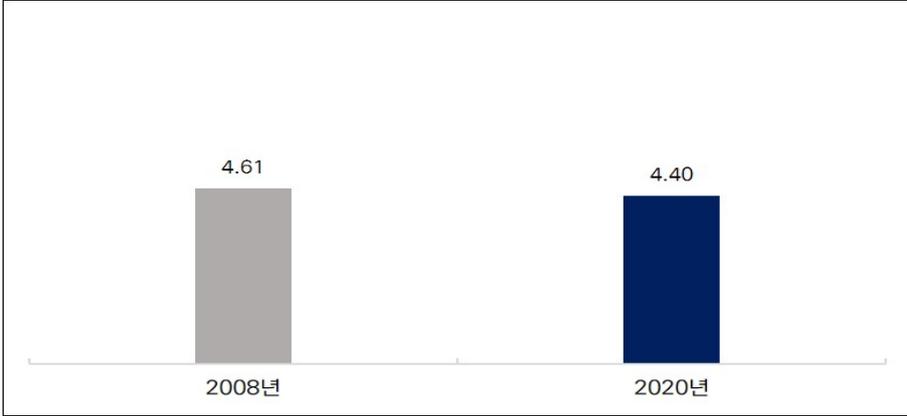
\* 주: 1)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 ⑩ 매우 믿을 수 있다  
 2) \* $p<.05$ , \*\* $p<.01$ , \*\*\* $p<.001$

#### (24) 정치에 대한 관심도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를 ‘전혀 관심 없다’(0점)부터 ‘매우 관심 있다’(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평균 4.40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 4.61로 확인되었다.

한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정치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의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단위: 점)



\* 출처 : 2008년 청소년가치관조사 결과는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88) 자료를 인용함

\* 주: 전혀 관심 없다(0점) ~ 매우 관심 있다(10점)

그림 III-52 정치에 대한 관심도(2008년, 2020년)

표 III-79 정치에 대한 관심도(2020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4.40	2.663	-
성별	남자	4.43	0.772
	여자	4.37	
학교급	중학교	4.36	-1.085
	고등학교	4.44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4.49	2.358
	중소도시 <sup>b</sup>	4.37	
	읍면지역 <sup>c</sup>	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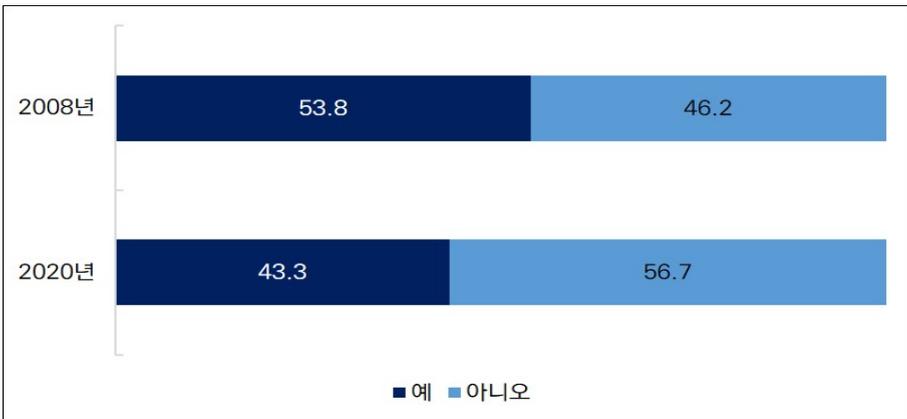
\* 주: 1) ① 전혀 관심 없다 ~ ⑩ 매우 관심 있다

2)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25)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질문한 결과, 의견을 표현하고 싶다는 응답이 43.3%, 표현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56.7%로 나타나 의견 표현 의향이 없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결과에서는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의 53.8%가 의견을 표현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2008년도에 비해 의견 표현 의향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그림 III-53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2008년, 2020년)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여자 청소년(47.5%)이 남자 청소년(39.5%)보다 의견을 표현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chi^2=37.585, p<.001$ ).

표 III-80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2020년)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chi^2$
전체		43.3	56.7	-
성별	남자	39.5	60.5	37.585***
	여자	47.5	52.5	
학교급	중학교	43.1	56.9	0.125
	고등학교	43.5	56.5	
지역규모	대도시	43.7	56.3	1.760
	중소도시	43.7	56.3	
	읍면지역	41.2	58.8	

\* 주: \* $p < .05$ , \*\* $p < .01$ , \*\*\* $p < .001$

(26) 투표 연령의 적절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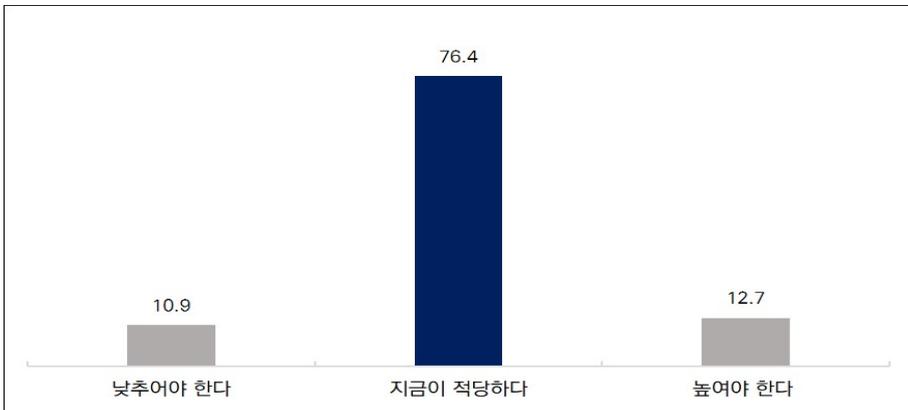


그림 III-54 투표 연령의 적절성(2020년)

청소년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나이 만 18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낮추어야 한다’, ‘지금이 적당하다’, ‘높여야 한다’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76.4%가 지금이 적당하다고 반응하였다. 참고로 선거권 연령 조정 전<sup>16)</sup>

에 실시한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에서는 투표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가 적당하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만 19세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61.0%로 나타났으며, ‘낮추어야 한다’ 30.2%, ‘높여야 한다’ 8.8%로 확인되었다.

표 III-81 투표 연령의 적절성(2020년)

(단위: %)

구분	낮추어야 한다	지금이 적당하다	높여야 한다	$\chi^2$	
전체	10.9	76.4	12.7	-	
성별	남자	11.2	74.6	14.2	13.357**
	여자	10.5	78.3	11.2	
학교급	중학교	13.5	76.5	10.0	64.314***
	고등학교	8.5	76.3	15.2	
지역 규모	대도시	10.5	76.0	13.5	4.128
	중소도시	11.3	76.1	12.6	
	읍면지역	10.5	78.3	11.2	

\* 주: \* $p < .05$ , \*\* $p < .01$ , \*\*\* $p < .00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2020년도 ‘투표 연령의 적절성’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성별로 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전체 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응답률에서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 청소년(78.3%)이 남자 청소년(74.6%) 보다 ‘지금이 적당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던 반면, 남자 청소년(14.2%)은 여자 청소년(11.2%)보다 ‘높여야 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chi^2=13.357$ ,  $p < .01$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1순위는 중고등학생 모두 ‘지금이 적당하다’(중 76.5%, 고 76.3%)로 확인되었지만, 2순위는 중학생의 경우 ‘낮추어야 한다’(13.5%)로, 고등학생의 경우 ‘높여야 한다’(15.2%)로 나타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chi^2=64.314$ ,  $p < .001$ ).

16) 선거권 연령은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됨(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11월 9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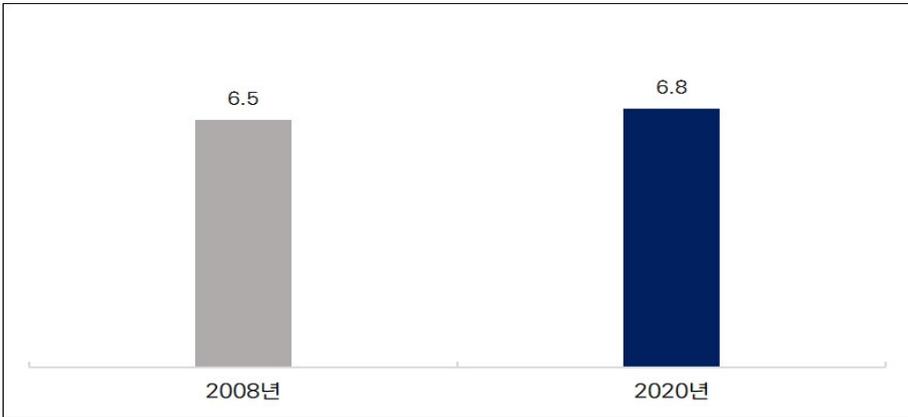
## (27) 장기기증, 안락사 수용도

장기기증, 안락사에 대해 ‘전혀 동의 안함’(1점)부터 ‘매우 동의함’(10점)까지의 10점 척도로 수용 정도를 확인하였다.

### ① 장기기증 수용도

먼저, 장기기증에 대한 수용도는 평균 6.8점으로 조사되었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에서는 평균 6.5점으로 확인되어, 장기기증 수용도는 2008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점)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 2008년은 ‘절대 안됨’(1점) ~ ‘언제든 관찮음’(10점), 2020년은 ‘전혀 동의 안함’(1점) ~ ‘매우 동의함’(10점)의 10점 척도로 측정함.

그림 III-55 장기기증 수용도(2008년, 2020년)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다른 2020년도 ‘장기기증 수용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M=7.18)이 남자 청소년(M=6.35)보다( $t=-11.923, p<.001$ ), 고등학생(M=7.16)이 중학생(M=6.30)보다( $t=-12.286, p<.001$ ), 그리고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M=6.93)이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M=6.66)보다 장기기증에 대한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F=3.632, p<.05$ ).

표 III-82 장기기증 수용도(2020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6.75	2.680	-
성별	남자	6.35	2.797	-11.923***
	여자	7.18	2.476	
학교급	중학교	6.30	2.707	-12.286***
	고등학교	7.16	2.587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6.78	2.657	3.632* (c)b
	중소도시 <sup>b</sup>	6.66	2.684	
	읍면지역 <sup>c</sup>	6.93	2.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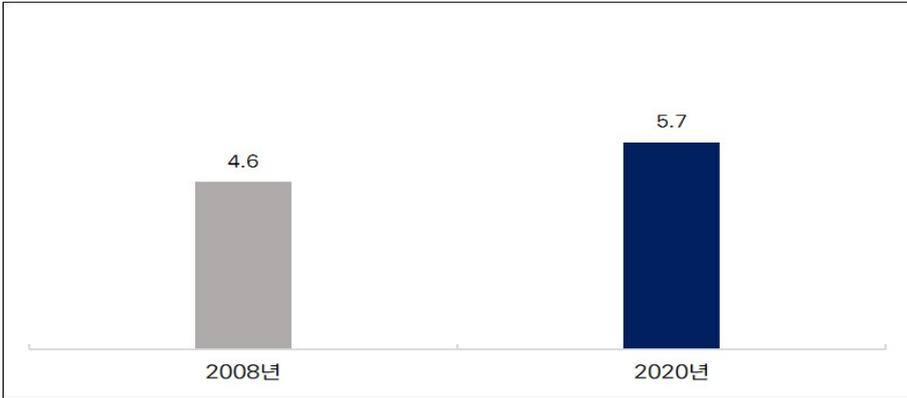
\* 주: 1) ① 전혀 동의 안함 ~ ⑩ 매우 동의함  
2) \* $p<.05$ , \*\* $p<.01$ , \*\*\* $p<.001$

## ② 안락사 수용도

안락사 수용도는 평균 5.7점으로 보통 정도를 웃도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와 비교하면, 안락사 수용도는 2008년도(M=4.6)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안락사 수용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먼저,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M=6.06)이 남자 청소년(M=5.44)보다( $t=-7.852, p<.001$ ),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생(M=6.34)이 중학생(M=5.08)보다( $t=-16.136, p<.001$ ), 그리고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M=6.07)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M=5.58)보다 안락사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F=8.805, p<.001$ ).

(단위: 점)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주: 2008년은 '절대 안됨'(1점) ~ '언제든 괜찮음'(10점), 2020년은 '전혀 동의 안함'(1점) ~ '매우 동의함'(10점)의 10점 척도로 측정함.

그림 III-56 안락사 수용도(2008년, 2020년)

표 III-83 안락사 수용도(2020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5.73	3.013	-
성별	남자	5.44	3.011	-7.852***
	여자	6.06	2.983	
학교급	중학교	5.08	2.970	-16.136***
	고등학교	6.34	2.926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5.79	2.999	8.805*** (c>b)
	중소도시 <sup>b</sup>	5.58	2.999	
	읍면지역 <sup>c</sup>	6.07	3.067	

\* 주: 1) ① 전혀 동의 안함 ~ ⑩ 매우 동의함

2)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29) 환경보존의 중요성

환경보존이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매우 중요하다’가 46.3%, ‘중요한 편이다’가 50.0%로 조사되며, 대부분의 청소년들(96.3%)은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경보존의 중요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M=3.45)이 남자 청소년(M=3.39)보다( $t=-4.201, p<.001$ ), 그리고 중학생(M=3.44)이 고등학생(M=3.40)보다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t=2.960, p<.01$ ). 다만,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사후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3.004, p<.05$ ).

표 III-84 환경보존의 중요성(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0.5	3.2	50.0	46.3	3.42	0.581	-	
성별	남자	0.8	4.2	50.3	44.8	3.39	-4.201***	
	여자	0.2	2.2	49.6	48.0	3.45		0.550
학교급	중학교	0.4	2.8	48.9	48.0	3.44	2.960**	
	고등학교	0.6	3.6	51.0	44.8	3.40		0.590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0.6	3.0	47.9	48.5	3.44	3.004*	
	중소도시 <sup>b</sup>	0.5	3.4	51.4	44.7	3.40		0.580
	읍면지역 <sup>c</sup>	0.4	3.4	50.9	45.3	3.41		0.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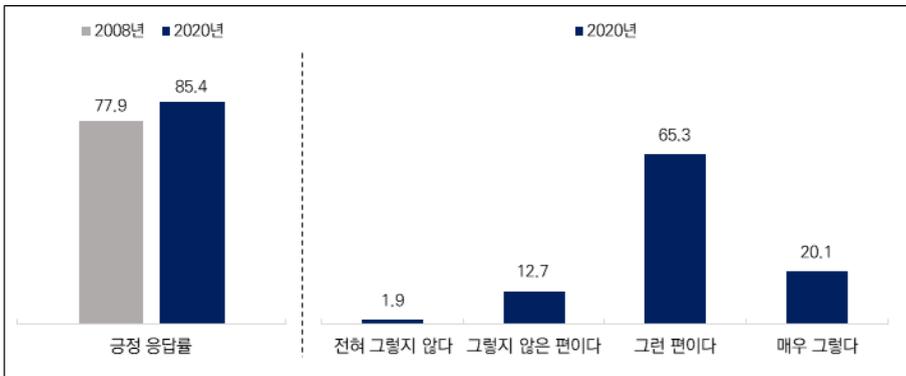
\* 주: 1)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중요한 편이다, ④ 매우 중요하다  
 2) \* $p<.05$ , \*\* $p<.01$ , \*\*\* $p<.001$

## 6) 다문화의식

### (1) 다문화 사회의 국가 발전에 관한 견해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청소년들의 85.4%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매우 그렇다 20.1%+그런 편이다 65.3%)고 대답하였다.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의 자료와 비교해보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2008년도(77.9%)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문항은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된다고 생각합니까', 2020년 문항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임.  
 2) 2008년 결과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3.7%, '별로 도움이 안 된다' 18.3%, '다소 도움이 된다' 65.0%, '매우 도움이 된다' 12.9%임.  
 3)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도움이 된다'+다소 도움이 된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그림 III-57 다문화 사회의 국가 발전에 관한 견해(2008년, 2020년)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다문화 사회의 국가 발전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여자 청소년(M=3.08)이 남자 청소년(M=3.00)보다( $t=-4.779, p<.001$ ), 그리고 중학생(M=3.07)이 고등학생(M=3.00)보다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3.891, p<.001$ ).

표 III-85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2020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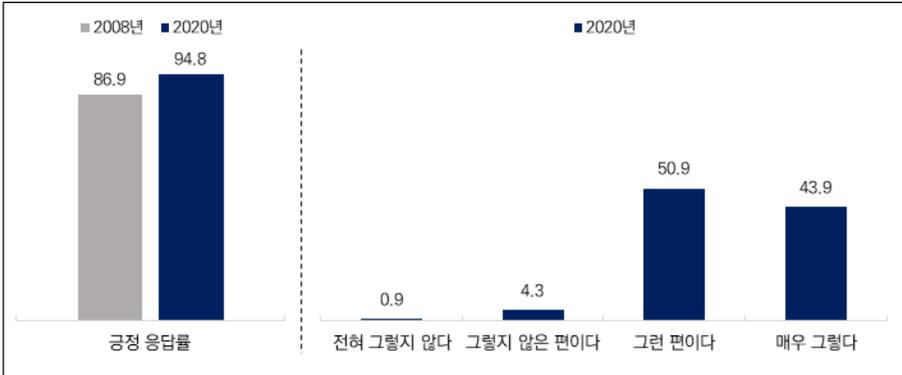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9	12.7	65.3	20.1	3.04	0.635	-	
성별	남자	2.4	14.4	64.2	19.0	3.00	-4.779***	
	여자	1.4	10.7	66.6	21.2	3.08		0.608
학교급	중학교	1.2	11.7	66.0	21.1	3.07	3.891***	
	고등학교	2.6	13.5	64.7	19.1	3.00		0.656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1.9	12.2	64.4	21.5	3.06	2.096	
	중소도시 <sup>b</sup>	1.9	13.2	65.8	19.0	3.02		0.631
	읍면지역 <sup>c</sup>	2.2	12.1	66.1	19.5	3.03		0.636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05$ , \*\* $p<.01$ , \*\*\* $p<.001$

## (2) 다문화 청소년 친구에 관한 견해

다문화 청소년 친구에 관한 견해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94.8%)이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매우 그렇다 43.9%+그런 편이다 50.9%)고 대답하였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와 비교해보면, 다문화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는 응답률은 2008년도(86.9%)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문항은 '다문화 청소년을 친구로 맞이할 수 있다', 2020년 문항은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임.  
 2)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7%, '별로 그렇지 않다' 11.4%, '다소 그렇다' 52.9%, '매우 그렇다' 34.0%임.  
 3)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그림 III-58 다문화 청소년 친구에 관한 견해(2008년, 2020년)

표 III-86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2020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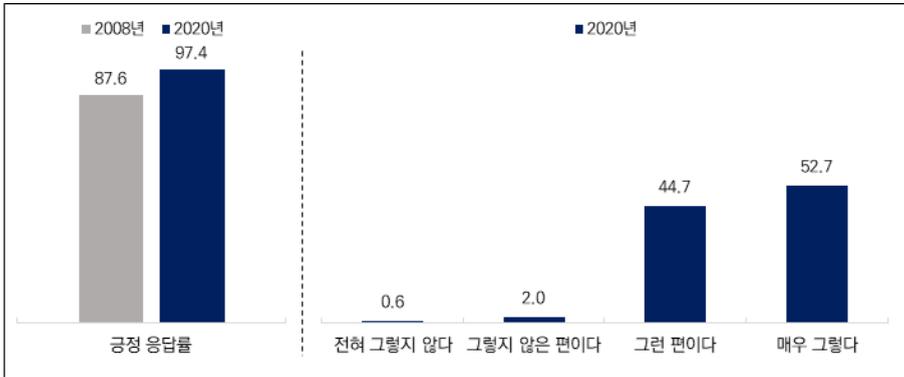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0.9	4.3	50.9	43.9	3.38	0.615	-
성별	남자	1.2	5.5	57.2	36.2	3.28	-12.006***
	여자	0.7	3.1	44.0	52.2	3.48	
학교급	중학교	1.0	4.9	51.4	42.7	3.36	-2.064*
	고등학교	0.9	3.8	50.4	44.9	3.39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0.8	4.3	48.5	46.5	3.41	5.116** (a)b,c)
	중소도시 <sup>b</sup>	1.1	4.3	51.9	42.7	3.36	
	읍면지역 <sup>c</sup>	1.0	4.6	53.9	40.5	3.34	

-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 $p < .05$ , \*\* $p < .01$ , \*\*\* $p < .00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2020년도 ‘다문화 청소년 친구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성별로 보면, 여자 청소년(M=3.48)이 남자 청소년(M=3.28)보다( $t=-12.006$ ,  $p<.001$ ),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생(M=3.39)이 중학생(M=3.36)보다( $t=-2.064$ ,  $p<.05$ ), 그리고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M=3.41)이 중소도시(M=3.36)와 읍면지역(M=3.34)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F=5.116$ ,  $p<.01$ ).

### (3) 다문화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견해

(단위: %)



\* 출처 : 2008년 결과는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임.

- \* 주: 1) 2008년 문항은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나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2020년 문항은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임.  
 2) 2008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2.1%, ‘별로 그렇지 않다’ 10.3%, ‘다소 그렇다’ 49.5%, ‘매우 그렇다’ 38.1%임.  
 3) 2008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 2020년 긍정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임.

그림 III-59 다문화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견해(2008년, 2020년)

다문화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97.4%가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매우 그렇다 52.7%+그런 편이다 44.7%)고 응답하였다. 한편,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자료를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나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에 대해 응답자의 87.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긍정 응답률이 2008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20년도 ‘다문화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견해’를 확인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자 청소년(M=3.57)이 남자 청소년(M=3.43)보다( $t=-9.220, p<.001$ ), 그리고 중학생(M=3.51)이 고등학생(M=3.48)보다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2.287, p<.05$ ).

표 III-87 다문화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견해(2020년)

(단위: %, 점)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0.6	2.0	44.7	52.7	3.49	0.572	-
성별	남자	0.9	2.4	49.6	47.1	3.43	0.590	-9.220***
	여자	0.3	1.5	39.4	58.8	3.57	0.543	
학교급	중학교	0.5	1.5	44.1	53.9	3.51	0.559	2.287*
	고등학교	0.7	2.4	45.3	51.6	3.48	0.583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0.5	1.9	43.5	54.0	3.51	0.566	1.465
	중소도시 <sup>b</sup>	0.8	1.5	45.7	51.9	3.49	0.574	
	읍면지역 <sup>c</sup>	0.4	3.4	44.6	51.7	3.48	0.582	

\* 주: 1) 문항은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임.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3) \* $p<.05$ , \*\* $p<.01$ , \*\*\* $p<.001$

## 6. 소결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가치관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Ⅲ: 청소년 소비 생활 문제와 대책’(윤철경 외, 2003), ‘한국청소년 가치관 조사연구’(김신영 외, 2007),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등의 관련 통계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1) 인생관

삶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률과 행복하다는 응답률이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증가한 것은 매우 중요하며 긍정적인 변화이다. 한편,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는 개인, 가족, 학교, 사회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해섭 외, 2019; 유진은, 노민정, 2017). 특히,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22개 OECD 국가 가운데 21위로 나타나 사실상 최하 수준(오해섭 외, 2019)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청소년들은 인생에서 가족, 건강, 동성친구, 일, 여가, 돈 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으며, 종교, 이웃 등은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종교와 이웃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물건 구입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디자인을 가장 우선시하였다. 반면, 이에 대한 응답률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고, 품질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은 증가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표 III -88 인생관 주요결과(2008년, 2020년)

구분	2008년	2020년	비고
삶의 만족도	57.6%	83.7%	긍정률(4점 척도)
행복감	69.2%	84.4%	긍정률(4점 척도)
미래에 대한 전망	62.8%	72.8%	긍정률(4점 척도)
가족 중요도	98.6%	98.4%	긍정률(4점 척도)
동성친구 중요도	96.2%	97.2%	긍정률(4점 척도)
이성친구 중요도	79.0%	77.1%	긍정률(4점 척도)
이웃 중요도	63.9%	52.4%	긍정률(4점 척도)
여가 중요도	94.1%	96.4%	긍정률(4점 척도)
일 중요도	95.7%	97.0%	긍정률(4점 척도)
건강 중요도	98.5%	97.9%	긍정률(4점 척도)
종교 중요도	35.4%	23.0%	긍정률(4점 척도)
학력 중요도	82.6%	83.1%	긍정률(4점 척도)
명예 중요도	-	78.5%	긍정률(4점 척도)
돈 중요도	92.3%	95.5%	긍정률(4점 척도)
물건 구입 시 고려사항(③ 디자인)	-	32.7%	5가지 보기

## 2) 결혼 및 가족관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과거에 비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와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의 응답률은 감소한 반면, '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의 응답률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해 '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과 장래에 희망하는 자녀 수는 이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결혼 후 자녀에 대한 생각과 희망 자녀 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등과 함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태현, 2005). 가치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 등을 통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기반의 중장기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 결혼 후 부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률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이혼, 미혼모, 동성애에 대한 수용도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89 가족 및 결혼관 주요결과(2008년, 2020년)

구분	2008년	2020년	비고	
가족생활 만족도	81.0%	92.5%	긍정률(4점 척도)	
결혼 후 부모 부양	65.8%	42.3%	긍정률(4점 척도)	
결혼 후 자녀에 대한 생각	-	50.7%	긍정률(4점 척도)	
명절에 대한 생각	-	85.9%	긍정률(4점 척도)	
부모 부양 주체(② 가족)	-	84.2%	3가지 보기	
결혼에 대한 인식(③ 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41.6%	59.9%	3가지 보기	
배우자 선택 기준(① 성격)	-	71.1%	9가지 보기	
희망 자녀 수	2.0명	1.5명	평균	
부모님의 비용 부담 (③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	81.8%	3가지 보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	10.2%	3가지 보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	3.0%	3가지 보기
	취업할 때까지	-	1.4%	3가지 보기
	결혼할 때까지	-	1.0%	3가지 보기
이혼 수용도	3.7점	5.4점	평균(10점 척도)	
미혼모 수용도	3.2점	5.4점	평균(10점 척도)	
입양 수용도	6.3점	6.5점	평균(10점 척도)	
동성애 수용도	3.0점	4.5점	평균(10점 척도)	

### 3) 진로 및 직업관

진로 및 직업관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65.7%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34.4%는 그렇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그리고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대학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94.5%는 진로나 직업 선택 시 본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하겠다고 대답하였으며, 79.4%는 향후 희망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자신의 적성’과 ‘경제적 수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이어서 ‘자신의 능력’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전과 비교해보면, 경제적 수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률은 증가한 반면,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률은 감소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진로직업 교육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에서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표 III-90 진로 및 직업관 주요결과(2008년, 2020년)

구분	2008년	2020년	비고
인생목표	69.4%	65.7%	긍정률(4점 척도)
대학 진학의 필요성	78.7%	70.1%	긍정률(4점 척도)
진로 및 직업 선택의 주도성	92.1%	94.5%	긍정률(4점 척도)
직업 낙관성	79.4%	79.4%	긍정률(4점 척도)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 (① 자신의 능력, ⑤ 자신의 적성)	능력 /31.0%	적성 /27.3%	12가지 보기

#### 4) 학교 및 친구관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의 88.1%는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11.9%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가정 이외에 학생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그들의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조성

등의 보다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청소년활동에 대한 견해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의 35.9%가 온라인 청소년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심리·정서 발달, 진로 발달, 사회성 및 대인관계 발달,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 향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임희진 외, 2019).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온라인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플랫폼 구축 등의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청소년활동에 대한 효과 검증을 통해 이를 보완·개선해 나아가려는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III-91 학교 및 친구관 주요결과(2008년, 2020년)

구분	2008년	2020년	비고
학교생활 만족도	-	88.1%	긍정률(4점 척도)
학교에 대한 견해	77.9%	75.4%	긍정률(4점 척도)
친구 선택 기준(⑦ 함께 있으면 즐거운 것)	-	49.7%	8가지 보기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견해	-	71.7%	긍정률(4점 척도)
온라인 청소년활동에 대한 견해	-	64.1%	긍정률(4점 척도)

## 5) 사회 및 국가관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인식하는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긍정적 현상이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과반수(54.5%)는 우리 사회를 공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으며, 10명 중 3명 정도(27.4%)는 인권 존중 사회라고 여기지 않았다. 또한, 청소년의 45.3%는 남녀가 평등하지 않은 사회라고 반응하는 등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높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사회 구현과 사회전반의 인권보장 및

증진 등을 위한 정부, 지자체 등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지원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76.7%는 우리 사회가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에 대한 기회와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3.2%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정책목표 중 하나로 삼고, 관련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특히,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의,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년 5월 11일). 이처럼 제도적·정책적으로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노력들은 매우 중요하며 지속될 필요가 있다.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해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77.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님, 친구, 학교 선생님을 믿을 수 있다는 긍정 응답률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던 반면, 정치인, 이웃, 언론, 인터넷 정보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웃을 믿을 수 있다는 긍정 응답률은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이웃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긍정 응답률도 이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웃을 믿을 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과거보다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92 사회 및 국가관 주요결과(2008년, 2020년)

구분	2008년	2020년	비고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공정	26.7%	45.5%	긍정률(4점 척도)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인권 존중	45.2%	72.6%	긍정률(4점 척도)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다양성 인정	-	65.8%	긍정률(4점 척도)

구분	2008년	2020년	비고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남녀평등	-	54.7%	긍정률(4점 척도)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지원	-	76.7%	긍정률(4점 척도)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70.1%	84.6%	긍정률(4점 척도)
나라가 위급 시 무엇이든 하겠는지에 관한 견해	45.8%	59.8%	긍정률(4점 척도)
남북통일의 필요성	67.6%	55.0%	긍정률(4점 척도)
길거리에서 위험 시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임에 관한 견해	57.3%	77.8%	긍정률(4점 척도)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조에 관한 견해	71.1%	76.0%	긍정률(4점 척도)
집단 이익을 위한 나의 희생에 관한 견해	53.3%	65.4%	긍정률(4점 척도)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 설치에 관한 견해	39.2%	42.0%	긍정률(4점 척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권리 희생에 관한 견해	-	74.5%	긍정률(4점 척도)
부모님 신뢰도	97.1%	97.1%	긍정률(4점 척도)
친구 신뢰도	87.3%	89.6%	긍정률(4점 척도)
학교 선생님 신뢰도	71.8%	84.6%	긍정률(4점 척도)
이웃 신뢰도	41.1%	33.3%	긍정률(4점 척도)
언론 신뢰도	34.1%	40.5%	긍정률(4점 척도)
정치인 신뢰도	-	17.5%	긍정률(4점 척도)
공무원 신뢰도	-	50.1%	긍정률(4점 척도)
인터넷 정보 신뢰도	-	43.9%	긍정률(4점 척도)
AI(인공지능) 신뢰도	-	62.9%	긍정률(4점 척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4.18점	5.22점	평균(11점 척도)
정치에 대한 관심도	4.61점	4.40점	평균(11점 척도)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① 예)	53.8%	43.3%	2가지 보기
투표 연령의 적절성(② 지금이 적당하다)	-	76.4%	3가지 보기
장기인증 수용도	6.5점	6.8점	평균(10점 척도)
안락사 수용도	4.6점	5.7점	평균(10점 척도)
환경보존의 중요성	-	96.3%	긍정률(4점 척도)

## 6) 다문화 인식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도가 향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 예를 들어, 다문화 관련 교육 및 활동 등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질적 개선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III-93 다문화의식 주요결과(2008년, 2020년)

구분	2008년	2020년	비고
다문화 사회의 국가 발전에 관한 견해	77.9%	85.4%	긍정률(4점 척도)
다문화 청소년 친구에 관한 견해	86.9%	94.8%	긍정률(4점 척도)
다문화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견해	87.6%	97.4%	긍정률(4점 척도)





## IV.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 1.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Z세대의 핵심 트렌드 분석
- 2. 새로운 가치관 세대에 부응하는 사회·정책적 대응전략
- 3. 소결



## 1.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Z세대의 핵심 트렌드 분석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모습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청소년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앞서 고찰한 Z세대의 가치관의 변화 모습과 그에 따른 행동 특성 분석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Z세대의 핵심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미래 청소년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Z세대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모습은 마치 기존의 사회·정책적 상황이라는 오래된 부대(old bottle)에 Z세대라는 새 술(new wine)을 담고 있는 것과 같아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목시킨다는 관점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의 Z세대, 나아가 다가올 알파세대(generation alpha)를 위한 새로운 그릇(new bottle)을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가치관에 대한 주요 조사와 실증적 연구들에 근거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 및 2010년대의 공통적인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을 전후한 가치관 변화는 1) 권위주의 대 평등주의, 2) 집합주의 대 개인주의, 3) 인간주의 대 물질주의, 4) 도의적 의례주의, 명분주의 대 실리주의, 5) 귀속주의 대 업적주의, 6) 온정주의, 비합리주의 대 합리주의로 요약되는데, 전통 사회에서

17) 이 장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35차 청소년정책모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안'에서 천정웅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내용임.

근대 사회로 넘어올수록 보다 평등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실리주의, 업적주의, 합리주의적 특성을 보여준다(최윤진, 1992). 둘째,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12년 간 가장 눈에 띄는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양상은 자신과 가족 중심 개인주의 증가, 남녀평등 의식 확대, 현재를 즐기고 중시하는 경향의 증가, 탈권위주의와 자기주장성 증가 경향의 둔화, 외국인 우대감소 및 실수가 있더라도 풍부한 인생의 추구 등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나은영, 차우리, 2010). 셋째, 앞서 언급한 2017년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가치관과 관련하여 특히 결혼 및 가족관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 및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청년층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응답에서도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감소하고 청소년들의 절반 정도는 결혼 후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백혜정 외, 2017).

오늘날 청소년에 대해 디지털문화가 언급되고 전자시민(e-citizen)이 논의되는 것은 이러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Deuze (2006: 63)는 “디지털 문화”라는 개념을 개발하면서 “컴퓨터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현대 사회의 거주민들이 공유하는 일련의 가치, 규범, 실천, 기대”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디지털 문화에 대한 가치와 기대를 구현하고 있는 세 가지의 “주요한 구성요소”를 강조하였다. 첫째는 “참여”인데, 이는 TV나 비디오 게임, 그리고 정치현실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역과 관련된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개인적 시스템과 관련된다. 셋째 분야는 청소년들 간에 디지털 소통의 힘을 점차 더 많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힘에 대한 이러한 인정은 많은 상황에서 증명되고 있다.

한편, Z세대를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라는 말은 이들을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되고 있다(Schroth, 2019). 이러한 개념 정의는 디지털문화 속에서의 청소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첫째, 반권위주의

이다(anti-authoritarian). 사람들은 제도적 정보 원천을 다양화되고 개인화된 선택을 지향한다. 둘째, 집단이 아닌 네트워크를 통한 덜 구조화된 참여이다. 셋째, 참여적이며 자기 표현적이다. 넷째, 의사소통의 힘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청소년과 시민적 미디어의 상호작용은 미디어와 정보의 힘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시민적 관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청소년들이 가장 최근의 세대이며 그에 상응하는 독특한 시민적 관여 패턴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긴다. 디지털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청소년들은 디지털 기술의 최초이며 완전한 채택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e-시민(citizen) 또는 e-시민성(citizenship)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디지털 도구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경험한 최초의 세대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한, 출생 시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성장한 Z세대의 이러한 특성은 이전 세대에 비해 멀티태스킹은 물론,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신기술에 대한 민감성을 소비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송주완, 2020). 예를 들면, 옷이나 실발, 책, 음반은 물론, 게임기 등 전자기기의 온라인 구매 비중이 모두 50%를 넘으며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며 신중하게 구매하는 경향도 강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며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등 이전 세대와 다른 소비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박혜숙, 2016).

Z세대는 인종, 성별,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와 민족성이 한데 뒤얽히고 정체성이 점점 더 모호해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가장 편견 없는 세대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타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Z세대는 타인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만큼 자신의 정체성도 인정받고 싶고, 욕구와 동시에 타인과 다르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를 지니며, 개인이 원하는 개인 이미지를 소비를 통해 설계해 나가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잘 드러내려 한다(Schwieger & Ladwig, 2018).

밀레니얼과 Z세대의 마이크로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해 매년 키워드를 도출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8)의 트렌드 키워드는 이러한 Z세대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 키워드들은 가치관, 관계, 사회인식, 콘텐츠, 소비측면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Z세대가 20대로 진입을 하면 할수록 포괄적, 윤리중심, 다중 현실과 이동성, SNS 등 Z세대의 특성을 대표할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Z세대의 특성과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거시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들에 적합한 청소년정책과 성장환경 조성 등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2. 새로운 가치관 세대에 부응하는 사회-정책적 대응 전략

### 1)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관점의 정립과 '위기' 중심 접근 극복

Z세대의 특징을 가진 오늘의 청소년을 보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면서 청소년들의 현재적 특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발전 가능성, 희망, 변모될 능력과 의식이 있다고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문제에 의존하면서 '위기와 보호'를 강조하는 접근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를 우려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현재의 그들의 의식과 생활양식 속에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청소년의 긍정적 측면과 강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Cheon, 2009). 청소년의 가치관에서 볼 수 있는 강한 독립심, 발전지향적 태도, 성취지향적 태도, 비판적 사회의식, 자유지향적 가치관 등은 여전히 사회적 바람직함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위기청소년' 정책은 국가가 현재 또는 미래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청소년을 통계적 과정을 통하여 찾아내고 개입하여 예방(prevention)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로서 중요한 정책적

기여를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김미란,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청소년정책’과 ”위기청소년담론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증폭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가는 특정 청소년과 그 가족을 타자처럼 취급하는 배제의 전략을 작동시켰으며” 위기 요인분석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김미란, 2012: 51). 즉, 과거 ‘문제청소년’담론에서 ‘허용’과 ‘금지’의 경계에 따라 ‘위험한’ 청소년을 범주화하고 사회 안정을 위한 단속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이제 ‘위기청소년’담론을 통하여 더욱 체계적인 방식으로 특정 청소년 집단을 주변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변화가 위기와 불안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지라도 지나치게 ‘위기’를 강조하고 그에 의존하여 접근하는 것은 그로 인해 잃어야 하는 다른 많은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을 고려하면 기존의 청소년을 문제와 희생으로 보는 견해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청소년을 강점, 자산, 잠재성 및 자원을 가진 존재로 보는 긍정적 발전적 접근이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긍정적 접근법의 지지자들은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바로 청소년 개인 자신들의 강점,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의 청소년정책에서 ‘위기’에 의존하면서 문제중심적 접근을 지속하고 있는 입장을 가진 ‘관계자’들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Epstein(2007)은 특히 문제중심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기를 인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을 유지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집단을 정리하여 소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일부 정부기관, 일부 종교단체, 미디어, 10대 대상 기업들, 정신건강 분야, 그리고 소년사법 및 법집행기관 등이 포함된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정부기관, 특히 약물과 비행예방과 관련된 부서의 경우에 청소년들을 어린아이취급 (infantilization)하는 가장 나쁜 적대적 관계자라고 규정했다. 그 결과, 역량 있는

청소년들의 고용을 제한하고, 재산의 소유와 소송능력, 운전면허취득, 투표권, 혼인권 등의 권리행사를 지연시키거나 제약한다는 것이다. 일부 단체들은 청소년들의 삶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적으로 관여한다고 지적한다. 미디어의 경우, 특히 TV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이 책임감이 없으며 걸만 큰 아이들이란 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들을 내보낸다는 것이다. 10대들을 주 소비 대상으로 하는 기업과 산업체들은 10대 청소년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광고를 중심으로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의 정신건강분야의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10대들의 행위를 정신보건질환의 증후로 규정하거나, 10대들을 성인들의 세계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돕기 보다는 소위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년사법 및 법집행기관은 청소년들을 아직도 19세기 때 만들어진 “청소년” 범법자로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본다.

Epstein(2007)의 이러한 지적은 미국의 경우를 제기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여기에 언급된 “적대적 집단”들은 긍정적 관점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활동하기 쉽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을 적극적 동지로 만드는 것이 청소년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정책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 2) 새로운 정책 이념과 비전 모색

청소년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과 함께 그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이념과 목표, 비전을 현세대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전망에 기초하여 국제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럽 국가의 청소년정책에서 광범위하게 실천되고 있는 지역 사회청소년개발(community youth development) 모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할 때가 되었다.

이념은 일종의 가치체계적인 집합체이자 기본적인 틀이다. 제반 가치가 상호 연결되고 체계적인 위치를 갖게 되는 것과 그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가 일관성 있게 전개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념 때문이다.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이념에 대한 관심은 각종 정책계획의 수립, 법제도의 제·개정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념 자체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모색되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그동안 청소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이념은 아동복지적 접근, 청소년운동의 이념, 청소년상 정립, 아동보호(care), 청소년보호(protection), 청소년육성, 청소년참여,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논의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청소년과 세대적 특성에 맞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진 새로운 정책 이념과 철학, 그리고 비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또는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은 지난 20여 년간의 학술연구와 현장실천을 통해 국가청소년정책의 지향이념과 가치를 정립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하나의 이론이면서 실천기술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Cheon, 2009). 그동안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에서 체험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온 것도 이러한 긍정적 발달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전인하기에는 사회적 조건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 있음이 사실이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 속에서 긍정적 발달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으며 위기청소년정책에 문혀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학교 현장이나 청소년기관들이 청소년의 가치관이나 인성함양을 위한 대응에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임희진, 백혜정, 김현철, 강현철, 2012).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개발에 대한 관심으로서 지역사회청소년개발(community youth development: CYD)정책에 대해서도 전환적 논의가 필요

할 것이다(오해섭, 2008).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필요불가결한 관계성은 흔히,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천정웅, 2020: 48). 이런 점에서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지역중심 청소년업무, 지역사회 청소년문제행동 대책, 청소년업무 협력체계와 네트워크 구축 등과 관련한 실천적 노력과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마을공동체, 청소년 친화도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등과 관련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들이 전개되어 온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이윤주 외, 2018).

지역사회청소년개발(CYD)의 기조는 “문제없는(problem-free), 완전히 준비된(fully prepared), 파트너로 참여하는(engaged partners) 청소년”을 전제하여 “긍정적 관계성, 역량 개발, 의미 있는 관여” 등의 3가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천정웅, 2020: 48). CYD의 핵심 요소인 긍정적청소년 발달(PYD)은 성인들과의 관계성, 안전한 장소와 활동, 신체적·정신적 건강, 시장성 있는 기술, 그리고 서비스를 받을 기회와 시민 참여 등과 같은 광의적 발달 욕구를 강조한다. CYD는 이러한 청소년개발의 전략을 넘어 청소년이 성인들의 지혜나 관대함의 대상이나 수혜자가 되기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사회 이슈와 기구들을 위한 파트너이자 자원으로써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천정웅, 2020).

### 3) 청소년을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접근과 성인중심주의 극복

청소년에 관해 존재하는 기존의 여러 가지 인식에는 객관적 근거나 경험적 자료의 뒷받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믿음들 즉, 신화(myth)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많다. 이제 이를 극복하여 청소년을 주체적 행위자로서 자리매김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망된다. 청소년을 수동적·소극적 대상으로

간주해오던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자로 파악하면서 청소년참여를 바탕으로 한 하의상달적(bottom-up) 청소년정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Hansen, 2012).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역사를 보면, 1987년의 청소년육성법 제정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 하나의 독립적 영역으로 자리 매김하기 시작했으며, 1991년의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이후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으로 하는 정책적 접근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8년 IMF를 맞이한 국가적 상황에서 청소년정책은 자율과 참여, 그리고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적 특성을 마련하게 되면서 비로소 청소년을 사회발전의 주체이자 발전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본다(민보경 외, 2019).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의 많은 부분은 청소년의 자율성과 자유의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주체적 행위자로 하여 접근하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bottom-up) 정책내용을 마련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최근 청소년참여나 청소년의 시민적 관여가 청소년분야에서 강조되고 있고, 청소년실천현장에서는 다양한 청소년운동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청소년분야에서 얼마나 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과제이다. 한 예로서 청소년참여와 참여권, 청소년참여기구의 동향을 보면, 그것이 실질적 참여를 고취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참여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의 청소년정책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마저도 청소년프로그램과 사업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형식적 운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인의 태도 즉, 성인중심주의 대한 극복과 이를 위한 청소년전문지도자들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성인중심주의는 청소년의 시민적 관여와 청소년참여 이론은 물론, 인간발달과 관련한 이론, 청소년인권 논의, 청소년을 위한 국가적 개입의 정당성으로 활용되는 가부장주의(paternalism)논

의와도 관련된다(DeChillo, Koren, & Schultze, 1994). 성인중심주의 또는 성인주의는 성인들이 청소년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존중하지 않는 것을 본질로 하는 하나의 '주의(ism)'로 이해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거의 모든 생활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ell, 1996). 일상의 대화는 물론 신체적·성적학대, 언어적 상호작용, 학교생활 등 거의 모든 청소년-성인 관계성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성인주의는 청소년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또 일반적으로 자신의 특별한 잠재성과 경험, 그리고 독특한 개성을 건설적으로 진화하도록 촉진하는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특정한 태도나 행위가 성인중심주의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청소년에게 적용한 태도나 행위를 성인에게도 그대로 시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있다면 성인중심주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김정주, 2007).

청소년전문지도자 특히, 청소년현장에 있는 활동가와 실천가들이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지만, 청소년에 대한 성인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된다. 청소년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 속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일선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실천가들이기 때문이다. Petr(2003)는 특히 청소년과 일하는 실천가들이 성인주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언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 현장 실천가들이나 다른 성인들이 청소년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에 청소년이 직접보다 완전히 개입하게 함으로써 자기결정성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실천가들이 청소년들이 완전히 자기결정적이 되도록 맹목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인들과 함께, 자기결정성은 클라이언트의 역량과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제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천가들은 부지런히 그리고 일상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중심의 관점과 희망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 4) 지속가능한 청소년업무(sustainable youth work)의 새로운 정립

청소년을 주체적 행위자로 하는 접근이 가능하다면,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가 현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즉, 미래세대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세대간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속가능청소년업무(sustainable youth work)라는 새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Schild, Connolly, Labadie, Vanhee, & Williamson, 2017).

여기서 미래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 현재 자신들의 이해와 권익을 제도적으로 대표할 수 없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말하는 것이다(서용석, 2014: 14). 따라서 입법과정이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세대가 어떤 환경을 물려주든 이들은 아무 준비 없이 이전 세대가 물려주는 환경을 감내해야만 하는 후세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래 세대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의미한다(Verma & Petersen, 2018).

최근 우리 사회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와 현세대를 위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환경자본과 경제자본 및 과학기술자본 등은 물론 인적자본으로서의 청소년에 대해서도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일을 국가·사회적 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이 지난 30년 동안 행정과 정책사업 등을 통해 전달, 체계화, 특성화되는 발전과정을 경험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미래준비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노력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서용석, 2014).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를 정책결정과정에 수용하여 의제화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의지의 부족과 현행 민주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현재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청소년세대보다 현재의 세대를 우선하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을 높게 한다(서용석, 2014). 예를 들면, 선거권을 갖고 사회의 중추세대로 존재하는 현재 세대의 사회복지확대는 그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장기적인 미래 전략에 기초하지 않고 추진되는 현세대를 위한 정책의 실행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현세대의 착취를 가속화하고 세대 간 격차를 확대하여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고 세대간 집단적 이기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는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정책결정과정에서 현 세대 간의 격차와 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격차와 불균형의 문제 또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볼 때가 된 것이다.

특히 미래세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각 달리 논의되고 있으나 그 공통점은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각 세대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에 유의하는 것 이상으로 미래세대의 권익을 현실 정치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정책이 문제청소년대책, 청소년 자체에 ‘관한’ 정책을 넘어서 ‘미래세대로서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현재의 청소년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대 청소년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비전 있는 장기적 계획, 당장의 성과달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미래지향적 정책이 요청되는 것이다. 청소년업무(youth work)는 이제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때를 맞이하고 있다.

### 3. 소결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청소년의 인격함양과 여가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업무를 지속하여 왔으며, 세계적 추세는 이보다 더 오랜 기간을 청소년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청소년업무의 모델은 청소년서비스 뿐만 아니라, 청소년발달, 청소년지도력, 시민적 관여, 그리고 청소년조직화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분야의 발전은 대상의 측면에서 “일부 특정 청소년”에서 “모든 청소년”으로 확장하고, 방향의 측면에서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후 처방”에서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하여 왔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자율적인 참여의 기반확충과 함께 “잠재역량 개발”을 강조하는 것으로 진전되어 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천정웅, 2020: 52).

이런 점에서, 그동안의 정책 기초를 바탕으로 하되, ① 긍정적 관점의 정립과 청소년에 대한 ‘위기’중심 접근의 극복, ② 새로운 정책 이념과 비전의 모색과 청소년개발 및 지역사회청소년개발로의 방향, ③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통한 bottom up 청소년정책과 성인중심주의의 극복, 그리고 ④ 청소년권익과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 등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업무는 현재에서 안주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고,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활동’과 1998년의 “자율·참여”의 정책변화를 뛰어넘어 오늘의 Z세대와 다가오는 알파세대는 새로운 틀, 새 부대(new bottle)에 담는 혁신이 필요하다.



## ○———— V. 결론 및 정책 제언

- 1. 연구 요약 및 결론
- 2.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절차
- 3. 향후 청소년 정책 추진 및  
가치관 연구의 방향





### 1. 연구 요약 및 결론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관련 국내외 문헌과 연구보고서 고찰을 통해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도구 개발 및 Z세대의 개념과 특성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청소년정책 포럼에서 다룬 세 가지 주제를 통해 Z세대의 소비생활 특성과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및 시사점, 사회-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Z세대의 인스타마켓을 이용한 소비생활 특성은 이들의 여가, 소통, 제품획득 등 다양한 욕구 충족의 과정이며, SNS사용은 플랫폼 자체와 상화작용을 통해 소비자사회화를 경험함과 동시에 인터넷 과몰입과 준거집단의 편견이나 부정적 평가 등 역기능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Z세대의 청소년의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 ① 디지털 네이티브로 유연하게 살아가는 토대 제공, ② 실용적 학습 선호에 따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학습 환경 구성, ③ 세계 시민성 함양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접근 시도 등을 제시하였다. 가치관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적 변화를 위한 사회-정책적 대응방안으로, ① 긍정적 관점의 정립, ② 새로운 정책 이념과 비전의 모색, ③ 주체적 행위자로서 성인중심주의의 극복, ④ 지속가능한 청소년 업무 등에 대한 논의에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가치관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자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Ⅲ: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윤철경 외, 2003), '한국청소년 가치관 조사연구'(김신영 외, 2007),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임희진 외, 2009) 등의 관련 통계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인생관, 가족 및 결혼관, 진로 및 직업관, 학교 및 친구관, 사회 및 국가관, 다문화의식의 6가지 영역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1>).

첫째, '인생관' 영역을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인생에서 가족, 건강, 동성친구, 일, 여가, 돈 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으며, 종교, 이웃 등은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종교와 이웃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은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물건 구입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디자인을 가장 우선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응답률은 이전 대비 감소하였고, 품질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은 증가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둘째, '가족 및 결혼관'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과거에 비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와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의 응답률은 감소한 반면, '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의 응답률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과 장래에 희망하는 자녀 수는 이전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청소년들의 가치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결혼 후 부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률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이혼, 미혼모, 동성애에 대한 수용도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진로 및 직업관'을 보면, 청소년의 65.7%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34.4%는 그렇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그리고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대학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자신의 적성'과 '경제적 수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이어서 '자신의 능력'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전과 비교해보면, 경제적 수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률은 증가한 반면, 자신의 능력을 고려

하겠다는 응답률은 감소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넷째, '학교 및 친구관' 영역에서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의 88.1%는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11.9%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온라인 청소년활동에 대해서는 64.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섯째, '사회 및 국가관' 영역에서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를 보면, 청소년들의 45.5%가 우리 사회를 공정 사회로, 72.6%가 인권 존중 사회로 생각했으며, 이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76.7%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기회와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부모님, 친구, 학교 선생님을 믿을 수 있다는 긍정 응답률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던 반면, 정치인, 이웃, 언론, 인터넷 정보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웃을 믿을 수 있다는 긍정 응답률은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이웃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긍정 응답률도 이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웃을 믿을 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과거보다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다문화의식' 영역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도가 향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V-1 청소년 가치관 조사 주요결과(2008년, 2020년)

구분	구분	2008년	2020년	비고	
인생관	삶의 만족도	57.6%	83.7%	26.1% ↑	
	행복감	69.2%	84.4%	15.2% ↑	
	미래에 대한 전망	62.8%	72.8%	10.0% ↑	
	가족 중요도	98.6%	98.4%	0.2% ↓	
	동성친구 중요도	96.2%	97.2%	1.0% ↑	
	이성친구 중요도	79.0%	77.1%	1.9% ↓	
	이웃 중요도	63.9%	52.4%	11.5% ↓	
	여가 중요도	94.1%	96.4%	2.3% ↑	
	일 중요도	95.7%	97.0%	1.3% ↑	
	건강 중요도	98.5%	97.9%	0.6% ↓	
	종교 중요도	35.4%	23.0%	12.4% ↓	
	학력 중요도	82.6%	83.1%	0.5% ↑	
	명예 중요도	-	78.5%	-	
	돈 중요도	92.3%	95.5%	3.2% ↑	
가족/결혼관	물건 구입 시 고려사항(③ 디자인)	-	32.7%	-	
	가족생활 만족도	81.0%	92.5%	11.5% ↑	
	결혼 후 부모 부양	65.8%	42.3%	23.5% ↓	
	결혼 후 자녀에 대한 생각	-	50.7%	-	
	명절에 대한 생각	-	85.9%	-	
	부모 부양 주체(② 가족)	-	84.2%	-	
	결혼에 대한 인식 (③ 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41.6%	59.9%	18.3% ↑	
	배우자 선택 기준(① 성격)	-	71.1%	-	
	희망 자녀 수	2.0명	1.5명	0.5명 ↓	
	부모님의 비용 부담 (③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	81.8%	-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	10.2%	-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	3.0%	-
		취업할 때까지	-	1.4%	-
		결혼할 때까지	-	1.0%	-
이혼 수용도	3.7점	5.4점	1.7점 ↑		
미혼모 수용도	3.2점	5.4점	2.2점 ↑		
입양 수용도	6.3점	6.5점	0.2점 ↑		
동성애 수용도	3.0점	4.5점	1.5점 ↑		
직로/직업관	인생목표	69.4%	65.7%	3.7% ↓	
	대학 진학의 필요성	78.7%	70.1%	8.6% ↓	
	진로 및 직업 선택의 주도성	92.1%	94.5%	2.4% ↑	
	직업 낙관성	79.4%	79.4%	-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 (① 자신의 능력, ⑤ 자신의 적성)	능력/ 31.0%	적성/ 27.3%	-	
학교/친구관	학교생활 만족도	-	88.1%	-	
	학교에 대한 견해	77.9%	75.4%	2.5% ↓	
	친구 선택 기준(⑦ 함께 있으면 즐거운 것)	-	49.7%	8가지 보기	

구분	구분	2008년	2020년	비고
사회/ 국가관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견해	-	71.7%	-
	온라인 청소년활동에 대한 견해	-	64.1%	-
	<b>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공정</b>	<b>26.7%</b>	<b>45.5%</b>	<b>18.8% ↑</b>
	<b>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인권 존중</b>	<b>45.2%</b>	<b>72.6%</b>	<b>27.4% ↑</b>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다양성 인정	-	65.8%	-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남녀평등	-	54.7%	-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지원	-	76.7%	-
	<b>국민으로서의 자긍심</b>	<b>70.1%</b>	<b>84.6%</b>	<b>14.5% ↑</b>
	<b>나라가 위급 시 무엇이든 하겠는지에 관한 견해</b>	<b>45.8%</b>	<b>59.8%</b>	<b>14.0% ↑</b>
	<b>남북통일의 필요성</b>	<b>67.6%</b>	<b>55.0%</b>	<b>12.6% ↓</b>
	<b>길거리에서 위험 시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임에 관한 견해</b>	<b>57.3%</b>	<b>77.8%</b>	<b>20.5% ↑</b>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조에 관한 견해	71.1%	76.0%	4.9% ↑
	<b>집단 이익을 위한 나의 희생에 관한 견해</b>	<b>53.3%</b>	<b>65.4%</b>	<b>12.1% ↑</b>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 설치에 관한 견해	39.2%	42.0%	2.8% ↑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권리 희생에 관한 견해	-	74.5%	-
	부모님 신뢰도	97.1%	97.1%	-
	친구 신뢰도	87.3%	89.6%	2.3% ↑
	<b>학교 선생님 신뢰도</b>	<b>71.8%</b>	<b>84.6%</b>	<b>12.8% ↑</b>
	<b>이웃 신뢰도</b>	<b>41.1%</b>	<b>33.3%</b>	<b>7.8% ↓</b>
	<b>언론 신뢰도</b>	<b>34.1%</b>	<b>40.5%</b>	<b>6.4% ↑</b>
	정치인 신뢰도	-	17.5%	-
	공무원 신뢰도	-	50.1%	-
	인터넷 정보 신뢰도	-	43.9%	-
	AI(인공지능) 신뢰도	-	62.9%	-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4.18점	5.22점	1.04점 ↑
	정치에 대한 관심도	4.61점	4.40점	0.21점 ↓
	<b>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 (① 예)</b>	<b>53.8%</b>	<b>43.3%</b>	<b>10.5% ↓</b>
	투표 연령의 적절성(② 지금이 적당하다)	-	76.4%	-
	장기기증 수용도	6.5점	6.8점	0.3점 ↑
	안락사 수용도	4.6점	5.7점	1.1점 ↑
환경보존의 중요성	-	96.3%	-	
다문화 의식	<b>다문화 사회의 국가 발전에 관한 견해</b>	<b>77.9%</b>	<b>85.4%</b>	<b>7.5% ↑</b>
	<b>다문화 청소년 친구에 관한 견해</b>	<b>86.9%</b>	<b>94.8%</b>	<b>7.9% ↑</b>
	<b>다문화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견해</b>	<b>87.6%</b>	<b>97.4%</b>	<b>9.8% ↑</b>

\* 주: 1) 문항, 결과, 2008년 자료 출처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3장에 제시되어 있음.  
2) 2020년도 조사결과 중 2008년도와 비교하여 5.0%이상 높거나 낮은 변인들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음.

## 2.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절차

### 1) 정책과제 발굴 절차

금년도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 발굴절차는 [그림 V-1]과 같다. 먼저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진행된 전문가 초빙 콜로키움, 청소년분야 학계 및 현장, 청소년 등이 참가한 청소년정책포럼에서 제시된 내용 중 시의성이 높은 현안 이슈와 미래 예측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의 영역별 구분과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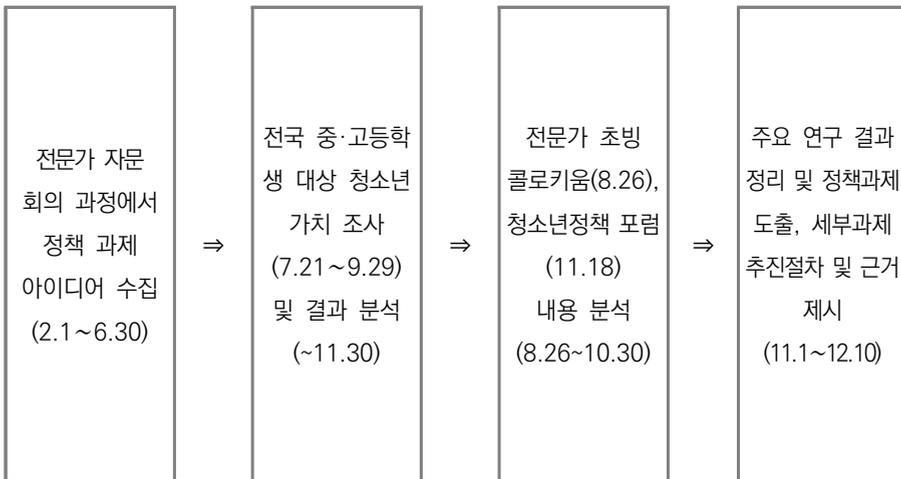


그림 V-1 정책과제 발굴 절차

## 2) 정책과제 영역 구분 및 세부 추진과제

금년도 정책 영역별 추진과제는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콜로키움 및 청소년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정책영역은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 설문지 구성을 토대로 인생관, 가족-결혼관/진로-직업관, 사회-국가관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세부추진과제 9개를 발굴하였다.

세부정책과제의 구성은 먼저 정책 내용에 금년도 가치관 조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정책 내용을 제언하였다. 이 과제에 기대효과와 실현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안사항과 세부추진 절차를 6~7단계로 구분하고, 마지막에 추진근거와 실제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표 V-2 Z세대 10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에 부응하는 사회-정책적 추진 과제

정책영역	세부 추진과제	발굴 근거
1. 인생관	1) 긍정적 관점의 청소년정책 개발 및 제도적 기반 조성	- 설문조사 결과 - 전문가콜로키움 - 청소년정책포럼
	2) Z세대 실물경제 이해 및 온라인 소비자 교육 시스템 강화	
	3)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단’ 운영	
2. 가족-결혼관/ 진로-직업관	4) 지역사회 세대통합(브릿지) 및 가족 친밀도 증진 프로그램 확대	- 설문조사 결과 - 전문가콜로키움 - 청소년정책포럼
	5) Z세대 청소년의 결혼관 및 자녀출산 인식 전환 프로젝트	
	6) Z세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일학습병행제’ 확대 실시	
3. 사회국가관	7) ‘Z세대 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 교육’ 시스템 강화	- 설문조사 결과 - 전문가콜로키움 - 청소년정책포럼
	8) 미래세대를 위한 ‘스마트 시민청소년센터’ 설립·운영	
	9) 읍·면 단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기획단’ 구성 및 운영	

**정책 과제 : 1-1) 긍정적 관점의 청소년정책 개발 및 제도적 기반 조성**

과제도출 근거 및 정책내용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도 중고등학생 설문조사 결과 <b>삶의 만족(83.7%), 행복(84.4%), 미래 전망(72.8%)</b>에 대한 긍정 응답률에서 2008년 조사 대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됨.</li> <li>• 지난 30년간 청소년정책이 '위기청소년'의 관점에서 보호와 육성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청소년을 배제, 주변인으로 간주해 왔음. 앞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발전가능성과 희망, 변화에 주체적인 대응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청소년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함.</li> </ul>	<p><b>긍정적 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이 스스로 권리와 참여기회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에 대한 위상 변화 기반 조성</li> <li>•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국가 및 지역사회 핵심동력과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li> </ul> <p><b>부정적 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의회 등 단순 참여기구의 성격으로 취급될 우려가 있음.</li> </ul> <p><b>실현 가능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주도적 청소년정책 수립'과 아동친화도시 추진과정에서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참여기회 확대 관점에서 이 과정은 매우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됨.</li> </ul>
<p><b>현안 사항</b></p> <p>2019년(오해섭 외, 2019) 조사에서 '청소년행복지표조사'에서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는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정책과 관련 제도에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주도성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 목표에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등이 명기되어 있으나, 중점과제와 관련법-제도 등의 주요 내용은 여전히 청소년을 위기와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p>	
<p><b>추진 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청소년에 대한 위기적 접근에서 긍정적 자산으로 인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시스템 마련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수립</li> <li>■ 2단계 : 정부 담당부처, 지자체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li> <li>■ 3단계 : 청소년정책 수립과 관련법-제도 마련 과정에서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li> <li>■ 4단계 : 시도의회 및 아동친화도시 담당자를 포함하여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아동청소년권리참여 기획단' 구성(안) 마련</li> <li>■ 5단계 : 지자체 단위 '아동청소년 권리참여 기획단' 설치 및 운영관련 근거 제정 및 운영 기준 마련</li> <li>■ 6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li> </ul>	
<p><b>추진 근거 및 사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1-1 청소년참여 확대 1-1-2-3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조성(여성가족부)</li> <li>★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원칙: 1. 아동의 참여, 2.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3. 아동권리 전략, 4. 아동권리 전담기구설치 등</li> </ul>	

정책 과제 : 1-2) Z세대 실물경제 이해 및 온라인 소비자 교육 시스템 강화

과제도출 근거 및 정책내용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도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가족(98.4%), 건강(97.9%), 동성친구(97.2%)와 함께 <b>일(97.0%), 여가(96.4%), 돈(95.5%)</b> 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음.</li> <li>• 청소년 시기 특히 Z세대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유경제와 구독경제를 포함한 실물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포함하여, 온-오프라인(on-off line)상의 건전한 소비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소비자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li> </ul>	<p><b>긍정적 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을 포함하여 현대인이 추구하는 일과 여가의 균형인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실현할 수 있는 공유경제 및 구독경제 이해 및 활용능력 배양</li> <li>• 건전한 온라인 마켓활동을 통한 소비자 사회화 수준 향상</li> </ul> <p><b>부정적 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지나치게 온라인 마켓에 몰입하거나 준거집단의 부정적인 편견이나 평가 등을 두려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li> </ul> <p><b>실현 가능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과 소비시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Z세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물경제 이해와 소비자교육 시스템 강화는 매우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됨.</li> </ul>
<p><b>현안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시기 특히 Z세대 10대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확실히 필요한 상품은 비용에 상관없이 구매하고, 나머지는 공유하거나 구동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금년도 연구결과에서 디자인을 중시하고 소비채널도 인스타그램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li> </ul>
<p><b>추진 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Z세대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경제활동 및 소비자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방향 논의</li> <li>■ 2단계 : Z세대 청소년, 경제전문가, 온라인 마켓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물경제 이해와 온라인 마켓 운영 실태 파악</li> <li>■ 3단계 : 학교 및 청소년활동 시설을 주축으로 Z세대를 위한 실물경제 이해와 온라인 소비자 교육 콘텐츠 개발</li> <li>■ 4단계 : 지역단위 도서관, 아동청소년시설, 학교 등에서 자원활동가와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확대</li> <li>■ 5단계 : 지자체 단위 '시군의회와 아동친화도시' 운영관련 근거를 통해 Z세대 실물경제 이해 및 온라인 소비자 교육 지원 조례와 시행령 마련</li> <li>■ 6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li> </ul>
<p><b>추진 근거 및 사례</b></p>	<p>★ 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p> <p>2-1-1.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지원 체제' 구축</p> <p>3-3-3. 청소년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p> <p>건전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p>

정책 과제 : 1-3)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단' 운영

과제도출 근거 및 정책내용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도 설문조사 결과 <b>건강이 중요하다</b>는 응답률(97.9%)은 2008년도(98.5%)와 유사하게 매우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b>다문화 사회의 국가 발전 도움(85.4%)</b>과 <b>다문화 청소년의 권리(97.4%)</b> 등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매우 높게 나타났음.</li> <li>• 지역사회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Z세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위축 및 사회적 소외감, 차별감 등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됨.</li> </ul>	<p><b>긍정적 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과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시스템 구축</li> <li>• 다문화를 포함하여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사회적 소외와 차별감 예방 및 치유시스템 구축</li> </ul> <p><b>부정적 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비롯하여 취약계층 청소년 위주로 정신건강 지원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상 청소년들의 노출 기피와 일반 청소년들의 역차별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li> </ul> <p><b>실현 가능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대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인 만큼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관리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됨.</li> </ul>
<p><b>현안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청소년들의 신체건강 관련 정책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10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예방과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li> <li>• 특히 2020년도는 '코로나19'시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위축 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시점으로 판단됨.</li> </ul>	
<p><b>추진 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정신건강 지원단 구성</li> <li>■ 2단계 : 지역 단위 정신건강(심리 및 위기)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매뉴얼 개발</li> <li>■ 3단계 : 취약계층 가정 학부모 및 보호자(후견인), 교사, 아동청소년 시설 담당자, 지역사회 안전망(CYS-Net) 관계자, 담당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 실시</li> <li>■ 4단계 : 지역 단위 '취약계층 청소년 정신건강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li> <li>■ 5단계 : 운영인력의 전문성 개발 및 사업의 내실화 노력 확대</li> <li>■ 6단계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한 사업의 안정화 기반 구축</li> </ul>	
<p><b>추진 근거 및 사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4항'위기청소년의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li> <li>★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센터, 무지개청소년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li> </ul>	

정책 과제 : 2-4) 지역사회 세대통합(브릿지) 및 가족 친밀도 증진 프로그램 확대

과제도출 근거 및 정책내용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년도 설문조사 결과 <b>가족이 중요하다</b>는 응답률(98.4%)은 2008년도(98.6%)와 유사하게 매우 높게 나타났고, <b>가족생활에 만족한다</b>는 응답률(92.5%)은 2008년도(81.0%)에 비해 상승하였음. 반면, <b>이웃이 중요하다</b>는 응답률(52.4%)은 2008년도(63.9%)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li> <li>마을 혹은 읍면 단위에서 지역사회 어르신-아동 및 청소년 간의 세대통합 프로그램과 가족동반 활동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마을 단위 삶의 질을 회복하고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상호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li> </ul>	<p><b>긍정적 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과 읍면 단위에서 청소년센터, 노인복지센터, 마을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세대통합과 가족동반 프로그램 실시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기여할 것임.</li> <li>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대별 갈등을 해소하고 가족 간의 친밀도를 높여 건전한 지역사회와 행복한 가정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임.</li> </ul> <p><b>부정적 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전히 청소년들을 위기와 문제아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청소년들 역시 성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활동 아이템과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이 예상됨.</li> </ul> <p><b>실현 가능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단위 다양한 자원봉사자, 자원활동가, 재능기부자 등을 활용하고 교회 및 다양한 유희시설을 활용하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li> </ul>
<b>현안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행정자치부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교육부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여가부의 '청소년성장지원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음. 반면, 갈수록 현저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대별 차이를 극복하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접근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됨.</li> </ul>
<b>추진 절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 마을, 읍·면 단위 세대통합과 가족유대강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li> <li>2단계 : 세대통합과 가족동반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및 공간 자원 확보</li> <li>3단계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커뮤니티 단위 설명회 및 참가자 모집</li> <li>4단계 : 지자체 행정 담당부서 및 교육청, 후원단체, 참가비 등 예산확보 방안 마련</li> <li>5단계 : 커뮤니티 단위 '세대통합 및 가족동반 프로그램 기획단' 운영관련 근거 제정 및 기준 마련</li> <li>6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li> </ul>
<b>추진 근거 및 사례</b>	<p>★ 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참여 확대</li> <li>1-3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li> <li>3-1-④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li> <li>3-2-⑦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 강화</li> </ul>

정책 과제 : 2-5) Z세대 청소년의 결혼관 및 자녀출산 인식 전환 프로젝트

과제도출 근거 및 정책내용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도 설문조사 결과 <b>“본인이 원하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b>는 항목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응답률은 2008년도(41.6%)에 비해 증가하였음. 또한 <b>희망하는 자녀 수</b>는 2008년(M=2.0명) 대비 <b>2020년(M=1.5명)</b>에 감소하였음.</li> <li>•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인적자원 확보와 지자체 차원의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필수적인 현안 이슈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범정부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결혼 인식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함.</li> </ul>	<p><b>긍정적 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은 층의 혼인율을 높이고 평균 혼인연령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 병행</li> <li>•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반 구축</li> </ul> <p><b>부정적 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은 연령층의 혼인을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자칫 혼인을 정책적 이슈화 하거나 출산에 대한 언급이 여성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음.</li> </ul> <p><b>실현 가능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시점에서 젊은 층의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판단됨.</li> </ul>
<p><b>현안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가치관 및 의식조사가 진행될수록 결혼이 필요가 아닌 선택이라는 생각이 증가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자녀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음.</li> <li>• 이 두 가지 현안은 젊은 층의 일자리부족, 여성의 경력단절, 자녀 육아 및 양육부담, 주택문제 등 현실적인 사회적 이슈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됨.</li> </ul>	
<p><b>추진 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국무총리실에 젊은 층의 ‘결혼 및 출산 인식 전환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구성</li> <li>■ 2단계 : 젊은 층의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정책 연구 확대</li> <li>■ 3단계 : 다양한 가족 형태와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li> <li>■ 4단계 : Z세대 청소년을 포함하여 청년층 대상 정책 홍보 확대 및 의견 수렴</li> <li>■ 5단계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여성정책, 청년정책 등과 연계하여 ‘부처별 정책적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li> <li>■ 6단계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한 사업의 안정화 기반 구축</li> </ul>	
<p><b>추진 근거 및 사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일보(2019.5.4.). 가족의 다양성 인정, 법으로 보호하는 선진국. <a href="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i> <li>★ 보건복지 Issue &amp; Focus, 제2004호 혼인동향 분석과 정책과제(이상림, 2013.08.23.)</li> <li>★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li> </ul>	

정책 과제 : 2-6) Z세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일학습병행제’ 확대 실시

과제도출 근거 및 정책내용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도 설문조사 결과 <b>인생목표를 위해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는 응답률(70.1%)</b>은 2008년도(78.7%)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b>진로 및 직업 선택 시 본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하겠다는 응답률(94.5%)</b>은 2008년도(92.1%)와 유사하게 높게 나타남.</li> <li>• Z세대 청소년들이 진로 및 직업 선택 과정에서 자기주도성을 중시하고, 대학 진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청소년 각자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도와 일학습병행제’ 확대 실시를 제안함.</li> </ul>	<p><b>긍정적 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 및 청년 구직자는 교육훈련과 기업현장 간의 협력을 통해 재훈련 비용 절감 및 취업준비 기간 단축의 효과를 창출함</li> <li>• 신규 직원이 짧은 기간에 직무능력을 습득함으로써 동종업종에 장기근속 유도</li> </ul> <p><b>부정적 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학부모 및 학교, 학생들은 기업의 실습장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부당한 노동 강도 및 관리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어 이는 극복해야 하는 과제임.</li> </ul> <p><b>실현 가능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 및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기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젊은 층의 취업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임.</li> </ul>
<p><b>현안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과 학교, 정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제도임.</li> <li>• 학습근로자는 실제 일터에서 체험식, 실습식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조기 취업이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li> </ul>	
<p><b>추진 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Z세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 확대 실시를 위한 정책포럼과 온-오프라인(on-off line) 공론화 기획 마련</li> <li>■ 2단계 : Z세대 청소년 대상 ‘일학습병행제’ 수요 조사 및 중장기 계획 수립</li> <li>■ 3단계 :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를 주축으로 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센터 등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 관련 교육 및 사전 체험프로그램 개발</li> <li>■ 4단계 : 인증기준 검증 기업 공개 및 교육훈련과정을 전담할 전문컨설턴트 양성</li> <li>■ 5단계 : ‘일학습병행제’ 지원을 위하여 지방의회를 통해 관련 조례와 시행령 마련</li> <li>■ 6단계 : ‘일학습병행제’ 우수기관 선정 및 성공사례 발굴 홍보 확대</li> <li>■ 7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계별 확대 방안 모색</li> </ul>	
<p><b>추진 근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학습병행제’ 운영 매뉴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일학습병행사업단</li> <li>★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제’ 지원 센터</li> </ul>	

정책 과제 : 3-7) 'Z세대 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 교육' 시스템 강화

과제도출 근거 및 정책내용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도 설문조사 결과 <b>정치에 대한 관심도 (M=4.40/11점 척도)</b>는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b>'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 의사(43.3%)</b>는 2008년(53.8%)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음.</li> <li>• 이제는 청소년들이 자신과 연관된 문제를 비롯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들을 정확하게 이해, 논의, 판단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함.</li> </ul>	<table border="1"> <tr> <td data-bbox="603 393 686 535"><b>긍정적 효과</b></td> <td data-bbox="686 393 1082 5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이상 사회의 주변인이 아닌 주체적 참여로 주인의식과 리더십 향상</li> <li>• 건전한 온라인 사회-정치 참여활동을 통한 디지털 시민의식 향상</li> </ul> </td> </tr> <tr> <td data-bbox="603 535 686 677"><b>부정적 효과</b></td> <td data-bbox="686 535 1082 6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학부모 및 학교,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학생과 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어 이는 극복해야 하는 과제임.</li> </ul> </td> </tr> <tr> <td data-bbox="603 677 686 851"><b>실현 가능성</b></td> <td data-bbox="686 677 1082 8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유럽 국가는 선거 연령이 만16세이며,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국회의원(만25세 이상)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 정책을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됨.</li> </ul> </td> </tr> </table>	<b>긍정적 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이상 사회의 주변인이 아닌 주체적 참여로 주인의식과 리더십 향상</li> <li>• 건전한 온라인 사회-정치 참여활동을 통한 디지털 시민의식 향상</li> </ul>	<b>부정적 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학부모 및 학교,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학생과 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어 이는 극복해야 하는 과제임.</li> </ul>	<b>실현 가능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유럽 국가는 선거 연령이 만16세이며,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국회의원(만25세 이상)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 정책을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됨.</li> </ul>
<b>긍정적 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이상 사회의 주변인이 아닌 주체적 참여로 주인의식과 리더십 향상</li> <li>• 건전한 온라인 사회-정치 참여활동을 통한 디지털 시민의식 향상</li> </ul>						
<b>부정적 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학부모 및 학교,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학생과 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어 이는 극복해야 하는 과제임.</li> </ul>						
<b>실현 가능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유럽 국가는 선거 연령이 만16세이며,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국회의원(만25세 이상)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 정책을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됨.</li> </ul>						
<p><b>현안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조정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음.</li> <li>• 청소년 시기 특히 Z세대 10대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각을 소신 있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는 장점을 활용하여 사회정치 참여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li> </ul>							
<p><b>추진 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Z세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치 참여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론화의 장(정책포럼을 포함하여)을 마련함.</li> <li>■ 2단계 : Z세대 청소년들의 사회정치 참여 수준 파악을 위한 조사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li> <li>■ 3단계 :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를 주축으로 학교 및 청소년활동 시설에서 Z세대 대상의 사회정치 참여 교육 콘텐츠 개발</li> <li>■ 4단계 : 지역단위 도서관, 아동청소년시설, 학교 등에서 자원활동가와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확대</li> <li>■ 5단계 : 지자체 단위 '시군의회와 아동친화도시' 운영관련 근거를 통해 Z세대 실물경제 이해 및 온라인 사회정치 참여 교육 지원 조례와 시행령 마련</li> <li>■ 6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li> </ul>							
<p><b>추진 근거 및 사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청소년참여 확대</li> <li>1-1-2-3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조성(여성가족부)</li> </ul> </li> <li>★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1. 아동의 참여, 2.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3. 아동권리 전략, 4. 아동권리 전담기구설치 등</li> </ul>							

**정책 과제 : 3-8) 미래세대를 위한 ‘스마트 시민청소년센터’ 설립-운영**

과제도출 근거 및 정책내용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도 설문조사 결과 <b>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45.5%),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72.6%)</b>라고 인식하는 청소년들은 2008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음. 또한 <b>이혼, 미혼모, 동성애에 대한 수용도 역시 증가하는</b> 경향을 보였음.</li> <li>• Z세대 10대 청소년을 포함하여 이어지는 알파세대(시기반)를 대상으로 디지털 문화와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참여, 정보수집 및 평가, 상호간의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과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스마트시민청소년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li> </ul>	<p><b>긍정적 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Z세대와 알파세대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 정보, 신문기사 검색, 영화와 음악 등 다양한 여가생활,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SNS를 이용한 상호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기반 구축</li> </ul> <p><b>부정적 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지나치게 디지털 기기,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몰입하거나 준거집단과의 부정적인 관계나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li> </ul> <p><b>실현 가능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Z세대와 알파세대의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의성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음 정책임.</li> </ul>
<p><b>현안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원주민으로 명명되는 Z세대 청소년들의 특징은 ①반권위주의, ②집단이 아닌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화된 선택, ③ 참여적이며 자기 표현적임, ④ 시민적 미디어와 상호작용에 익숙함, ⑤ 새로운 시민적 관여 패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Deuze, 2006). 이러한 Z세대를 e-시민(citizen) 또는 스마트-시민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최초로 디지털 도구를 통해 의사소통을 공식적으로 경험한 세대로 구분함.</li> </ul>	
<p><b>추진 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Z세대와 알파세대 청소년들의 행동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포럼 개최</li> <li>■ 2단계 : Z세대와 알파세대를 위한 ‘스마트 시민청소년센터’ 설립위원회 구성</li> <li>■ 3단계 : 미래세대를 위한 ‘스마트 시민청소년센터’의 중장기 사업계획서와 컨텐츠 개발</li> <li>■ 4단계 : 지자체 행정부서와 시군의회를 통한 ‘스마트 시민청소년센터’ 설립 조례와 시행령 마련</li> <li>■ 5단계 : 지역 단위 ‘스마트 시민청소년센터’ 신설 혹은 협력기관을 지정 운영</li> <li>■ 6단계 : 운영과정에서 직원 역량 개발 및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발전방안 모색</li> </ul>	
<p><b>추진 근거 및 사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li> <li>★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마을만들기 지원조례)</li> <li>★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li> </ul>	

정책 과제 : 3-9) 읍·면 단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기획단' 구성 및 운영

과제도출 근거 및 정책내용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도 조사 결과 '우리사회가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에 76.7%가 동의하였음. 또한 '길거리에서 위험 시 누군가가 나를 도와 줄 것이다'에 대해서는 77.8%가 그렇다고 응답함.</li> <li>• Z세대 청소년들이 사회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청소년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야함. 더불어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기획, 실행하는 법·제도 및 정책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함.</li> </ul>	<p><b>긍정적 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이 스스로 권리와 참여기회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위상변화 유도</li> <li>•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지역사회 인적자원 혹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li> </ul> <p><b>부정적 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의회 등의 참여기구와 중복되거나 운영과정에서 형식적인 참여에 머물 여지가 있음.</li> </ul> <p><b>실현 가능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원칙 대부분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주도적 참여기회 확대에 비추어 보면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됨.</li> </ul>
<p><b>현안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년 5월 11일). 제도적 혹은 정책적으로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노력들은 매우 중요하며 지속될 필요가 있음.</li> </ul>	
<p><b>추진 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읍·면 혹은 시·군 단위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기획단' 구성 계획 수립</li> <li>■ 2단계 : 지자체 담당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li> <li>■ 3단계 : 지역사회 개발 사업 및 아동친화도시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확대와 청소년 주도적인 사업기획 및 실행, 예산집행 권한 부여</li> <li>■ 4단계 : 시·군·구의회, 청소년 담당부서,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참여와 주도적 기획을 보장하는 근거 조례 제정</li> <li>■ 5단계 : 지자체 혹은 읍·면단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참여와 기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운영 기준 마련</li> <li>■ 6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모색</li> </ul>	
<p><b>추진 근거 및 사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li> <li>서울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li> <li>★ 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청소년참여 확대</li> <li>1-1-2-3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조성(여성가족부)</li> </ul> </li> </ul>	

### 3. 향후 청소년 정책 추진 및 가치관 연구의 방향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단기적으로는 청소년문제와 위기를 최소화하는 현실적 이유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인간의 가치관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가치관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하는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보다 현명하게 적응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 환경을 개조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20년대를 사는 우리 사회의 중심적 세대로서 Z세대적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장차 우리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느냐의 중요한 요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청소년정책은 이들의 가치관 변화에 주목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성인세대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Z세대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Z세대라는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를 맞이하였다. 새로운 청소년업무의 이념과 비전을 다시 마련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업무에 대한 기본발상을 크게 전환할 때가 되었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이 주체로서 스스로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예기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생활 형태와 소비트렌드의 일상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SNS시대, 글로벌화의 시대 등에 따른 총체적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Z세대의 특성과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 맥락을 분석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다수의 Z세대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소비의 주체’, ‘트렌드 메이커’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의 연구 주제가 경제적,

소비의 관점에서 Z세대의 행동 분석을 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국외 연구 동향은 ‘전 세계 청소년 트렌드’를 Scouts(2014)에서 거시적이며 세계적인 트렌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맥킨지(리오데자네이로, 상파울로, 레시페에 거주하는 세대들의 특성을 도출하여 동일지역의 다세대를 대상으로 연구함), 글로벌웹인덱스와 스냅(2019년 표본 집단 16세-22세 79,000명)등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향력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가치관조사는 현재의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뿐 아니라 미래 기성세대의 행동과 그에 따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임희진 외, 2009). 국내외 연구 동향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 축적뿐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 간 비교, 국가 간 비교 등이 가능하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조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가치관조사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통합되어 일부 문항만이 조사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하며 체계적인 별도의 조사로 재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세대에 대한 연구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디지털 네이티브 Z세대 이후의 세대는 ‘AI 네이티브 알파세대’이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민감성이 다음세대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디지털에서 AI로 전환되는 상황을 견지하고 Z세대 이후 알파세대에 대한 분석을 시작할 시점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바이다.

##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2017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곽소윤, 이창훈, 임용빈 (2016).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고범서 (1992). **가치관연구**. 경기: 나남출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일학습병행제 운영매뉴얼**.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계부처합동 (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서울: 여성가족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313&ancYd=20200114&ancNo=16864&efYd=2020011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에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종합보고서)-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동심, 주경희, 김주현 (2019). 에코세대와 Z세대 대학생의 취업환경 및 직업에 대한 인식 비교. **인문사회**21, 10(5), 725-739.
- 김미란 (2012). 청소년이행(transition)과 '위기청소년' 담론에 대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1), 51-76.
- 김세광 (2020). 국내외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동향.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신영, 오성배, 이명진 (2007). **한국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서울: 국가청소년 위원회.
- 김연숙 (2018). 사회적 가치와 한국의 민주주의: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2010~2017 자료분석.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정치학회.
- 김영신, 박지영 (2005). 소비자사회화 관점에서 본 대학생소비자의 의사결정 스타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77-91.
- 김정주 (2007). **청소년참여의 현황과 과제**. 천정웅·이용교(편). 적극적 관점의 청소년개발, 159-181.
- 김태길 (1967).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서울: 일조각.
- 김태헌 (2005).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2005.4.), 16-24, 102,
- 김형립 (1995).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논총**, 92-117.
- 나순옥 (2005). **청소년소비자의 과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사회화 대행변인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추이: 1979, 1998,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24(4), 63-92.
-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 **트렌드 MZ 2019: 밀레니얼-Z세대 5대 마케팅 트렌드**. 서울: 한빛비즈.
- 동아일보(2019.5.4.). 가족의 다양성 인정, 법으로 보호하는 선진국.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dptj> 2020년 12월 1일 인출.
- 모경환, 김명정, 송성민 (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42(1), 77-101.
- 민보경, 박서원, 성문주, 강정인, 김연숙, 손현주, 강경균 (2019). **청소년 미래선호 가치 설문조사 기반연구**.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 문용린 (1987). 현대 청소년의 가치관. **사목연구**, 112.
- 박영미, 이희숙 (2015). 청소년소비자의 성장단계별 소비자사회화 수준 및 소비자

- 사회화 작용인이 소비자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문제연구**, 46(2), 133-163.
- 박혜숙 (2016). 신세대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 연구: Z세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7(6), 753-767
-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서용석 (2014).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미래세대의 정치적 대표성 제도화 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송주완 (2020). Z세대의 외식 소비성향이 외식업체 선택속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리조트 연구**, 19(1), 289-312.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5.11.). 「**포용국가를 위한 청소년 정책발표**」.
-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54013&inputYear=2017>에서 2020년 1월 22일 인출.
- 오해섭 (2008).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청소년역량강화 방안**. **농촌지도와 개발**, 15(3), 417-432.
- 오해섭, 문호영, 염유식 (2019).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Ⅷ**.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201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Ⅵ: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키백과(2020), <https://ko.wikipedia.org/wiki/인플루언서>에서 2020년 11월 2일 인출.
- 유진은, 노민정 (2017). Group lasso를 통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8(1), 127-149.
- 윤철경, 조아미, 백지숙, 유혜림 (20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Ⅲ**:

-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상림(2013). 혼인동향 분석과 정책과제(보건·복지 Issue&Focus).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주, 오해섭, 강지원, 백승주, 성지은, 탁현우 (2018).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35-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재창, 최운실, 정영애, 최경선 (1983). **청소년 의식구조 및 형성 배경.**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원, 김영인 (20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 II-사회 정치의식 및 참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원, 오승근, 김은정 (2010).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 III-가족과 가정생활에 관한 의식 및 가치관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진숙 (2020).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및 소비생활 특성.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창호, 김종길, 이향후 (2008). **초·중·고 대학생 의식구조비교에 의한 미래-세대 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김지연, 이경상 (2009).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임희진, 문호영, 정정호 (201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백혜정, 김현철, 강현철 (2012).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정다인, 김승인 (2020).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복합문화공간의 브랜드 경험 연구-사운드 한남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8(3), 333-339.
- 정은이 (2019). 세대의식격차가 방송콘텐츠 제작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문화용**

- 합학회 2019년 하계학술대회, 429-437.
- 정지영, 박상현, 원영신 (2019).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가치에 따른 스포츠 소비행동, **한국체육과학회지**, 28(3), 15-31.
- 주희영, 김수영, 김영인 (2018). 경험한 사회문화와 디지털 미디어 환경 차이에 따른 세대별 대학생의 선호적 특성: X,Y,Z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논문집**, 32(4), 35-48.
- 지승학 (2018). Z세대를 위한 주체성 담론 고찰. **영상문화**, 33, 127-148.
- 채진미 (2012). 인터넷 브랜드와의 관계정도에 따라 상호작용성이 소비자-인터넷 브랜드 관계, 재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4(4), 191-204.
- 채희주, 신지예, 고은주 (2015). 패션브랜드의 이미지 기반 SNS에서 해시태그의 이용 동기가 고객 소셜 참여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 SNS 참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 17(6), 942-955.
- 채희주, 이진숙 (2020). Z세대의 SNS마켓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생활학회지**, 29(2), 199-215.
- 천경희 (1985). **청소년의 소비자사회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정웅 (2020).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적 대응 방안 논의: Z세대를 위한 새 부대(New Bottle)의 모색.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천정웅, 박선희, 이태숙 (2020).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경기: 양성원.
- 최윤진 (1992). **청소년과 가치관**.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최인재, 김지경, 임희진, 강현철 (2011). **2010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통계청 (2018). **2018년 사회조사표(청소년)**. <http://meta.narastat.kr/metas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101018&inputYear=2018>에

- 서 2020년 1월 16일 인출.
- 티타임즈 (2017) .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5가지 차이. [https://1boon.kakao.com/ttimes/ttimes\\_1711301807](https://1boon.kakao.com/ttimes/ttimes_1711301807)에서 2020년 3월 26일 인출.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0). **코로나19로 겪은 변화와 관련 인식, 이후 전망-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 (2차)**. 갤럽리포트.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101>에서 2020년 6월 8일 인출.
- 한덕응, 이경성 (2003). 한국인의 인생관으로 본 가치관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0), 47-49.
- 한미라 (2011). 한국 청소년 가치관의 연구사적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29, 99-143.
- 한상철, 김영한 (200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인생관, 가정관, 교육관, 직업관. **교육학논총**, 24(1), 55-79.
- 홍승직 (1969).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아세아문제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총서**, 11.
- 황영주, 이훈 (2018). 소극적여가 의미에 대한 재해석 -여가트렌드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집**, 84, 225-228.
- Adobe (2016). Gen Z in the Classroom: Creating the Future. Retrieved on November 9, 2020 from <http://www.adobeeducate.com/genz>.
- Beal, G. (2016). 8 Key Differences between Gen Z and Millennial. HuffPost. Retrieved on November 9, 2020 from [http://www.huffingtonpost.com/georgebeall/8-key-differencesbetween\\_b\\_12814200.html](http://www.huffingtonpost.com/georgebeall/8-key-differencesbetween_b_12814200.html).
- Bell, J. (1996). *Understanding adultism: A major obstacle to developing positive youth-adult relationships*. Youth Build USA. Somerville, MA.
- Canada (2019). <https://www.visioncritical.com/blog/gen-z-versus-millennials-infographics>에서 2020년 4월 4일 인출.
- Cheon, J. (2009). Convergence of a strengths perspective and youth dev

- elopment: Toward youth promotion practice. *Advances in Social Work*, 9(2), 176-190.
- Contenta M (2019). Z세대가 온다! Z세대 그들은 누구일까요? <https://magazine.contenta.co/2019/08/z세대-그들은-누구일까요/>에서 2020년 11월 2일 인출.
- DeChillo, N., Koren, P. E., & Schultze, K. H. (1994). From paternalism to partnership: Family and professional collaboration in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4(4), 564-576.
- Deep Focus (2015). Deep Focus Cassandra Report: Gen Z Uncovers Massive Attitude Shifts Toward Money, Work and Communication Preferences. Retrieved on November 9, 2020 from <http://www.marketwired.com/press-release/deep-focus-cassandra-report-gen-z-uncovers-massive-attitude-shifts-toward-money-work-2004889.htm>.
- Deuze, M. (2006). Participation, re-mediation, bricolage: Considering principal components of a digital culture. *The Information Society*, 22(2), 63-75.
- Epstein, R. (2007). *The case against adolescent: Rediscovering the adult in every teen*. California: Quill Driver Book.
- Fardouly, J., Pinkus, R. T., & Vartanian, L. R. (2017). The impact of appearance comparisons made through social media, traditional media, and in person in women's everyday lives. *Body Image*, 20, 31-39.
- Fischer, R. et al. (2010), "Are Individual-level and Country-level Value Structures Different? Testing Hofstede's Legacy with the Schwartz Value Surve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1(2), 135-151.
- Francis, T., & Hoefel, F. (2018). *'True Gen': Generation Z and its implication*

- for companies*. Retrieved on November 9, 2020 from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consumer-packaged-goods/our-insights/true-gen-generation-z-and-its-implications-for-companies>.
- Hansen, D.M. (2012). *A 'bottom-up' approach to youth development and policy in the United States*. Hahn-Bleibtreu, M.& Molgat, M.(eds.) Youth policy in a changing world. Toronto: Barbara Budrich Publishers.
- Scouts(2014). Global Youth Trends Report World Scout Bureau. Retrieved on November 9, 2020, from [https://scout.org/sites/default/files/library\\_files/Global%20Youth%20Trends%20Report\\_En](https://scout.org/sites/default/files/library_files/Global%20Youth%20Trends%20Report_En).
- Northeastern University (2014). Meet Generation Z. Retrieved on November 9, 2020, from [http://www.northeastern.edu/innovationsurvey/pdfs/Innovation\\_Summit\\_GenZ\\_PollRes\\_KeyMess](http://www.northeastern.edu/innovationsurvey/pdfs/Innovation_Summit_GenZ_PollRes_KeyMess).
- JWT Intelligence (2012). Gen Z: Digital in their DNA. Retrieved on November 9, 2020 from <https://www.jwt.com/en/worldwide/news/genzdigitalintheirdnastudyexaminesattitudesandtechhabitsofteensandtweensandtheipresents/>.
- Petr, C. G. (2003). *Social work with children and their families: Pragmatic Foundations*. (2nd e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Rickes, P. C. (2016). Generation in Flux-How Gen Z Will Continue to Transform Higher Education Space. *Planning for Higher Education Journal*, 44(4), 1-25.
- Schild, H., Connolly, N., Labadie, F., Vanhee, J. & Williamson, H. (2017). *Thinking seriously about youth work: And how to prepare people to do it*. Council of Europe and European Commission.
- Schild, H., Connolly, N., Labadie, F., Vanhee, J., & Williamson, H. (2017). Thinking seriously about youth work: And how to prepare

- people to do it. Council of Europe and European Commission.
- Schroth, H. (2019). Are you ready for Gen Z in the workplac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61(3), 5-18.
- Schwieger, D., & Ladwig, C. (2018). Reaching and Retaining the Next Generation: Adapting to the Expectations of Gen Z in the classroom. *Information Systems Education Journal*, 16(3), 45-54.
- Seemiller, C., & M. Grace (2016). *Generation Z Goes to College*. San Francisco: Jossey-Bass.
- Spranger, E. (1928). Types of men: the psychology and ethics of personality. Halc: Niemeyer.
- Steinberg, L., & Morris, A. M. (2001),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83-110.
- Verma, S. & Petersen, A. C. (2018). *Developmental scie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children and youth*. Cham, Switzerland: Springer.



# ○ — 부 록

— 설문지



# 부록

##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조사학교ID(기록하지 마세요)

--	--	--	--	--	--	--	--	--	--

## 5

# 청소년 가치관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연구기관으로 각종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파악하여 더 나은 청소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이름을 밝히지 않고)으로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연구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오해성 선임연구위원  
문호영 연구위원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황인성 부장, 홍세정 과장  
※ 문의전화: 080-384-1000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소년 가치관 조사>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연구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성별 등)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1



## 설문지 작성 요령

-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03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5	부모님의 노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span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2px;">(하나만 선택해 주세요)</span>	
① 부모님 스스로 해결	② <u>가족</u>	③ 정부·사회

**I** 인생관

**1**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의 미래는 밝다	①	②	③	④

**2** 여러분은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1) 가족	①	②	③	④
2) 동성친구	①	②	③	④
3) 이성친구	①	②	③	④
4) 이웃	①	②	③	④
5) 여가	①	②	③	④
6) 건강	①	②	③	④
7) 일(직업)	①	②	③	④
8) 종교	①	②	③	④
9) 학력	①	②	③	④
10) 명예	①	②	③	④
11) 돈	①	②	③	④

**3** 여러분은 물건을 구입할 때 다음 중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가격
- ② 품질
- ③ 디자인
- ④ 유행
- ⑤ 브랜드(상표)

## II 가족 및 결혼관

4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족과의 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결혼을 한 후 부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3)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명절(설날, 추석 등)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의 노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부모님 스스로 해결      ② 가족      ③ 정부·사회

6 결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 중에서 어느 쪽의 입장에 가깝습니까?

- ①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②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  
 ③ 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7 여러분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성격                                      ② 경제력(재산, 수입)                                      ③ 장래성  
 ④ 자라온 환경                                      ⑤ 종교                                      ⑥ 외모  
 ⑦ 취미                                      ⑧ 학력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8 장래에 희망하는 자녀 수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없으면 '0명')

**9** 여러분은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부모님이 어디까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구분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일부만을 부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
1)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①	②	③
2)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①	②	③
3)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①	②	③
4) 취업할 때까지	①	②	③
5) 결혼할 때까지	①	②	③

**10**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구분	전혀 동의 안함 ← → 매우 동의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미혼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입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동성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II** 진로 및 직업관

**11**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2) 미래의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에 가야한다	①	②	③	④
3) 진로나 직업은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4)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2**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습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자신의 능력                      ② 대중적 인기                      ③ 직업의 장래성
- ④ 경제적 수입                      ⑤ 자신의 적성                      ⑥ 사회 기여도
- ⑦ 사회적 지위                      ⑧ 안정성                              ⑨ 의사결정권
- ⑩ 창의성 발휘                      ⑪ 자아성취                            ⑫ 기타(적어주세요: \_\_\_\_\_)

**IV** 학교 및 친구관

**13**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	①	②	③	④

**14** 여러분은 친구를 사귄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춤, 노래, 운동, 유머 등 재주가 있는 것                      ② 리더십이 있는 것
- ③ 취미가 비슷한 것    ④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
- ⑤ 학교생활에 성실한 것    ⑥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 ⑦ 함께 있으면 즐거운 것     ⑧ 성격이 좋은 것

**15**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온라인을 통한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구분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편이다	긍정적인 편이다	매우 긍정적인이다
1) 온라인 수업	①	②	③	④
2) 온라인 청소년활동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 진로탐색활동 등)	①	②	③	④

**V 사회 및 국가관**

**16**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해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우리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3) 우리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4) 우리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5) 우리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①	②	③	④
8)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2) 우리사회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청소년활동(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등)에 참여할 기회와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면 내 개인적 권리 일부나 자유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7** 여러분은 다음의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신뢰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구분	전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편이다	믿을 수 있는 편이다	매우 믿을 수 있다
1) 부모님(보호자)	①	②	③	④
2) 친구	①	②	③	④
3)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4) 이웃	①	②	③	④
5) 언론(TV, 신문)	①	②	③	④
6) 정치인	①	②	③	④
7) 공무원	①	②	③	④
8) 인터넷 정보	①	②	③	④
9) AI(인공지능)	①	②	③	④



**VI** 다문화의식

24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2)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다	①	②	③	④
3)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The research this year, 「A study on changing youth values of generation Z」 aims to analyse trend changes and research youth values of those who are growing up in this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 The research had a focus on how to support polici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Youth who can actively participate in social engagements in terms of their local communities, schools and various areas.

The study mainly covers ① development and selection of survey questionnaires, ② survey for 5,740 youth nationwide, ③ drawing up of policy takes through analysing research results and forums.

The methodology included: both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view, survey, colloquium, policy forum and working-level consultative meetings etc.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 following policy tasks were created:

- 1) Develop youth policy and establish an institutional base from a positive perspective.
- 2) Intensify and focus on real economy and on-line consumer education system for generation Z.
- 3) Operate 'Mental Health Support Groups' for vulnerable youth in local districts.

- 4) Expand and improve upon the community's inter-generational ('BRIDGE') and family intimacy programs.
- 5) Promote projects to change the perspectives (in terms of marriage and childbirth) about generation Z.
- 6) Increase focus on 'customized work-study balance' for generation Z.
- 7) Strengthen 'social, politics and participatory education systems' for generation Z.
- 8) Establish and operate a 'Smart Citizen's Youth Centre' for future generations.
- 9) Organize and operate 'Community Youth Participation Planning Groups' on a small town unit scale such as county(Eup-Myeon).

##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 기관고유과제

-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 20-R02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유민상·최정원·이수정·장혜림
- 20-R03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오해섭·문호영
-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최용환·성유리·박윤수·김보경
- 20-R05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조방안 연구 II :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이종원·남화성·정지희
- 20-R0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1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연구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2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7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 김경준·김정숙·윤철경
- 20-R08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송태민
- 20-R08-1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1\_청소년 비만에 대한 비정형 빅데이터 연구 / 송태민
- 20-R08-2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2\_청소년 행복 결정 요인에 대한 정형 빅데이터 연구 / 홍성호
- 20-R09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승경·임세희·최은영
- 20-R1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 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이민희·김진호
- 20-R10-1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심화 분석보고서 / 박환보·주경필
- 20-R10-2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 분석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
-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 / 최인재·

강경균·송민경·조윤정·김가희

- 20-R12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0-R12-1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황영식
-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20-R13-1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1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20-R13-2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2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장근영·이동훈·윤철경 (자체번호 20-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 오은진·장희영 (자체번호 20-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총괄보고서 / 김기현·신동훈·변금선·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신동훈·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백혜정·임희진·송미경·김양희 (자체번호 20-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국내·외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 류정희·이상정·박선영·전민경 (자체번호 20-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백혜정·임희진 (자체번호 20-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교 / 배상률·이창호·이정림 (자체번호 20-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교 - 해외사례 조사 / 정현선·심우민·윤지원·김광희·최원석 (자체번호 20-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교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0-R17-2)

### 연구개발적립금

-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황여정·이정민

- 20-R24-1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황여정·이정민·김수혜
- 20-R25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 모상현
- 20-R26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 김현철

## 수 시 과 제

- 20-R18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 이정민·이종원
-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배정희·김기현
- 20-R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 황진구·김지연
- 20-R21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이창호
- 20-R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편 방안 연구 / 김경준·이종원·박정배
- 20-R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 김희진·백혜정

## 수 탁 과 제

- 20-R27 청소년 비즈쿨 활성화를 위한 고교교육 정책 연계방안 연구 / 강경균·안재영·황은희
- 20-R28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29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 김영한
- 20-R29-1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요약본) / 김영한
- 20-R30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양미석
- 20-R3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5종)
- 20-R31-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1~2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3~4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3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5~6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4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중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고등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2 2019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양미석

- 20-R33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적용방안: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 성윤숙·양미석
- 20-R34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 20-R34-1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초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2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중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3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고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5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성윤숙·이윤소
- 20-R36 어울림 자유학기 프로그램(5종)
- 20-R36-1 어울림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놀러와! 어울림 세상)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선보라·이혜옥·이윤소
- 20-R36-2 자유학기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 성윤숙·배은정·이윤소
- 20-R36-3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사회) / 성윤숙·선보라·이윤소
- 20-R36-4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도덕) / 성윤숙·이혜옥·이윤소
- 20-R36-5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국어)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이윤소
- 20-R37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 성윤숙
- 20-R3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 용역 / 김형주·김혁진·김정주
- 20-R3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40 학교 안·밖 청소년정책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남화성
- 20-R41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유진
- 20-R41-1 꿈과 친구사이 :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매뉴얼 / 이유진
- 20-R42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연구 / 최창욱·문호영
- 20-R4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사례관리사 및 자립업무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 김지연·백해정·이상정
- 20-R44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20-R45 청소년 교육·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 김영지·황세영·손진희·박명선·박종원·조기영
- 20-R46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연구 / 최창욱·좌동훈
- 20-R47 농업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농촌 청소년 실태조사 / 오해섭·최홍일
- 20-R48 성남시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 / 황진구·남화성
- 20-R49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작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 황진구·좌동훈
- 20-R50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최창욱

- 20-R51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 최용환·곽창규·이성규
- 20-R52 수원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용환·김보경
- 20-R53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20-R54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연구 / 최인재·송원일·박지원
- 20-R55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 최인재·송원일·배수인
- 20-R56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의 성장관리 및 성과측정 방안 연구 / 이정민·성유리·김혜원
- 20-R57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2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방안 연구 - 특성화고 혁신지원 운영모형 개발 / 강경균·김영만·김용성
- 20-R5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 김희진·임희진·정윤미
- 20-R6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 개발 / 연보라·최정원·김성은
- 20-R61 학업중단 현황 및 지원 방안 / 김성은·박하나·김현수
- 20-R62 환경 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연구 / 장근영·김기헌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0-S01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30)
- 20-S0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성과보고회(1.31)
- 20-S03 2020년 제2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1.22)
- 20-S04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1.31)
- 20-S05 제25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강원국 교수의 매력적인 글쓰기 특강(4.23)
- 20-S06 제26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김병완 작가의 쿼텀 독서법 및 책쓰기 특강 (4.21)
- 20-S07 2020년 제29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안(6.19)
- 20-S08 2020년 제30회 청소년정책포럼 :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 (7.17)

- 20-S09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실무 역량 강화 연수(초등, 중등, 고등)(7.28)
- 20-S10 2020년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7.28)
- 20-S11 제3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묻다 <별점 인생>(8.5)
- 20-S12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1)
- 20-S13 제3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Z세대의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스타마켓을 중심으로(8.26)
- 20-S14 2020년 제32회 청소년정책포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의 방향(8.18)
- 20-S15 청소년 이슈 관련 네트워크 분석(8.25)
- 20-S16 2020년 제33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안팎 청소년 협력체계 구성 연계 방안(9.23)
- 20-S17 제3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10.6)
- 20-S18 2020년 대안학교 관리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10.5)
- 20-S19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10.5)
- 20-S20 2020년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10.21)
- 20-S21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11.12~13)
- 20-S22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11.13)
- 20-S23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11.18)
- 20-S24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 사이버폭력 정책 동향 및 국내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방향 모색)(12.18)
- 20-S25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11.28)
- 20-S26 제9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11.20)
- 20-S27 제36차 청소년정책포럼: 우리나라 한국아동·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12.1)
- 20-S28 제37차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체계의 과제와 방향(12.8)
- 20-S29 제1차 10대청소년목소리포럼: 코로나로 세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이상을 쓰다 - 동고동락, 다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12.5)
- 20-S30 제38차 청소년정책포럼: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12.17)
- 20-S31 제39차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12.22)
- 20-S32 진로위험학생 유형별 진로교육 실천과제 성과보고회 자료집(11.27)

##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9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9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99호)

##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9호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 예정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1호 :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2호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3호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4호 :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5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계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6호 : 「청년기본법」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7호 :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8호 :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9호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NYPI Bluenote 통계 49호 :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대학교 실습 학기제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50호 :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51호 :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관련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5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연구보고 20-R03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인 쇄 2020년 12월 23일

발 행 2020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044-865-8115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65-0



연구보고 20-R03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0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ISBN 979-11-5654-265-0 93330